E-Book

바가바드 기타

정창영 역 인도의 영원한 정신적 지침서이자, 힌두교 최고의 성전. 마부(馬夫)이자 스승인 크리슈나와 판다바족의 왕자 아르주나의 대화가 주 내용이며,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핵심을 담고 있다. 왕권과 골육상잔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 아르주나에게 크리슈나는 다르마(의무)의 개념을 가르친다. 더불어 카르마(행동), 즈나나(지식), 박티(신애) 등 신(神)에 이르는 여러 길을 제시하며 그 우주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OLJE CLASSICS

OLJE CLASSICS
52

바가바드 기타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바가바드 기타》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 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정창영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올재 후원하러 가기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oljeclassics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차 례

해제*

정창영

1. 《바가바드 기타》는 어떤 책인가?

《바가바드 기타》는 700구절로 된 종교적인 내용의 시집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글자대로 하면 '거룩한 분의 노래' 곧 '신의 노래'라는 뜻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힌두교에서 종파를 가리지 않고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다. 이를테면 인도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다. 《바가바드 기타》는 예로부터 긴 세월을 두고 인도의 정신적 · 문화적 · 정치적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인도의 정신적 · 영적 지도자 중에서 《바가바드 기타》에 대한 번역이나 해설서 한 권 안 남긴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학파의 사유체계를 보여 주는 논문이 아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우파니샤드》에서 많은 영감을 이끌어오고 있다. 《바가바드 기타》는 또한 《베다》의 권위도 무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가바드 기타》의 저자가 인도의 다양한 정신적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영적 · 사상적 전통을 긍정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을 뜻한다. 《바가바드 기타》에는 《베다》의 제사의식에 대한 가르침, 《우파니샤드》의 초월적인 브라만에 대한 가르침, 바가바타 종교의 유일신(唯一神)에 대한 가르침, 상키야 철학의 푸루샤와 프라크리티에 대한 가르침, 요가의 합일에 대한 가르침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바가바드 기타》는 또 몇 사람에게만 은밀히 전수된 비밀의 책도 아니다. 사회적 · 문화적 지위와 영적인 수준이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바가바드 기

* 이 해제는 이저튼(Franklin Edgerton), 애스와란(Eknath Easwaran), 프라바바난다와 이셔우드(Swami Prabhavananda & Christopher Isherwood), 라다크리슈난(S. Radhakrishnan)의 《바가바드 기타》 해설을 참고해서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타》에서 도움을 받았고 또 받고 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이렇게 대중적인 책이다. 그래서 시대와 종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영향을 주는 보편성을 가지게 되었다.

《바가바드 기타》가 성립된 연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저마다 다르다. 하지만 대충 기원전 4, 5세기 무렵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어떤 사람은 기원전 2, 3세기 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은 대서사시인 《마하바라타》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원래는 독립적인 문헌이었다는 데에도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마하바라타》의 편찬자인 성자 뱌사하(Vyasa)가 아닐까 추측하는 정도이다.

《바가바드 기타》 안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드리타라슈트라, 산자야, 아르주나, 크리슈나 이렇게 네 명뿐이다. 드리타라슈트라 왕은 소경이었다. 《바가바드 기타》의 성립에 관련된 이런 전설이 있다. 《바가바드 기타》의 저자라고 하는 뱌사하가 《바가바드 기타》의 무대가 되고 있는 쿠루 들판의 전쟁을 볼 수 있도록 드리타라슈트라의 눈을 뜨게 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드리타라슈트라는 거절했다. 친족의 죽음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 그래서 뱌사하는 드리타라슈트라 왕의 마부인 산자야에게 천리안과 천이통 능력을 주었다. 산자야는 그 능력으로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상황을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왕에게 보고했다. 산자야는 보고하는 중간 중간에 가끔 자기의 생각도 끼워 넣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이렇게 해서 탄생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크리슈나를 “인도의 그리스도”라고 한다. 《바가바드 기타》와 그 밖에 크리슈나와 관련된 설화를 보면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비슷한 부분이 놀랄 만큼 많다. 기독교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더욱 유념해야 될 것은 인도의 크리슈나가 나사렛 예수보다 시

대가 앞선다는 점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크리슈나가 '인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팔레스타인의 크리슈나'인 셈이다. 물론 크리슈나의 역사적 실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점은 예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 《바가바드 기타》나 복음서를 읽는 사람에게는 역사적인 과거의 크리슈나나 과거의 예수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그들의 가르침이 궁극적인 진리이며, 그들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들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육체가 아니라 정신으로 본다면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2. 브라만과 아트만

《바가바드 기타》는 특정한 형이상학적 견해를 지지하는 어떤 논증도 전개하지 않는다. 유일하고 보편적인 실재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 뿐, 이론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가바드 기타》는 다른 힌두교 문헌과 마찬가지로 브라만과 아트만을 토대로 하는 분명한 우주론 위에 서 있다. 브라만은 우주의 중심이자 우주 전체에 깃들어 있는 보편적인 실재이다. 브라만은 총체적인 신성(神性)이며,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우파니샤드》는 브라만을 사치드아난다〔sat–chit–ananda : 존재–의식–지복〕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존재니 의식이니 지복이니 하는 말도 브라만의 성질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성질을 나타내려면 그와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상대물이 있어야 하는데, 브라만은 절대이며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물이 없다. 그러므로 브라만의 성질을 이렇다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 인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네티, 네

티)"라는 부정을 통해 브라만에 도달하려고 했다. 물질과 정신세계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홀로 남아 있는 '그 무엇'을 브라만이라고 했다.
브라만은 생명이 있는 존재이든 없는 존재이든 모든 존재 속에 현존하고 있는 보편적인 실재이다. 이것을 신성(神性)이라고 부른다면, 만물 속에 신성이 현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신성은 사람 속에도 있고, 동물 속에도 있으며, 돌 속에도, 번개 속에도 있다. 이렇게 각 개체 속에 현존하는 브라만을 아트만이라고 한다. 아트만과 브라만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브라만이나 아트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다. 차라리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억지 표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른다. 《브리하드아란냐카 우파니샤드》는 이렇게 묻고 있다. "만물의 참 자아인 아트만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자는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은 브라만이나 아트만이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역설이다. 브라만은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다.
브라만은 모든 개체성이 용해된 상태의 통짜배기, 곧 '둘이 아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아드바이타(비이원성)라고 한다. 《우파니샤드》는 "브라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는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흔적도 없고, 악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에게는 어둠이나 그림자가 없으며, 안도 없고 밖도 없다"는 식의 부정을 사용하여 브라만을 설명하고 있다.
《바가바드 기타》는 《우파니샤드》의 이런 견해를 여러 구절에서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몸을 입은 자 곧 참 자아는 칼로 벨 수 없고,
불에도 타지 않으며, 물에도 젖지 않고, 바람으로 말릴 수도 없다.

몸을 입은 자는 벨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으며,
젖게 하거나 마르게 할 수도 없다.
몸을 입은 자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토대이다.
몸을 입은 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인간의 모든 생각 너머에 있어서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몸을 입은 자는 변화를 경험하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2:23~25)

"이제 그대에게 모든 앎의 목표인
불멸에 이르는 지혜,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그것',
곧 시작이 없는 브라만에 대해 말해 주리라."(13:12)

"그는 멀리 있으면서 동시에 가까이 있고,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밖에 있으며,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한 존재이다.
그는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다양한 존재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가 존재들을 생성시키는 창조자이고,
존재들을 지탱하는 유지자이며,
존재들을 소멸시키는 파괴자이다.
이런 그를 아는 것이 모든 앎의 목표이다.
그는 모든 존재의 가슴속에 머물고 있다.

그는 모든 빛의 원천이다.
그는 어둠을 초월해 있다.
그는 모든 앎의 대상이자 목표이며,
앎 그 자체이다."(13:15~17)

이런 표현은 브라만의 이중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곧 브라만은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내재자라는 것이다. 그는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밖에 있다. 그는 존재〔being〕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becoming〕이다. 이런 브라만이 현상적인 세계와의 관계에서는 이슈바라(Ishvara)라고 하는 인격신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슈바라는 사랑, 자비, 정결, 정의, 지식, 진리 등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신이다. 브라만이 우주의 주재자이지만, 브라만은 모든 행위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브라만을 우주의 창조 · 유지 · 파괴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브라만의 창조 · 유지 · 파괴 행위를 주관하는 인격신 이슈바라가 등장한 것이다. 이슈바라는 브라만의 능력이 인격화된 신이다.

브라만과 이슈바라 두 이름을 말하는 것은 이원론(二元論)이 아니다. 브라만과 브라만의 능력인 이슈바라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브라만에서 이슈바라를 따로 떼어낼 수 없다. 이는 불에서 열을 갈라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철학적인 분석으로는 브라만의 신비를 알 수 없다. 이슈바라라고 하는 인격신 관념은 인간이 브라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이다. 이슈바라는 인간이 최대한으로 생각할 수 있는 브라만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브라만 자체는 아니라는 말이다. 브라만은 생각의 대상이 아니다. 생각조차도 브라만의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브라만은 초월적인 의식상태에서 체험될 수 있을 뿐이다.

브라만을 체험하는 초월적인 의식상태를 사마디 또는 합일이라고 한다. 《바가바

드 기타》에는 이 상태에 이르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마음을 안으로 돌리고, 바깥 세계와 접촉하는 감각기관을 제어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참 자아 아트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참 자아 아트만이 곧 우주적 신성인 브라만이라는 사실도 깨닫고 모든 차별과 이원성을 벗어 던진다. 이런 사람은 브라만과의 합일 상태에 머문다. 이것이 《바가바드 기타》가 말하고 있는 합일 곧 요가 훈련의 핵심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합일에 이르는 길을 여럿 제시하면서, 사람마다 자기가 타고난 기질에 맞는 길을 갈 것을 권한다.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동하는 행위의 길인 카르마 요가를,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모든 행위를 신께 바치는 제물로 여기는 헌신의 길인 박티 요가를, 그리고 명상적인 사람에게는 냉철한 식별력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지혜의 길인 갸나 요가를 권한다. 하지만 이 세 길이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길임도 강조하고 있다.

힌두교에서는 창조하고 유지하며 해체하는 이슈바라의 세 기능을 다시 인격화하여 브라마(Brahma), 비슈누(Vishnu), 시바(Shiva)라고 부른다. 브라마는 창조의 능력이 인격화된 신이고, 비슈누는 유지하고 지탱하는 능력이 인격화된 신이며, 시바는 파괴하는 힘이 인격화된 신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현상 세계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성의 세 측면 가운데서 현상 세계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비슈누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비슈누는 현상 세계를 주재하는 내적인 통치자인데, 《바가바드 기타》에서 스승으로 등장하는 크리슈나는 비슈누의 화신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사람들은 브라마를 창조자라고 하고 시바를 파괴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창조되는 것도 없고 파괴되는 것도 없다. 움직이지 않는 스크린 위에 이런저런 영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브라만의 영원성 안에서 세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브

라만의 이 영원한 과정은 '가능성 시대'와 '나타남 시대'로 나누어진다. '가능성 시대'가 끝나고 '나타남 시대'가 시작되면서 만물이 현상으로 나타난다. 또 '나타남 시대'가 끝나면 만물이 해체되어 가능성, 곧 씨의 상태로 돌아가 다음 '나타남 시대'를 기다린다.

나타남과 가능성의 반복이 8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크리슈나는 '나타남 시대'를 '브라마의 낮'이라 부르고 '가능성 시대'를 '브라마의 밤'이라고 부른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지구의 시간으로는 수십억 년이
브라마의 세계에서는 하루 밤낮에 지나지 않는다.
브라마의 아침이 밝으면
뭇 존재들이 무형(無形)의 세계에서 현상 세계로 나와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다가 브라마의 밤이 오면
모든 존재들이 무형의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브라마의 낮과 밤에 따라
존재들의 생성과 소멸이 무한하게 반복된다.
그러나 생성과 소멸을 초월한
더 높은 또 다른 무형의 차원이 있다.
이 근원적인 무형의 세계는
우주가 소멸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실재 차원이다.
이 차원이 곧 나의 세계다."(8:17~20)

3. 푸루샤와 프라크리티 : 정신과 물질

인도 철학사에서 푸루샤(Purusa)와 프라크리티(Prakriti)에 관한 논쟁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푸루샤의 문자적인 뜻은 '몸 안에 머물고 있는 신성'이다. 푸루샤는 마음과 물질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원인이 되는 신적인 정신이다. 그래서 개체화된 존재 속에 거하는 신성인 아트만과 동의어로 쓰인다. 프라크리티는 신적인 정신인 푸루샤에서 파생된 현상의 근본질료(根本質料)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이 문제에 대해 베단타 철학에 동조한다.

베단타는 "현상 세계는 마음과 물질이 분화되지 않는 상태의 근본질료인 프라크리티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불에서 열이 발산되듯이 브라만(아트만, 푸루샤)에서 프라크리티가 파생되어 나온다. 하지만 열이 불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듯이 프라크리티 역시 브라만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바가바드 기타》에 의하면 이슈바라는 필요할 때마다 프라크리티에서 자기를 위한 몸을 만들어 낸다. 이슈바라의 화신인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한다.

> "나는 진리가 쇠퇴하고 거짓이 세상을 덮으면
> 어느 때이고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낸다.
> 나는 선을 보호하고 악을 멸하기 위해,
> 그리하여 진리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
> 매 시대마다 다시 온다."(4:7~8)

그렇지만 그는 인간의 형상으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프라크리티의 주(主)로 남아,

자신의 참 자아 아트만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보통 인간과 크리슈나 같은 신의 화신이 다른 점이다. 보통 사람은 프라크리티에 미혹되어 자기는 아트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프라크리티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자아 아트만과 하나 되는 길이다. 프라크리티의 미혹에서 벗어나 참 자아 아트만에 머물게 되면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난다. 태어남과 죽음은 프라크리티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는 이미 프라크리티의 세력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프라크리티는 사트바 구나, 라자스 구나, 타마스 구나라고 하는 세 가지 기운 또는 세 가지 성질로 이루어져 있다. 사트바는 밝고 고요하고 순수한 기운이고, 라자스는 활동적이고 격정적인 기운이며 타마스는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다. 마음이나 물질에는 이 세 가지 기운이 늘 함께 들어 있으며, 어떤 기운이 지배적이냐에 따라 외적인 형태가 결정된다. 물질에서 사트바 기운이 지배적이면 햇빛이나 공기 같은 기체성 물질이 되고, 라자스 기운이 지배적이면 물과 같은 액체성 물질이 되며, 타마스 기운이 지배적이면 돌이나 바위 같은 고체성 물질이 된다. 마음에서 사트바 기운이 지배적이면 침착, 정결, 평온 등의 특성이 나타나고, 라자스 기운이 지배적이면 열정, 불안정, 도전적인 활동 등의 특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타마스 기운이 지배적이면 우둔함, 게으름, 잠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마음과 물질에 내재되어 있는 세 가지 구나는 평형 상태와 평형이 깨진 상태를 오락가락한다. 이 두 상태를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세 가지 구나가 완벽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프라크리티는 미분화 상태로 있다. 이 때에는 모든 현상적인 우주가 가능성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현상적인 우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 힘의 상호관계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변한다. 어느 한 힘이 다른 두 힘보다 우세하거나 다른 한 힘이 나머지 두 힘보다 우세해지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힘의 조합 결과로 엄청나게 다

양한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이 생긴다. 현상 세계는 세 구나가 다시 평형 상태를 찾아 가능성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그 형태와 수를 늘려나간다.

그러면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가? 이 질문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대답이 불가능하다. 인간의 이성 자체가 프라크리티의 변화 과정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완전한 요가 상태 또는 사마디 상태에서 브라만과 프라크리티의 관계를 체험한다. 그러나 자신의 체험을 논리적인 용어나 개념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는 없다. 브라만의 자리에서 보면 모든 것이 브라만일 뿐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설명하려면 설명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브라만은 결코 대상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 가지 구나는 서로 반대되면서 동시에 상호 보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세 구나는 힘의 삼각형에서 각 꼭짓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나라는 말은 존재의 진화 과정을 나타내는 데에도 쓰인다. 이 경우 사트바 구나는 실현될 형태의 원형(原形)이고, 라자스 구나는 그 원형을 형상화시키는 힘이며, 타마스 구나는 원형이 형상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다. 예를 들어 진흙으로 코끼리를 빚어내려는 조각가가 있다고 하자. 이때 조각가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코끼리의 형상은 사트바 구나이다. 그가 사용할 진흙 덩어리는 아직 특정한 형태가 없다. 이 '형태 없음'은 코끼리 형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코끼리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다. 이것이 타마스 구나이다. 그러나 작업을 계속하여 코끼리 형상을 빚어내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코끼리 모습을 꼭 만들어 내겠다는 조각가의 의지와 형상을 빚어내기 위해 손발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것이 라자스 구나이다. 모든 창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구나가 함께 작용한다. 사트바만 있다면 공허한 이상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트바의 이상과 그 이상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타마스가 없다면 라자스는 나아갈 방향이나 힘을

발휘할 근거가 없이 혼돈 속에서 헤맬 것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현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구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크리슈나는 훈련을 통해 구나의 영역을 초월하라고 가르친다. 그러지 않으면 물질 차원의 굴레에 얽매여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나의 영역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흐름인 마음을 제어해야 한다. 생각의 흐름도 구나의 힘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구나의 영역을 초월하지 못한다.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한다.

"물질 차원의 세 기운을 초월한 사람은
밝으면 밝은 대로 놔두고,
활동적이면 활동적인 대로 놔두며,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놔둔다.
어떤 상태를 싫어하지도 않고 갈구하지도 않는다.
그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처럼
물질의 기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
그는 물질적인 기운의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는 모든 행위와 활동이
물질적인 기운의 활동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
그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하나로 보며,
흙덩이와 돌과 황금을 똑같은 것으로 여긴다.
그는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는 명예와 불명예를 동등하게 보고,
친구와 적을 똑같이 여기며,
인위적인 행위를 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일러
물질 차원의 기운을 초월한 자라고 한다."(14:22~25)

프라크리티에서 출발하여 천차만별의 만물에 이르는 진화 단계 또는 창조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자. 힌두 철학에 따르면 미분화 상태의 프라크리티에서 현상이 전개되어 나오는 첫 단계는 마하트(mahat)이다. 마하트의 문자적인 뜻은 '위대한 근본 원리'인데, 이것은 프라크리티에서 맨 먼저 분화되어 나오는 일종의 우주적인 지성이다. 진화는 마하트에 식별 능력인 '붓디(buddhi)'로, 그리고 붓디에서 개인적인 자아의식인 '아함카라(ahamkara)'로 진행된다. 아함카라부터는 지배적인 힘이 사트바냐 타마스냐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가 전개된다. 라자스는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발전을 하지 않고 사트바와 타마스를 돕는 역할만을 한다.
사트바의 힘이 지배적인 아함카라에서는 사고 능력인 '마나스(manas)〔意根〕〔마음〕'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능력인 '갸나-인드리야(jnana-indriya)〔五智根〕'와 말하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배설하고, 생식하는 능력인 '카르마-인드리야(karma-indriya)〔五作根〕'가 산출되어 나온다. 여기서 '인드리야(indriya)〔根〕'는 눈에 보이는 육체 기관이 아니라 이런 역할을 맡은 육체 기관이 작용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한편 타마스의 힘이 지배적인 아함카라에서는 색, 소리, 향기, 맛, 감촉의 본질인 '탄마트라(tanmatra)〔五唯〕'가 생기고 탄마트라의 결합에 의해 흙, 물, 불, 바람, 허공이라는 '부타(bhuta)〔五大〕'가 산

출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로소 우주가 현상 세계에 나타난다. 이 체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프라크리티에서 시작하는 이 모든 과정이 신적인 정신인 푸루샤(아트만, 브라만)의 자기 전개이지만, 신적인 정신은 이 모든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늘 자신의 상태에 머문다. 신적인 정신은 태어나지도, 변화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신적인 정신은 시작도 중간도 끝도 없다. 이것이 《바가바드 기타》가 채용하고 있는 힌두 철학의 대체적인 결론이다.

4. 영원에 이르는 세 길

우리가 신을 생각하는 것은, 시작은 생각에서 할지라도 목표는 환상을 벗어나 신에 도달하는 데에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신에서 이탈한 존재라고 느낀다면, 그에게는 자신은 신의 일부이며 그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

는다는 것을 일깨워 줄 적절한 테크닉이 필요하다. 신에 대한 깨달음은 머리가 아니라 존재 전체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존재 전체가 변형되려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체계와 그 체계를 뒷받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바가바드 기타》는 형이상학적인 체계와 함께 훈련 방법도 제시한다.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르주나여,
나는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
제대로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설명을 했다.
이제는 그 앎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말해 주겠다.
이 실천을 통해 그대는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 실천의 길 곧 요가 수행의 길에서는
어떤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고,
점점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
아주 작은 노력일지라도
그대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2:39~40)

이처럼 《바가바드 기타》가 제시하는 훈련 방법은 요가이다. '요가'의 문자적인 뜻은 '결합하다' 또는 '함께 묶는다'이다. 육체와 정신 또는 신과 인간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마음과 정신의 힘을 집중하여 에고를 넘어서서 초월적인 자아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바가바드 기타》는 훈련을 통해 브라만과 하나 된 상태를 요가라고 부른다. 요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했다. 한 가지 형태 속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이런 여러 형태의 요가를 유연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 또 영혼의 성숙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훈련을 하기를 권한다. 완전한 요가 상태, 브라만과의 완전한 합일 상태, 신성으로의 완전한 몰입이 기독교 용어로는 구원이다. 이것이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여의고, 슬픔과 고통의 세계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모크샤 곧 해탈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구원과 해탈에 이르는 세 길을 알려준다.

① 지혜의 길(Jnana-marga)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노력한 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수도 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은 실재가 아닌 것을 실재로 착각하는 환상에서 비롯된다. 냉철한 지혜를 통해, 실재가 아닌 것을 하나하나 떼어내다 보면 마지막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실재와 만난다. 그러면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죄악은 주인인 영혼이 물질의 세 기운인 구나들의 활동에 얽매여 종노릇할 때 생긴다. 하지만 참 자아 주인공은 구나들의 활동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현상 세계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에 이른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냉철한 지혜와 그 지혜를 끝까지 밀고나가는 정신의 끈질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혜의 연마를 통해 궁극적인 실재와 영원한 자유를 추구하는 수행을 '갸나 요가'라고 한다.

"아르주나여,
지혜를 닦는 것이
자기가 소유한 물질을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낫다.
지혜와 깨달음이 모든 행위의 목표이기 때문이다."(4:33)

"나는 모든 앎의 궁극적인 목표이다."(9:17)

"언제 어디서나
앎의 궁극 목표인 '나'를 찾는 것이
참다운 지혜이다.
'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무지이다."(13:11)

"지금까지 설명한
들판과 앎과 앎의 대상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라.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나의 상태에 이르리라."(13:18)

"아르주나여,
그대가 죄인 가운데 죄인일지라도
지혜의 배를 타고 죄악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장작을 재로 만들듯이,
지혜의 불은
행위로 인해 쌓인 모든 카르마를 재로 만든다.
지혜의 불만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
요가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자기 내면에서 참 자아를 아는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4:36~38)

② 헌신의 길(Bhakti-marga)

헌신의 길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다. 헌신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나 크리슈나 또는 라마나 마하리쉬나 라마크리슈나 같은 위대한 영적인 스승을 택하여 그들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그들을 자신의 신으로 떠받들며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는다. 영적인 스승에 대한 헌신과 그들의 삶에 대한 명상이 깊어지면 그들이 간직하고 있던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때가 되면 그들과 관련된 외적인 현상에서 그들이 품고 있던 정신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린다.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힌 인간적인 스승이 아니라, 영원한 정신을 섬기며 그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단계에 도달한다. 모든 행위를 영원한 정신인 신께 바치는 제물로 여긴다. 밥 먹는 것도 신이 신께 음식을 바치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신이 신께 말하는 것이며, 일하는 것도 신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헌신이며, 《바가바드 기타》는 이런 절대적인 헌신을 신과 하나 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가르친다. 베 짜는 처녀가 무식할지라도 평화로운 것처럼, 완전한 헌신은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준다. 완전한 헌신을 통해 평화의 바다에 이르면 신의 빛과 축복에 휩싸이게 된다. 이렇게 헌신을 통한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수행을 '박티 요가'라고 한다.

"모든 존재를 신으로 보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 신들도 그대를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며,
상호 간의 이런 섬김과 사랑을 통해
그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신들은 그대의 순수한 사랑과 섬김을 기뻐하며
그대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신께 제물은 바치지 않고
신이 주는 선물만을 받아 즐기려는 사람은 도둑이다."(3:11~12)

"진실로 위대한 영혼은
내가 만물의 영원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본성의 신성한 상태에 머물면서 한마음으로 나를 섬긴다.
굳은 의지로 서원을 지키려고 늘 애쓰면서
흔들림 없이 나를 섬긴다.
그들은 나를 찬양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나에게 바친다."(9:13~14)

"나뭇잎 한 장,
꽃 한 송이,
과일 한 조각,
물 한 그릇을 나에게 바치더라도
가슴을 다하여 바치면
나는 순수한 영혼의 그 제물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그대의 모든 행위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도록 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바치든지,

무엇을 베풀든지,

또는 무슨 수행을 하든지,

그대의 모든 행위를

나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라.

그러면 그대는 행위의 결과에서 벗어나리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악의 업보에서 벗어나리라."(9:26~28)

"나는 만물을 평등하게 본다.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할 것이며,

나도 그들 안에 거할 것이다."(9:29)

"아르주나여,

이 점을 잊지 마라.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9:31)

"아르주나여,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더라도

나에게 귀의하는 사람은

이생에서 가장 높은 목표에 이를 것이다.

바이샤나 심지어 수드라처럼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하물며 덕 있는 왕족과 경건한 현자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왕 덧없고 불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태어난 마당에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아르주나여,
그대의 마음을 나로 채우라.
항상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겨라.
나를 지고한 목표로 삼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오게 되리라."(9:32~35)

"나는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온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은 생각을 나에게만 몰두하고,
온 힘을 나에게 쏟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만물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며,
늘 만족하며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10:8~9)

"아르주나여,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만

나와 하나 될 수 있고,
나를 알고 나를 볼 수 있다."(11:54)

③ 행위의 길〔Karma-marga〕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모든 행위를 포기하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행위에는 어떤 행위이든 그 행위로 인한 여파가 뒤따른다. 행위의 여파는 다음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행위는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여기에서 《바가바드 기타》는 행위를 통해 행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준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행위를 하면 행위에 속박되지 않고 행위의 결과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육체가 이런저런 행위를 하도록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완전한 자유에 이르려면 완전한 포기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를 훈련하지 않고는 완전한 포기가 불가능하다. 완전한 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를 훈련하는 것을 '카르마 요가'라고 한다.

"그대의 다르마는
그대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는 그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행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행위를 피해서도 안 된다.
아르주나여,

흔들리지 않는 합일 상태에 머물면서,
성공과 실패를 평등하게 여기며,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대의 다르마를 수행하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절대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곧 요가다."(2:47~48)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지혜를 피난처로 삼아라.
행위의 결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바라는 결과에 대한
목마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요가 수행에 헌신하라.
요가는 진정한 행위의 기술이기 때문이다."(2:49~50)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은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는 윤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윤회의 사슬을 끊고
고통이 없는 곳에 이른다."(2:51)

"아르주나여,
그대의 다르마를 수행하도록 하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대의 육신조차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신께 제물을 바치듯이
그것 자체가 목적인 행위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욕망의 굴레에 얽매여 있다.
그대는 모든 행위를 신께 제물을 바치듯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행하도록 하라."(3:8~9)

"언제나 결과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대가 마땅히 할 바를 하라.
그대는 집착 없는 행위를 통해서
지고한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3:19)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소유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참 자아 상태에 머물면서
육체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못이 없다."(4:21)

"세속적인 행위를 포기하는 상키야 요가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 하는 카르마 요가는

둘 다 지고한 목표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세속적인 행위를 포기하는 길보다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의 길이 더 낫다."(5:2)

"어리석은 사람은 상키야 요가와 카르마 요가
곧, 지혜의 길과 행위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똑같은 것으로 본다.
어느 한 길을 통해서든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다른 길을 통해 도달하는 것과
똑같은 경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혜의 길이 목표로 하는 것과
행위의 길이 목표로 하는 것이 같다."(5:4~5)

"행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완전한 포기를 성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의 길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브라만에 도달할 것이다."(5:6)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감각과 욕망을 정복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그들은 만물 속에서 참 자아 아트만을 보며

그들과 자신이 하나임을 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
자신이 하는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5:7)

"행위의 결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해야 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포기자요
요가의 목표를 이룬 사람이다.
아르주나여,
그러므로 그대는
이기적인 욕망 없이 행위 하는 것이
곧 포기임을 알아야 한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요가의 길을 가지 못한다."(6:1~2)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 하는 카르마 요가는
우주적인 합일에 도달하고자 하는 구도자가 가야 할 길이다."(6:3)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모든 행위를 포기하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포기는
자기가 바라는 결과를 기대하는 행위,
곧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즐거움과 괴로움, 그리고 그 둘이 섞인
세 가지 열매를 번갈아 맛본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 사람은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적인 자유를 누린다."(18:11)

이처럼 '지혜의 길'과 '헌신의 길'과 '행위의 길'은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사람은 타고난 기질에 따라 사고력과 감성과 활동성에 차이가 있다.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지혜의 길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헌신의 길이, 그리고 활동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행위의 길이 자기에게 맞는 길이다. 어느 하나만을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사고력과 감성과 활동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영원한 신성에 이르는 세 길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길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이 세 길이 하나의 목표에 이르는 길이며, 함께 가야 하는 길임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의 일차적인 목표는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 하는 것이다. 엄격한 자기 제어를 통해 이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지혜의 힘을 빌려서 "나는 왜 저것을 갖고 싶어 할까? 나는 왜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면 평화가 올까? 저것을 내 소유로 만들면 더 자유로워질까?"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행위의 길을 간다면 보다 더 확실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모든 행위를 신께 바치는 제물로 생각하는 헌신의 길이 더해 진다면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목표에 이르지 않겠는가.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고,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자기가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든지 다른 길도 함께 간다면, 그토록 꿈꾸는 불멸의 자유와 영원한 평화에 확실히 이르게 될 것이다.

아르주나의 번민

제 1 장 | 아르주나의 번민

드리타라슈트라 :

1. 산자야여,
내 아들들과 판두의 아들들이
다르마[1]의 들판인 쿠루 들판에서
서로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였다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산자야 :

2~6. 두료다나 왕은
판두의 아들들이 전투를 위해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고
스승 드로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늘어선 군대를 보십시오.
선생님의 뛰어난 제자 드루파다의 아들이 지휘하고 있는
판두의 아들들의 군대입니다.
저기에는 유유다나, 비라타, 위대한 전사(戰士)인 드루파다,
드리슈타케투, 체키타나, 카시족의 용맹스러운 왕,
푸루지트, 쿤티보자, 황소 같은 사이바, 힘이 넘치는 유다마누,
용맹스러운 우타마우자스, 수바드라의 아들
그리고 드라우파디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비마와 아르주나 못지않은 전사들이자

1 다르마 : '다르마'는 문맥에 따라서 의무, 정의(正義), 법(진리), 덕(德)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주로 타고난 신분에 따른 '의무'를 일컫는 데 사용되고 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정의이고 덕이며, 그것이 곧 존재에 충실한 것이다. 태양의 다르마는 빛과 열이며, 태양이 빛과 열을 발산할 때 자신의 존재에 충실한 것이고 그것이 곧 태양의 정의이고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르마의 들판에서 벌이는 전쟁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또는 자신의 의무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가늠하는 내면의 전투라고 할 수 있다.

뛰어난 활잡이들입니다.
모두 막강한 장수들입니다."

7~11. "오, 두 번 태어난 분[2]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분이시여!
우리 편에도 뛰어난 장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비슈마, 카르나,
붙었다하면 이기는 크리파, 선생님의 아들 아슈밧타마,
비카르나 그리고 소마닷타의 아들이 우리 편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한
많은 용사들이 갖가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투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비마가 지휘하고 있는 저쪽 군대보다
비슈마가 지휘하고 있는 우리 편이 훨씬 막강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장수와 병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비슈마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12~13. 두료나다의 말이 끝나자 그의 기운을 북돋우려고
쿠루족의 우두머리인 비슈마가
사자후를 발하면서 소라 나팔을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소라 나팔과 뿔 나팔과
징 소리와 북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천지를 진동시킬 만큼 대단했습니다.

2 두 번 태어난 분 : 문자적으로는 '성스러운 줄(탯줄)을 두른 사람'으로 카스트의 고위층 멤버를 일컫는다. 첫 번째 출생은 자연적인 출생이고, 두 번째 출생은 빛의 아이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이라는 해석도 있다.

14~20. 그러자 흰 말들이 끄는 튼튼한 전차 위에 서 있던
크리슈나와 아르주나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크리슈나는 악마 판차야나의 뼈로 만든
판차야나라는 나팔을 불었고,
아르주나는 인드라 신에게 받은
데바다타라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용맹스러운 비마는
큰 나팔 파운드라를 불었습니다.
쿤티의 아들 유디슈티라 왕은 아난타비자야를 불었고,
나쿨라와 사하데바는 수고샤와 마니푸슈파카를 불었습니다.
최고의 활잡이인 카시족의 왕, 위대한 전사 쉬칸디, 드리쉬타듐나,
비라타, 백전불굴의 사트야키, 드루파다, 드라우파디의 아들들
그리고 억센 팔을 지닌 수바드라의 아들도
각자 자기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이 부는 나팔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며
두료나다 병사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20. 이윽고 전투가 시작되었고,
용맹을 상징하는 원숭이 신 하누만이 그려진 깃발을 날리며
전차 위에 서 있던 아르주나가
적진을 향해 활을 쏘려고 하다가
크리슈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주나 :
21~23. 크리슈나여,
전차를 양군 진영 가운데로 모십시오.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악한 두료다나를 위해 싸우려고 모인
싸움에 굶주린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산자야 :
24~25. 아르주나가 이렇게 말하자
크리슈나는 번쩍이는 전차를
양군이 포진하고 있는 한복판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두료나다 편에 포진하고 있는
비슈마와 드로나와 여러 장군들이 정면으로 보이는 지점에 서서
아르주나에게 말했습니다.
“자, 보시오. 여기 쿠루족 사람들이 다 모여 있소.”

26~27. 아르주나는 친척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
스승들과 아저씨들과 형제들,
그리고 아들들과 손자들과 장인과 친구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아르주나는 슬픔에 젖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아르주나 :
28~31. 오, 크리슈나여!
싸우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의 친구와 친척들입니다.
이것을 보니 맥이 빠지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며 몸이 떨립니다.
소름이 끼치며 머리털이 쭈뼛쭈뼛 섭니다.
살갗이 타들어 가는 듯하고
손에 힘이 빠져 활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번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도
친척과 친구들을 죽인 다음에 그게 무슨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32~35. 오, 크리슈나여,
저는 이번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왕국도 필요 없고 즐거움도 다 필요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들, 아버지와 아들들,
할아버지와 손자들, 삼촌과 조카들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저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삼계(三界)[3]의 지배자가 된다고 해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이 땅의 왕권을 위해서 친족과 친구들을 죽여야 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6~37. 오, 크리슈나여!
큰아버지의 아들들을 죽인다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저들이 악한 무법자라고 할지라도
저들을 죽이면 씻지 못할 죄인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죽이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드리타라슈트라의 아들들은 모두 저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친척을 죽이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3 삼계 :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를 일컫는 말로 포괄적으로 '온 세상'을 가리킨다.

38~43. 저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고,
가족을 죽이고 친구를 해치면서도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찌 우리까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문이 몰락할 것입니다.
가문이 몰락하면 오래된 가문의 법도[4]가 사라지고,
가문의 법도가 사라지면 온 가족 사이에서 무법이 판을 치고
가문의 여인들도 본분을 잃고 타락하게 되고,[5]
가문의 여인들이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사회가 혼란해지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든 입힌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영적인 진화[6]가 중단됩니다.
가족을 죽이면 가문과 사회의 영적인 토대[7]가 무너질 것입니다.

44~46. 저는 어릴 적부터
법도가 무너진 집 사람들[8]은
반드시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왕권의 안락에 대한 욕심으로
친족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차라리 드리타라슈트라의 아들들이 무기를 손에 들고,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는

4　가문의 법도 : '가문의 다르마' 곧 카스트에 따라 가문이 지켜나가야 할 의무.
5　여인들도 본분을 잃고 타락하게 되고 : 여인들이 다른 계급의 남자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카스트 제도가 무너진다는 뜻이다.
6　영적인 진화 : 문자적으로는 '쌀과 물의 제사'.
7　영적인 토대 : 문자적으로는 '카스트 제도와 계급에 따른 다르마'.
8　법도가 무너진 집 사람들 : 가문의 다르마 곧 가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여 죽인다면 그게 더 행복하겠습니다.

산자야 :
47. 양쪽 진영 가운데에서,
슬픔에 사로잡힌 아르주나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활과 화살을 내팽개치며
전차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colophon(刊記)[9] : 이것이 크리슈나와 아르주나의 대화로 이루어진, 절대(브라만, Braman)에 대한 학문이자 요가의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라는 《우파니샤드》의 제1장 〈아르주나의 번민〉편이다.

9 간기(刊記)에 대한 역자 주 :
간기(刊記)는 원래 본문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후대에 삽입된 것이지만, 후대의 연구자들이 《바가바드 기타》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가치가 있다. 판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다. (2장부터는 간기에 언급된 제목만 장 제목으로 표시하겠다.)
절대라고 번역한 브라만은 생각이나 표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브라만이 현상적인 세계의 창조-유지-해체(파괴)를 주관하는 인격신으로 나타날 때는 '이슈바라'라는 이름을 갖는다.
이슈바라에게는 세 모습이 있다. 브라마(Brama)(이슈바라의 창조력), 비슈누(이슈바라의 유지력), 시바(이슈바라의 해체력)가 그것인데, 크리슈나는 비슈누의 화신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요가의 경전이다. 18장 75, 78절에서는 크리슈나를 '요가의 주(主), Yogesvaras'라고 부른다. 브라만을 체험하는 초월적인 의식 상태를 사마디 또는 요가라고 하는데, 요가는 '합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전해 주고자 한 것이 바로 요가였다. 따라서 《바가바드 기타》 전체가 요가에 대한 여러 단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바가바드 기타》를 《우파니샤드》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는 전통이 있다. 《우파니샤드》는 방대한 《베다》 문헌의 일부를 이루는 문서인데, 《베다》는 특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해설]

제 1 장 | 내면의 전쟁

아르주나는 몰락한 판두 왕국의 다섯 왕자 중에 셋째다. 첫째인 유디스티라는 사촌이자 옛 판두 왕국 절반을 지배하고 있던 사촌 우료다나의 꾐에 빠져 도박으로 나라를 잃었다. 도박의 조건이었던 12년 동안의 유배생활을 마친 다음, 유디스티라는 자신의 나라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우료나다는 그 요청을 거절했고, 왕실 어른들의 중재도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쿠루 들판에서 사촌 형제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바가바드 기타》는 본래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제 6권 가운데 일부분이다. 하지만 내용상 하나의 독립된 경전으로 취급하여 따로 읽는 관습이 있다. 《마하바라타》에는 《바가바드 기타》의 무대가 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자세히 나온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

하스티나프라에 자리잡은 쿠루족의 왕권은 드리타라슈트라에게 계승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장님이었다. 관례에 의하면 장님은 통치자가 될 자격이 없었다. 그래

1. 상히타 : 대부분 신에 대한 찬가와 만트라(呪文)로 이루어져 있는데, 베다의 중심이 되는 본집(本集)이다.

2. 브라마나 : 상히타에 나오는 찬가와 만트라의 의미와 사용법을 설명한 책이다. 이를테면 사제들의 지침서(祭禮書)이다.

3. 아란야카 : 숲에 들어가 은거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례에 참여할 수 없는 수행자들을 위해 상히타에 나오는 찬가와 만트라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그래서 '숲의 책'(森林書)이라고도 부른다. 상징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 성격이 강하다.

4. 우파니샤드 : 상히타와 브라마나와 아란야카에 나오는 모든 찬가와 만트라 그리고 제례 행위의 철학적인 근거를 확립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책이다. 베다 전통의 마지막(Veda-anta)이라는 뜻에서 흔히 '베단타(Vedanta)'라고 부르는데, 이때 '마지막'은 단순히 순서상 끝이라기보다는 베다의 정수(精髓) 또는 베다의 결정체라는 뜻이다.

간기(刊記)는 1장의 제목을 〈아르주나의 번민〉이라고 붙이고 있다. '번민'이라고 번역한 '비사다(visada)'는 의기소침, 우울, 슬픔 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비사다'는 요가의 출발점이다. 삶의 정황에 대한 번민과 슬픔 없이는 영적인 길을 찾아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 그의 동생 판두가 왕이 되었다. 하지만 판두는 왕국을 포기하고, 처자식을 데리고 히말라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였다. 왕좌는 드리타라슈트라가 임시로 넘겨받았다. 판두가 죽었을 때 그의 다섯 아들, 유디스티라, 비마, 아르주나, 나쿨라 그리고 사라데바는 아직 어렸다. 그래서 하스티라프라의 왕궁으로 돌아가 큰아버지 드리타라슈트라의 보호를 받으며 양육되었다. 판두의 아들들은 경건하고 영웅적인 용기를 가진 젊은이로 성장했다. 그리고 유디스트라가 성년이 되었을 때, 쿠루 왕가의 정식 후계자로 책봉되었다.

그러자 임시로 왕권을 행사하고 있던 드리타라슈트라의 맏아들 두료다나가 그들을 질투하게 되었고, 급기야 살해할 음모를 꾸민다. 두료다나는 판두의 아들들이 머물고 있는 궁궐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판두의 다섯 아들과 그들의 어머니 쿤티 왕비는 밀고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쳤다. 두료다나는 그들이 다 죽은 줄 알았다. 죽음에서 탈출한 판두의 아들들은 종교 수행자처럼 변장하고, 갖가지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들은 이웃 나라 왕이 공주의 배필을 뽑는다는 말을 들었다. 공주를 아내로 얻어 그 나라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활을 당겨서 아주 작은 목표를 명중시켜야 했다. 아르주나는 뛰어난 궁수(弓手)였다. 그래서 판두의 아들들은 그 시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수행승처럼 변장하고 성으로 들어갔다. 왕의 사위가 되려는 구혼자들이 인도 전 지역에서 모여 들었다. 두료다나도 그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고 판두의 셋째 아들인 아르주나만 남았다. 그는 힘들이지도 않고 활을 당겨 목표물을 맞췄고, 공주 드라우파디는 그에게 승리의 화관을 씌워주었다.

판두의 다섯 아들은 드라우파디를 데리고 어머니 쿤티가 기다리고 있는 숲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기쁨에 들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우리가 아주 놀라운 보물을 얻어왔어요."

"오, 그러냐. 얘들아 부디 똑같이 나눠 갖도록 하거라."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돌아보자 아리따운 소녀가 서 있었다. 쿤티는 말문이 막혔다.

"아이구 이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지!"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어머니의 말은 그들에게 어길 수 없는 거룩한 것이었다. 그래서 드라우파디는 판두의 다섯 아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공동 아내가 되었다. 그는 다섯 형제 각각에게서 아들을 한 명씩 낳았다.
드리타라슈트라와 두료다나는 판두의 아들들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 강한 나라의 왕과 결탁하게 된 사실을 알았다. 두료다나는 사촌인 판두의 아들들을 계속 질투했다. 하지만 성품이 어질었던 드리타라슈트라는 판두의 다섯 아들을 불러 자기 왕국 절반을 나누어 주었다. 판두의 아들들은 야무나 강 유역에 있는 황무지를 분배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개척하여 훌륭한 도시를 건설하고, 맏형인 유디스티라를 왕으로 세웠다.
판두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점점 더 번성해 갔으며,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두료다나의 질투와 증오심도 점점 더 커졌다. 그는 판두의 아들들을 파멸시킬 또 다른 흉계를 꾸몄다. 판두 형제의 맏이인 유디스티라 왕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도박을 즐기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두료다나는 유디스티라 왕이 노름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수락하리라는 것을 알고, 사기 도박꾼인 사쿠니를 시켜 노름을 하도록 했다. 유디스티라는 노름을 할 때마다 졌다. 전 재산을 날리고, 다음에는 자신의 나라를 날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동생들과 아내 드라우파디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걸고 노름을 했지만 모두 패했다. 결국 판두의 아들들은 두료다나의 노예가 되어 온갖 모욕과 학대를 받게 되었다. 그 꼴을 보다 못한 드리타라슈트라의 중재로 판두의 아들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왕국도 돌려받았다.
하지만 두료다나의 집념은 대단했다. 그는 아버지 드리타라슈트라를 졸라 다시 한 번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지는 사람은 자기 왕국을 내놓고 숲 속으로 들어가 12년을 지내야 하며, 12년이 지난 다음 1년 동안은 성안에 들어와 살되 들키지 않아야 한다. 만약 들키면 다시 12년 동안 숲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 도박의 조건이었다.
유디스티라는 이번 도박에서도 또 졌다. 그래서 판두의 다섯 아들은 숲 속으로 추방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불행을 기회로 삼아 영적인 수행을 하면서 영웅적인

용기와 힘을 닦았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3년의 유배 기간을 다 채운 다음, 유디스티라는 자신의 왕국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두료다나는 돌려주기를 거부했다. 왕실 어른들이 중재에 힘썼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리하여 사촌 형제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웃에 있는 나라들도 두 편으로 갈려 차츰 이 싸움에 끼어들어 나중에는 인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쿠루 들판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18일 동안 치열하게 계속되었고, 전쟁이 끝났을 때엔 판두의 다섯 아들과 크리슈나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족장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이 결정적인 전투가 막 벌어지려는 찰라에 셋째인 아르주나와 크리슈나 사이에서 오간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드리타라슈트라의 신하인 산자야가 장님인 드리타라슈트라에게 전황을 보고하면서 아르주나와 크리슈나의 대화 내용을 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주(主) 크리슈나는 판두 형제의 셋째인 아르주나의 전차몰이꾼으로 등장한다. '거룩한 분의 노래'라는 뜻의 《바가바드 기타》는 아르주나의 전차몰이꾼이 된 크리슈나가 이제 막 동족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아르주나를 격려하고 가르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크리슈나는 비슈누 신의 화신이다. 비슈누는 해체와 파괴의 힘으로부터 우주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신이다. 크리슈나는 야다바스 왕가의 왕자로 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래서 그는 내면의 영적인 힘과 지상의 왕권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존재다. 보통 사람들은 그를 신분이 귀한 왕자로만 알았다. 하지만 현자들은 크리슈나가 악을 파괴하고 선을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가바드 기타》의 전쟁은 크리슈나의 전쟁이 아니라 아르주나의 전쟁이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전차를 몰면서 적절히 가르치고 충고하는 역할만 한다. 그는 아르주나가 전쟁을 치루고 있는 동안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다. 또 아르주나가 승리하길 간절히 바라지만, 전투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전차몰이꾼은 전사(戰士)보다 지위도 낮고 영예도 덜하지만, 크리슈나는 아르주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그 역할을 떠맡는다. 크리슈나가 맡은 역할인 전차몰이

꾼은 전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아르주나에게 시기적절한 격려와 충고를 하기에는 그만인 자리였다.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아르주나와 그의 형제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낯모르는 외국인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이었다. 사촌 형제, 자기들을 길러준 큰 아버지, 어릴 때 자기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준 스승과 친척 어른들이 싸워야 할 상대였다. 아르주나는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큰 형 유디스티라가 쿠루 왕가의 적법한 후계자이며, 그를 위해 왕권을 되찾기를 바랐다. 그러나 친척 사이의 전쟁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그 결과를 내다보며 번민한다. 그래서 그는 격전이 시작되기 직전, 그날 아침에 크리슈나에게 고뇌에 찬 질문을 던진다. "크리슈나여! 도대체 삶이 무엇이기에 이런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바가바드 기타》는 이 질문에 대한 크리슈나의 대답이다.

1장에는 우리에게는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수많은 전사(戰士)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인도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아주 친숙한 존재들이다.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는 역사 설화에 늘 등장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아르주나와 그의 형제들(유디스티라, 비마, 아르주나, 사하데바, 나쿨라)을 '판다바스'라고 한다. '판다바스'란 '판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다. 반대편에는 '쿠루의 아들들'이라는 뜻의 '카우라바스'가 있다. 원래는 '판다바스'도 쿠루 왕가의 일원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큰 세력인 '카우라바스'에 대적해서 싸우는 소수파 입장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 '판다바스'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1장에 나오는 많은 전사들 중에서 《마하바라타》 설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 드로나와 비슈마가 그들이다. 드로나는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상위인 사제계급(브라만) 출신이었지만 전사가 되는 길을 택했고, 무기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왕실에서 어린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다. 판두의 아들들과 드리타라슈트라의 아들들도 모두 그에게 배웠다. 양편 모두가 한 스승에게서 전쟁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기구한 운명이다. 아르주나는 활쏘기에 있어서 만큼은 드로나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 드로나의 아들 아슈밧타마도 활쏘기 명수였지만 아르주나에는 못 미쳤다.

비슈마는 판다바스와 카우라바스 모두의 할아버지다. 하지만 왕자들의 실제 할아버지가 아니라 왕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자 원로 정치인이었다. 왕의 약점과 잘못된 결정을 막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오랜 세월 드리타라슈트라 왕의 자문 역할을 한 인물이다.

1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산자야는 《바가바드 기타》 전체 이야기를 드리타라슈트라 왕에게 전하는 드리타라슈트라의 신하이다. 그는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일종의 초능력으로 전쟁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진행 상황을 낱낱이 고한다.

1장은 양편 군대의 배치 상황과 전투 준비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가 마치 돌풍이 휘몰아치기 직전의 전쟁터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하지만 2장부터 크리슈나의 가르침이 시작되면 전쟁터는 뒷전으로 밀리고 철학적이고 영적인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1장은 《바가바드 기타》의 중심 주제로 들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1장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

《바가바드 기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전쟁은 내면의 전쟁이다. 이것을 실제 전쟁으로 보고, 《바가바드 기타》의 사상이 전쟁을 묵인하고 있다느니, 무사계급(크샤트리아)은 지도자가 악할지라도 그를 위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라느니, 전쟁도 신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내생에서 행복하게 된다느니 하는 등의 설명은 《바가바드 기타》의 주제를 보지 못한 것이다.

《바가바드 기타》의 전쟁은 선과 악이 싸우는 우리 내면의 영적인 전쟁이다.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가르치는 것은 외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온전함이다. 아르주나가 싸워야 할 상대는 육체적인 친족과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이다. 세속에 끌려 다니는 저급한 자아와 자신의 영적인 약점이 싸워 이겨야 할 적이다. 우리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에 이들은 남이 아니라 친족인 것이다. 예수도 말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

는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그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마태복음 10:34~36)

상키야의 철학과 카르마 요가의 훈련

제 2 장 | 상키야의 철학과 카르마 요가의 훈련

산자야 :

1. 크리슈나는 이렇듯 연민에 사로잡혀
눈물 젖은 눈으로 고민하며 낙담하고 있는
아르주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슈나 :

2~3. 아르주나여,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찌 그리 나약하게 낙담을 한단 말이오.
이는 그대와 같이 고귀한 사람[1]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계속 그러면 진정한 자유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2]
수치스러운 이름만 남게 될 것이오.
아르주나여, 나약함에서 빠져나오시오.
이것은 그대에게 어울리지 않소.
용감하게 일어나서 적을 무찌르시오!

아르주나 :

4~6. 크리슈나여,
제가 어떻게 공경 받아 마땅한
비슈마와 드로나 두 어른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훌륭한 어른들을 죽이느니 차라리
평생을 거렁뱅이처럼 빌어먹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스승입니다.

1 고귀한 사람 : 문자적으로는 '아리안'. 아리안은 유럽에서 건너온 최초의 인도 사람들인데 용맹, 고상, 강직, 겸양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2 진정한 자유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 문자적으로는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제가 제 욕심만 차려 그분들을 죽인다면,
제가 누릴 즐거움은 온통 피로 물든 즐거움 뿐일 것입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저들을 이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저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나은지 조차도 모릅니다.
사촌 형제인 드리타라슈트라의 아들들이
지금 우리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죽인다면
우리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7~8. 정말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당신을 스승으로 모실테니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피를 말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하여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을 손에 쥐거나
부유한 왕국을 얻는 것도,
심지어는 신들을 다스리는 힘을 얻는다 해도
다 쓸데없는 짓[3] 같습니다.

산자야 :
9~10. 위대한 전사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에
"크리슈나여,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슈나는 양 진영 한 가운데서
그와 같이 낙담하고 있는 아르주나를 보고

3 쓸데없는 짓 : 자신이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이 세상의 성공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절실한 느낌이 구도자의 첫 걸음이리라.

도리어 빙긋이 웃으면서[4]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크리슈나 :

11~13. 그대의 말은 그럴 듯하다.[5]

하지만 그대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산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대와 나와 여기 모여 있는 왕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한 영혼[6]이 소년의 몸과 젊은이의 몸과 늙은이의 몸을 거쳐 가듯이

죽은 다음에는 죽은 다음의 몸을 입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변화에 미혹되지 않는다.

14~15. 사람은 감각기관[7]과 감각대상의 접촉에 의해

차가움과 뜨거움,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흘러가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들이니 참고 견디라.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4 도리어 빙긋이 웃으면서 : '됐다, 이 정도면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웃은 것이리라. 자기 힘을 의지하고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이 땅의 중력을 이길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영적인 자유의 길을 전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꼴이다.

5 그대의 말은 그럴 듯하다 : 문자적으로는 '그대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이다. 사실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친척을 죽이고 자신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아르주나의 말이 지혜로운 말일 수도 있다. 카슈미르 판본에는 "그대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6 한 영혼 : 문자적으로는 '몸을 입은 자'. 참 자아 아트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7 감각기관 : 눈(眼) · 귀(耳) · 코(鼻) · 혀(舌) · 피부(身) 곧 오관(五官). 문자적으로 '물질적(육체적)인 감각'이라는 원문을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의 접촉"이라고 풀어 옮겼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황소처럼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16~18.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생겨날 수 없고,
존재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온 우주에 충만하게 깃들어 있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실재를 깨닫도록 하라.
이 영원한 실재는 어떤 힘으로도 없애버릴 수가 없다.
육체는 사라져 없어지지만 육체 속에 거하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실재[8]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아르주나여, 아무 염려 말고 나가서 싸워라.

19~21. 몸을 입은 자[9]를 죽이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는 죽임을 당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다 무지한 사람이다.
몸을 입은 자는
죽이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몸을 입은 자는 태어난 적이 없으며, 죽지도 않는다.
몸을 입은 자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태곳적부터 존재한 영원한 몸을 입은 자는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
몸을 입은 자 곧 진짜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8 이 실재 : 문자적으로는 '몸을 입은 자'. 참 자아 아트만 또는 브라만을 일컫는 표현이다.
9 몸을 입은 자 : 문자적으로는 '이것'인데, 앞 절에서 언급한 실재 또는 참 자아 아트만을 가리킨다.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22.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몸을 입은 자는 입고 있는 몸이 낡으면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으로 갈아입는다.

23~25. 몸을 입은 자는 칼로 벨 수 없고,
불에도 타지 않으며, 물에도 젖지 않고,
바람으로 말릴 수도 없다.
몸을 입은 자는 벨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으며,
젖게 하거나 마르게 할 수도 없다.
몸을 입은 자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토대이다.
몸을 입은 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인간의 모든 생각 너머에 있어서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몸을 입은 자는 변화를 경험하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26~28. 아르주나여, 비록 그대가
사람이 태어남과 죽음에 종속된 존재라고 믿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살아 있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나고 죽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일진대
어찌 죽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라.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하여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나타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간다.
여기에 뭐 슬퍼할 것이 있는가?

29~30. 몸을 입은 자의 경이로움을 보는 사람은 드물다.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도 드물다.
또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이 드물며,
들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아르주나여,
모든 존재의 육체 속에 거하는 몸을 입은 자는 영원하다.
결코 죽일 수 없다.
그러니 무엇이 죽거나 사라지더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

31~33. 전사(戰士)로서의 그대의 다르마[10]를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전사에게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아르주나여,
정의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게 된 전사는 기뻐해야 한다.
정의를 위한 전쟁에서 자신의 다르마를 다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11]가 온 것이기 때문이다.

10 전사로서의 그대의 다르마 :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는 크샤트리아(전사, 왕족)로서의 의무. "사람에게는 타고난 기운에 따라 각기 다른 사회적 의무가 주어진다. 브라만에게는 사제로서의 의무가, 크샤트리아에게는 통치자와 전사로서의 의무가, 바이샤에게는 일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그리고 수드라에게는 봉사자로서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18장 41절)

11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 : '완성에 이를 수 있는 기회'로 번역할 수도 있다. "누구나 자신의 기질에 따

그대가 정의를 위한 이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르마를 저버리는 일이며,
그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34~36. 그러면 사람들은
그대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두고두고 이야기할 것이다.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명예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용감한 전사들은 그대가 겁이 나서
전사의 기쁨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대를 존경하던 자들도 그대를 경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적들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그대를 조롱할 것이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37~38. 그대가 전쟁에서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이를 것이요,
승리한다면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싸우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하고 일어서라.
고통과 즐거움, 얻음과 잃음,
승리와 패배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 위대한 전투에 뛰어 들어라.

라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함으로써 완성에 이를 수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온 우주에 충만하게 깃들어 있는 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다."(18장 45~46절)

그러면 그대는 악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39~40. 아르주나여,
나는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
제대로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설명[12]을 했다.
이제는 그 앎을 실천하는 것[13]에 대해 말해 주겠다.
이 실천을 통해 그대는 행위의 굴레[14]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 실천의 길 곧 요가 수행의 길에서는
어떤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고,
점점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
아주 작은 노력일지라도
그대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41. 아르주나여,
이 길을 가는 사람[15]은 참 자아를 깨닫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전진한다.
하지만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곳저곳 끝없이 헤맨다.

42~44. 아르주나여,
무지한 사람들은
경전[16]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최고로 여기고,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그것을 떠벌인다.

12 제대로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설명 : '상키야'의 번역이다. 상키야는 인도 철학의 여섯 갈래 가운데 가장 오래된 철학이다. 상키야는 '이성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로 알려져 있다.
13 앎을 실천하는 것 : '요가'의 번역이다.
14 행위의 굴레 : 문자적으로는 '카르마의 굴레'. 카르마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자 동시에 하나의 행위의 결과가 다음 행위의 원인이 되는 끝없이 이어지는 굴레를 뜻한다.
15 이 길을 가는 사람 : 실천의 길을 가는 사람. 곧 요가 수행자.
16 경전 : '베다'의 번역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천상의 복락이란
자신들 욕망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쾌락과 초능력을 얻기 위해
갖가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한다.
하지만 그들은 욕망에 따른 행위로 인해
끊임없이 나고 죽는 윤회의 바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감각의 쾌락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으며,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인 사마디[17]에 도달하지도 못한다.

45. 베다 경전들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움직이고 있는
세 가지 '구나'[18]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르주나여,
그러나 그대는 이 세 가지 '구나'의 활동을 초월해야 한다.
마음을 제어하여 모든 이원성을 넘어서서,
영원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나
얻은 것을 쌓아 놓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그대 자신 안에 머물러야 한다.[19]

17 사마디 : 주체와 대상의 구별이 사라진 상태에서 브라만을 체험하는 경지. 삼매(三昧)는 사마디의 한자어 음역이다.

18 세 가지 '구나' : 사트바구나, 라자스구나, 타마스구나를 말한다. '구나'는 '기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본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사트바 구나는 맑고 가벼운 기운, 라자스 구나는 활동적인 기운, 타마스 구나는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다.

19 진정한 그대 자신 안에 머물러야 한다 : '아트마반'의 번역이다. 아트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트만으로 충만한 상태에 머물라는 뜻이다.

46. 온 천지가 물로 가득 차 있다면
작은 물병은 쓸 데가 없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어
온 천지가 신성(神性)으로 충만함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경전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47~48. 그대의 다르마는
그대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는 그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행위 해서는 안 된다.[20]
또한 행위를 피해서도 안 된다.
아르주나여,
흔들리지 않는 합일 상태[21]에 머물면서,
성공과 실패를 평등하게 여기며,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대의 다르마를 수행하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절대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곧 요가다.

49~50.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는 것[22]에 비하면
행위는 아주 열등한 것이다.

20 행위를 피해서도 안 된다 : 문자적으로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21 흔들리지 않는 합일 상태 : 문자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요가'.
22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는 것 : '붓디 요가(buddhi-yoga)'의 번역이다. 붓디 요가는 붓디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요가인데, 붓디는 감각기관, 감각대상, 세 가지 구나의 활동, 그리고 '나'라고 하는 에고의식 너머의 '직관적인 식별력'을 일컫는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지혜를 피난처로 삼아라.
행위의 결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바라는 결과에 대한
목마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아서,
이원성을 넘어 마음의 평정을 획득한 사람은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좋게 되든지 나쁘게 되든지 결과를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가 수행에 헌신하라.
요가는 진정한 행위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51.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은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는 윤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윤회의 사슬을 끊고
고통이 없는 곳에 이른다.

52~53. 그대의 마음이 이미 이원성의 혼돈을 극복했다면,
지금까지 (경전에서) 들은 것과
지금 듣고 있는 모든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전의 현란한 말과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깊은 사마디에 안주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요가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아르주나 :
54. 오 크리슈나여,
사마디에 안주하여

참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앉으며, 어떻게 걷습니까?

크리슈나 :
55. 아르주나여,
마음에서 모든 욕망을 씻어내고
진정한 자기 자신[23]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

56~57. 그들은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탐욕과 두려움과 분노에서 벗어났으며,
생각의 흐름이 출렁거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것에도 애착을 갖지 않고,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확고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58~61. 거북이가
껍질 속으로 머리와 발을 끌어들이듯이
감각의 대상으로 향하던 감각을
완전히 거두어들일 때 확고한 깨달음에 이른다.
감각을 대상에서 거두어들여도[24]

23 진정한 자기 자신 : '아트만'의 번역이다.
24 감각을 대상에서 거두어들여도 : 문자적으로는 '감각의 단식을 해도'.

그에 대한 미약한 갈망이 한동안 남아 있다.
하지만 지고한 참 자아를 깨닫는 순간
감각의 쾌락에 대한 모든 갈망이 사라져 버린다.
아르주나여, 감각의 힘은 아주 강하다.
깨달음을 위해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조차도
감각의 힘에 휩쓸려 버릴 수 있다.
감각을 제어하며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
마음을 나에게 집중하고 앉아 있는 사람[25]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는다.

62~65. 감각의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집착이 생긴다.
집착은 욕망[26]을 낳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며,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그러면 과거의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
그리하여 결국은 삶이 황폐해 진다.
그러나 감각의 세계 속에 살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좋고 싫음을 초월한다면
모든 슬픔이 사라진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고요한 평화에 이른 사람은

25 마음을 나에게 집중하고 앉아 있는 사람 : 크리슈나를 마음을 집중하는 대상으로 삼고 명상하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를 아트만으로 보고 '아트만에 집중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예수의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6 욕망 : '카마(kama)'의 번역이다. 애욕, 갈망, 탐욕 등의 뜻으로도 쓰인다.

흔들리지 않는 지혜에 안주하리라.[27]

66~67. 감각기관을 제어하지 못하면 지혜에 이르지 못하며,
집중하여 명상하지도 못한다.
집중하여 명상하지 못하면 평안을 얻을 수 없고,
평안이 없다면 어찌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대의 마음이
감각의 요구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 다닌다면,
거센 바람이 작은 배를 집어 삼키듯이
그대의 초월적인 지성과 판단력[28]이
감각 속에 매몰되어 버리고 만다.

68~69.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강한 힘을 발휘하여
감각기관의 좋고 싫어함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진정한 그대 자신에 대한 충만한 깨달음 안에 거하도록 하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참 자아의 빛을 본다.
세상 사람들이 밝은 지혜라고 하는 것들[29]이
그에게는 무지의 어둠에 지나지 않는다.

27 흔들리지 않는 지혜에 안주하리라 : 여기서 '지혜'는 '붓디'의 번역이다. 고요한 평화에 이르면 초월적인 직관적 통찰력이 늘 맑게 깨어 있어서 한 순간도 망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28 초월적인 지성과 판단력 : '프라즈나(prajna)'의 번역이다. 프라즈나의 문자적인 뜻은 '의식〔consciousness〕'인데, 대상이 없는 주체적인 의식 곧 꿈도 없는 깊은 수면 상태의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프라즈나는 아트만의 본성에 속한다.

29 밝은 지혜라고 하는 것들 : 감각정보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

70.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고 고요하다.
감각기관의 욕망을 내면의 바다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처럼 고요한 평화를 누린다.
하지만 욕망의 대상을 좇아 다니는 사람은
결코 평화의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

71~72. 모든 욕망을 버리고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
'나'와 '나의 것'
또는 '내가 한다'는 에고 중심주의를 넘어선 사람[30]은
참된 평안에 이른다.
아르주나여, 이것이 지고한 경지[31]다.
여기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다.
그대는 이 자리에 도달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죽음을 넘어 영원[32]으로 들어가도록 하라.

30 나'와 '나의 것' 또는 '내가 한다'는 에고 중심주의를 넘어선 사람 : 문자적으로 '니르하함카라(nir-ahamkara)', 곧 아함카라가 소멸된 사람.

31 지고한 경지 : 문자적으로는 '브라만 상태'.

32 영원 : '브라만-니어바나(brahman-nirvana)'의 번역이다. '니어바나'는 '열반(涅槃)'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촛불을 끄듯이 '불어서 끄다(또는 꺼지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브라만-니어바나'는 '(촛불이 사라지듯이) 브라만 안으로 꺼져서 들어감'으로 옮길 수 있다.

[해설]

제 2 장 | 상키야 철학의 이론과 카르마 요가의 훈련

이제부터 스리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의 영적인 스승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그는 번민에 휩싸인 아르주나를 격려하면서 영원한 자유의 길로 이끈다.

아르주나는 기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용감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관한 기술에도 뛰어난 인물이다. 그는 친족 사이의 전쟁이 임박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비로소 활동적인 삶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류의 영원한 질문에 맞닥뜨렸다.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가? 죽은 다음에도 그 영혼은 생존하는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근원적인 실재가 존재하는가? 만약 그런 근원적인 실재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직접 인식한다면 그것이 일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르주나는 이런 문제에 부딪쳤다.

2장에 실려 있는 아르주나의 이런 질문에 대한 크리슈나의 대답 속에는 《바가바드 기타》 전체의 주제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2장은 《바가바드 기타》 전체의 내용을 간추린 개요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크리슈나는 참 자아 아트만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영원한 것임을 일깨우는 것으로 가르침을 시작한다. 단계적으로 영적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 자아 아트만은 영원하다는 궁극적인 전제부터 선포하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참 자아 아트만은 영원하다. 아르주나는 아직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크리슈나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갈 의도는 가지고 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르주나는 이런 문제에 부딪쳤다.

2장에 실려 있는 아르주나의 이런 질문에 대한 크리슈나의 대답 속에는 《바가바드

아르주나는 영적인 스승에게 하듯이 크리슈나에게 질문을 한다. 그 질문은 아르주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늘 웅크리고 있던 것이다. 구도자는 경험이 많고 깨달은 스승에게 입문하여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은 오래된 힌두 전통이다. 이 점에 있어서

는 아르주나도 예외가 아니며, 그는 크리슈나를 스승으로 모시는 행운을 얻은 셈이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보면 크리슈나가 아트만 곧 아르주나의 근원적인 자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윤회와 환생에 대한 가르침이 소개되고 있다. 육체는 참 자아가 입고 있는 옷이며, 그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영혼은 이렇게 이생에서 다음 생으로 계속 여행을 한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이고, 태어남이란 죽기 위한 과정이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진정한 본성은 시간과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확언한다. 하지만 즐거움과 괴로움, 성공과 실패, 추위와 더위 등과 같은 현상 세계의 이원성을 초월하지 못하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못 박는다.
크리슈나가 가르치는 것은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생에서 행복을 얻는 방법이나 이생에서의 초능력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다 집착이다. 크리슈나는 일체의 모든 집착을 끊고 본래 상태의 자유, 영원히 죽지 않는 자신의 참 자아 아트만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르친다. 경전에 대한 지식이 깨달음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직 수행을 통해 직접 체험함으로써만 깨달을 있다고 강조한다.
크리슈나는 이 장에서 앞으로 자세히 가르치게 될 세 종류의 요가에 대해 대체적인 설명을 한다. 카르마 요가(행위의 길), 박티 요가(헌신의 길), 갸나 요가(지혜의 길) 등이 언급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려운 자세를 취하는 하타 요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이 없다. 요가는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훈련이다.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의 정의에 따르면 "요가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괴로움과 즐거움, 성공과 실패 등 이원적인 분별에서 비롯되는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이 항상 여여(如如)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요가다. 그러므로 요가는 '행위'다. 왜냐하면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이 여여한 상태에 머물려면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만 되는데, 훈련은 곧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변하는 상황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요동친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요가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자세나 명상법은 모두 이 목적

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현재의 삶을 버리고 다른 형태의 삶을 찾으라고 권하지 않는다. 세상을 버리고 은둔 수도자가 되라고 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요가를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화로움으로 충만한 상태를 성취할 것을 요구한다.

아르주나가 이제 제자로서 첫 번째 질문을 한다. 그의 스승은 이미 영원불멸하는 참 자아를 체험을 통해 직접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르주나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자각하고, 그 자각이 늘 지속된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고 싶었다. 아르주나의 관심은 그런 자각이 계속되면 일상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에 쏠려 있었다.

아르주나의 이런 질문에 대한 크리슈나의 대답(55~72절)은 기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다. 간디는 《바가바드 기타》의 핵심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말한다. "기타의 나머지 구절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이 구절만 있으면 온전한 삶의 길을 가르치기에 충분하다. 지혜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는 죽어 사라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불멸하는 아트만이라는 깨달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아트만이라는 것을 안다. 아트만은 모든 것 안에 현존하는 보편적인 실재이기 때문이다."

크리슈나의 대답은 이렇다. 자신의 참 자아 아트만을 깨닫고 그 자각이 지속되는 사람은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다. 욕망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참 자아 아트만이 그 사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참 자아 아트만에 안주하는 사람은 감각적인 쾌락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감각의 쾌락을 좇으면 감각의 세계에 얽혀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감각을 좇다보면 좋음과 싫음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좋다 싫다는 것이 결국은 에고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좇다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인 아트만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 그러므로 감각의 쾌락을 좇지 말라는 것은 엄격한 청교도적인 규율이 아니라 정말 당연한 가르침이다. 참 자아 아트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각에 끌려 다니지만 깨달은 사람은 감각을 통제한다. 순간적인 쾌락

을 좇는 것이 길게 보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감각의 쾌락에 맛이 들리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약해지고, 결국 감각의 노예가 되고 만다. 크리슈나는 이렇게 마음이 주체성을 잃고 감각의 노예로 전락하면 마지막에는 영적인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감각의 대상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욕망을 낳으며,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난다.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과거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은 삶이 황폐해 진다. (62~63절) 그러나 크리슈나는 감각의 쾌락을 좇지 말라고 하면서도 고행이나 금욕을 권하지는 않는다. 그는 육체와 마음과 감각을 훈련하여 자신을 통제하는 것과 금욕이나 고행은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크리슈나는 다음 장에서 욕망을 정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소유와 에고 중심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 마지막 경계선을 넘을 때 자기 내면에 있는 영원한 참 자아를 알게 될 것이며,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모든 구도자의 목표이리라.

카르마 요가 – 행위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

제 3 장 | 카르마 요가–행위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

아르주나 :

1~2. 크리슈나여, 당신 말씀처럼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 초월적인 지혜가 행위보다 중요하다면
어째서 저에게
이런 끔찍한 전쟁[1]을 치루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높은 선(善)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한 가지로 결정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크리슈나 :

3. 내가 예부터 가르쳤듯이[2]
영혼의 순수함에 이르는[3] 길은 둘이 있다.
초월적인 지혜를 추구하는[4] 갸나 요가[5]의 길과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행위 하는 법을 익히는
카르마 요가[6]의 길이 그것이다.

1 끔찍한 전쟁 : 문자적으로는 '끔찍한 행위'.

2 내가 예부터 가르쳤듯이 : 지금 아르주나와 대화하고 있는 크리슈나는 비슈누의 8번째 인카네이션으로 알려져 있다.

3 영혼의 순수함에 이르는 : 역자가 보충한 구절이다. 본문에는 "길은 둘이 있다"로만 되어 있다. '브라만과의 합일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4 초월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 문자적으로는 '상키야의 가르침을 따르는'.

5 갸나 요가 : 지적인 분석과 식별력을 사용하여 흔들림 없는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요가. '지혜의 길' 또는 '앎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6 카르마 요가 : 행위를 통해서 궁극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요가.

4~5. 단순히 행위를 포기한다고 해서
자유[7]를 얻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포기함으로써 완전함에 이르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다.
단 한 순간이라도,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순간에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의 본성 곧 타고난 기운[8]에 따라
끊임없이 행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6~7. 마음은 끊임없이 감각의 대상을 좇아 다니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억제된 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이다.
하지만 마음으로 감각기관을 통제하면서,
감각기관의 활동을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행위에 쓰는 사람[9]은
진실로 뛰어난 사람이다.

8~9.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그대의 다르마를 수행하도록 하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는

7 자유 : '나이슈카르마'의 번역이다. '행위로 부터의 자유' 또는 '행위에 구속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행위를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8 자신의 본성 곧 타고난 기운 : '프라크리티 구나'의 번역이다. 현상 세계 만물의 속성을 결정하는 기운 또는 본성을 일컫는다.

9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행위에 쓰는 사람 : 문자적으로는 '카르마 요가에 쓰는 사람'.

그대의 육신조차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신께 제물을 바치듯이
그것 자체가 목적인 행위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욕망의 굴레에 얽매여 있다.
그대는 모든 행위를 신께 제물을 바치듯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행하도록 하라.

10. 사람과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행하는 행위인 제사는
함께 창조되었다.
창조주 프라자파티는 사람과 제사를 함께 만들면서
"너는 너의 모든 행위를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행하는 제사가 되게 함으로써
번성하고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11~12. 모든 존재를 신으로 보고[10]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 신들도 그대를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이며,
상호 간의 이런 섬김과 사랑을 통해
그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신들은 그대의 순수한 사랑과 섬김을 기뻐하며
그대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신께 제물은 바치지 않고
신이 주는 선물만을 받아 즐기려는 사람은 도둑이다.

10 모든 존재를 신으로 보고 : 본문은 "이것을 통해서 그대는 신들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인데, 여기서 '이것'은 앞 절에 언급된 "이기적인 욕망 없이 행하는 제사"이고, 모든 행위를 신께 제물을 바치듯이 하라는 말과 연관해서 "모든 존재를 신으로 보고"라고 옮겼다.

13~14. 자기가 먹는 음식도
신께 제물을 바치는 심정으로 먹는 사람[11]은
죄악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자신의 혀와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사람은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먹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한다.
그런데 음식이 되는 곡식은 비를 먹고 자라며,
비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린다.
비가 내리고 곡식이 영그는 것 자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 제사인 셈이다.

15. 아르주나여,
제물을 바치듯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영원하고 무한한 브라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브라만은 온 우주에 편만하게 깃들어 있으며
모든 행위 속에 현존하고 있다.

16. 서로가 서로의 제물이 됨으로써
생명의 바퀴가 돌아가는 법칙을 어기고,
다른 존재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좇는 사람의 삶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서 늘 공허하다.

11 신께 제물을 바치는 심정으로 먹는 사람 : 문자적으로는 '제사에서 남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자기가 제물을 바치는 자임과 동시에 받는 자임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행위이다.

17~18.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12]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무엇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행위를 하면서도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도
그저 행위를 하지 않을 뿐,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19~20. 그러므로 언제나 결과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대가 마땅히 할 바를 하라.
그대는 집착 없는 행위를 통해서
지고한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제물을 바치듯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하라.
세상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유지된다.
지혜로운 임금이었던 자나카 왕[13]은
이런 행위를 통해 완전에 이르렀으며,
다른 성자(聖者)들도 이 길을 따름으로써 완전함에 이르렀다.

12 진정한 자기 자신 : '아트만'의 번역이다.

13 자나카 왕 : 마틸라 왕국의 왕. "마틸라가 다 탄다고 해도 내 것이 탈 것은 없다"는 그의 말은 그가 자신의 통치 행위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크샤트리아 계급의 왕으로서 '카르마 요가'를 통해 완전에 이르렀음을 크샤트리아인 아르주나에게 강조하는 대목이다. 역시 크샤트리아였던 붓다도 자나카 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 진다.

21~24. 훌륭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쓴다.
그가 보인 모범을 온 세상이 따르는 것이다.
아르주나여,
나는 이 세상에서[14]
꼭 해야 할 일도 없고 꼭 얻어야 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행동을 멈춘다면
사람들은 즉시 나를 본받아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하기를 멈추면
세상이 유지되지 않고 혼란에 빠질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과 사람이 모두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25~26. 아르주나여,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여 행위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여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 한다.
무지한 사람에게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지 말라고 꾸짖으면
그들의 마음은 혼란해 진다.
그렇게 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익에 집착하여 행위 하는 사람들을
그냥 자신들의 행위를 즐기도록 내버려 두고,

14 이 세상에서 : 문자적으로는 '삼계(三界)에서'. 삼계는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를 말한다.

자신은 굳건한 요가 정신으로 행위 한다.

27~28. 모든 행위는
타고난 본성적인 기운[15]의 흐름에 의해 저절로 일어난다.
그러나 에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내가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성적인 기운과 그 기운의 흐름에 따라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위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기운의 상호 작용에 의해[16]
저절로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행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9~30. 모든 행위가
세 가지 기운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행위의 결과에 집착한다.
행위가 구나의 활동으로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무지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대는 참 자아의식에 굳건히 머물면서,
모든 행위가 '나'[17]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15 타고난 본성적인 기운 : '구나'의 번역이다.

16 세 가지 서로 다른 기운의 상호 작용에 의해 : 문자적으로는 '세 가지 구나 가운데서 세 가지 구나가 활동한다'. 타고난 본인의 기운과 이미 특정한 기운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행위가 일어난다는 뜻으로 보인다.

17 '나' : 문자적으로는 지고한 존재로서의 '크리슈나' 본인을 일컫는 듯하다. 하지만 글의 흐름으로 보면 '나'를 아트만으로 보고 "모든 행위가 아트만에서 비롯된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트만이 구나의 활동을 통해서 현상 세계를 펼치고 변화무쌍한 그 세계를 스스로 경험하지만 자신은 그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행위 하도록 하라.
자, 나가서 싸워라!
그대의 욕망을 버리고 싸워라.

31~32. 내가 가르치는 이 법칙을
진리라고 확신하고 불평 없이 따르는 사람은
하나의 행위가 다음 행위의 원인이 되는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이며,
그들은 스스로 고통을 불러들이는 가련한 자들이다.

33~34.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본성[18]에 따라 행동한다.
본성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감각기관은 어떤 대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하지만 좋고 싫은 느낌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
좋고 싫은 느낌에 종속되면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지 못한다.[19]

35.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다르마를 수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다르마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보다 낫다.
자신의 다르마를 수행하다 죽는 편이 훨씬 더 낫다.

18 본성 : '프라크리티'의 번역이다. 영적인 원리인 푸루샤가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을 일컫는다.
19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지 못한다 : 문자적으로는 '그 둘은 진실로 그대의 대적이다'.

자신의 다르마를 팽개치고
남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흉내 내는 사람은
위험한 지경에 빠지고 만다.

아르주나 :
36. 크리슈나여,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다르마를 게을리 하면서
남의 일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체 어떤 힘이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까?

크리슈나 :
37. 본성의 세 기운 중에서
활동적인 기운인 라자스 구나에서 비롯되는
욕망과 분노의 에너지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
그대는 이 욕망과 분노가 악이며,
이것이 그대에게 대단히 위험한 적임을 알아야 한다.

38~39. 아르주나여,
연기가 불을 가리고 먼지가 거울을 덮듯이,
또 뱃속의 아이가 막으로 덮여 있듯이
참된 지혜가 이기적인 욕망에 가려져 있다.[20]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 욕망의 불길이

20 참된 지혜가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려져 있다 : 문자적으로는 '이것이 저것으로 가려져 있다'.

예부터 지혜로운 자들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느니라.
욕망은 현자의 지혜까지도 어둡게 만든다.

40~41. 욕망은
감각기관과 마음과 초월적인 지성을 지배하여
'몸을 입은 자' 곧 참 자아의 빛을 가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망상에 빠진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그대는 먼저 감각기관을 제어하여[21]
지혜와 분별력을 어둡게 하여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대의 적을 쳐부수라.
힘을 다해 싸워라.

42~43. 물질적인 육체보다 감각기관이 우월하며,
감각기관보다 마음이 더 우월하다.
그리고 마음[22]보다 초월적인 지성이 더 우월하며,
지성 위에는 참 자아 아트만이 있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지성[23] 너머에 있는
아트만으로 존재하면서
아트만이 그대의 에고를 정복하게 하라.
억센 팔을 휘둘러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무서운 적을
가차 없이 쳐부수라.

21 먼저 감각기관을 제어하여 : 아르주나가 진정으로 대적하여 싸워야 할 적은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다.
22 마음 : 현상 차원에서 작용하는 마음을 뜻하는 '마나스'의 번역이다.
23 초월적인 지성 : '붓디'의 번역이다.

[해설]

제 3 장 | 카르마 요가–행위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

이 장의 산스크리트어 제목은 〈카르마 요가(행위의 길)〉이다. 크리슈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또는 참 자아 아트만이) 불멸의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아르주나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한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전투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가 더 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아르주나는 외적인 행동을 포기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크리슈나는 이기적인 집착 없이 행동하는 '행위의 길'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라고 말한다. 크리슈나는 설명한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행위를 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피할 길은 없다. 그러므로 기꺼이 행위를 하라. 행위를 하되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이 온 세상 만물이 가고 있는 길이다. 모든 존재가 이렇게 자기의 일을 함으로써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행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길밖에 없다.

이 장에는 힌두교와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카르마'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카르마'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행위'이다. 흔히 말하는 '카르마의 법칙'이란 어떤 행위와 그 행위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한 법칙이다. 모든 존재가 이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행위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거에 행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나타날 현상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행위가 운명을 결정한다. 이것이 '카르마' 가르침의 기본적인 사상이다. 지금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과거에 지금 생긴 좋은 것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과거에 지금 일어난 나쁜 결과를 불러올 만한 좋지 못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카르마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도덕적인 가르침이다.
힌두교 전통에서는 카르마의 법칙이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영적인 스승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 가르침에 살을 붙였다. 그들의 한결같은 말은 모든 행위가 구속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행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끝없이 이어지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친다. 모든 카르마가 다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즐거운 결과가 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즐거운 카르마 역시 족쇄다. 그 행위에 따라 다음 결과가 오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 다음 행위가 이어지는, 그래서 행위의 사슬에 묶여 끝없이 주어지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3장에서 크리슈나는 원인과 결과의 미로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말한다. 행위를 피하는 것이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오히려 삶의 단계마다 찾아오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라. 의무를 수행하되 결과를 기대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담담하게 행위 하라. 그러면 행위의 여파가 생기지 않으며, 과거에 쌓은 카르마의 빚이 점점 가벼워진다. 지금 의무로 주어지는 것들은 모두 과거 행위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위를 결과에 대한 기대나 집착 없이 행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과거에 쌓은 원인들이 하나하나 소멸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행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마침내 모든 카르마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 가운데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지혜의 길(갸나 요가)'도 있다. 하지만 크리슈나는 지혜의 길과 행위의 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는다. 지혜의 길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만 하고 지나간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행위의 길을 갈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 이것은 크리슈나가 지혜의 길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아르주나에게는 지혜로 탐구하는 것보다는 행위를 통해서 가는 것이 더 잘 맞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르주나는 왕자이며 뛰어난 크샤트리아 전사(戰士)였다. 이것은 그의 타고난 기질이 지혜의 길보다는 행위의 길에 더 적합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행위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행위 하고자 하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아르주나는 자기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크리슈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 마음으로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일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가? 이에 대해 크리슈나는 분노와 이기적인 욕망이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대답한다. 분노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목표에서 벗어나 방황하게 되고 망상과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철학적인 논문이 아니다. 시(詩) 형식으로 표현한 대중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철학의 한 줄기인 상키야의 가르침을 자주 언급한다. 상키야에 따르면, 마음과 물질로 이루어진 현상 세계는 세 가지 구나(기운 또는 성질)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밝고 고요한 기운인 사트바 구나, 격정적이고 활동적인 기운인 라자스 구나, 어둡고 무거운 기운인 타마스 구나. 이 세 기운의 상호 결합과 작용에 의해 현상 세계가 전개된다. 영적인 진화는 타마스에서 라자스로, 또 라자스에서 사트바로 진행되며 마지막에는 이 세 기운을 초월하여 자유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것이 현상 세계와 초월에 대한 상키야의 입장인데, 크리슈나는 이 내용을 아르주나에게 전한다.

크리슈나는 행위를 하면서 라자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의를 준다. 행위의 길을 가는 구도자에게 가장 위험한 적인 분노와 이기적인 욕망이 라자스 기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스크린 위에 불이 나는 장면이 비쳐도 스크린은 불에 타지 않고, 홍수 장면이 비쳐도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구도자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인 참 자아 아트만은 구나들의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행위가 일어나도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나들의 힘에 휩쓸려, 번갈아 찾아오는 욕망의 폭풍과 무기력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제4장

갸나 요가 – 지혜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

제 4 장 | 갸나 요가−지혜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

크리슈나 :
1~2. 나는 이 불멸의 요가를
태양신 비바스바트에게 전해 주었다.
비바스바트는 자신의 아들인 마누[1]에게,
그리고 마누는 자기의 아들 이크샤바쿠에게
이 가르침을 전했다.
아르주나여,
뛰어난 현자들은 이처럼 대를 이어가면서
먼 옛날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요가의 가르침을 전수 받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불멸의 요가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3. 이 가르침은 매우 깊은 비밀이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친구이자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그대에게 설명해 주었다.

아르주나 :
4. 당신은 비바스바트보다 훨씬 뒤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에게 요가의 가르침을 전해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마누 : 태양신 비바스바트가 낳은 최초의 인간 아들. 비바스바트에게는 1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마누는 그 가운데 7번째 아들이다.

크리슈나 :

5. 아르주나여,
그대와 나는 수많은 생을 거쳐 왔다.
그대는 그대의 전생을 잊어버렸지만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6. 나의 진정한 존재는 태어남이 없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
나는 만물 속에 거하는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다.
하지만 나는 물질적인 속성을 제어하는 초월적인 창조력[2]으로
나 자신을 유한한 형태[3]로 드러낸다.

7~8. 나는 진리[4]가 쇠퇴하고 거짓이 세상을 덮으면
어느 때이고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선을 보호하고 악을 멸하기 위해,
그리하여 진리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
매 시대마다 다시 온다.

9~10. 내가 태어난 것이 신성의 현현이고
나의 행위가 신의 행위임을 아는 사람은
몸을 떠날 때 나에게 온다.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아르주나여,
모든 것의 근원이 '나'라는 진리를 깨우친

2 초월적인 창조력 : '마야'의 번역이다. '마야'의 문자적인 뜻은 '환영(幻影)' 또는 '나타남'이다.
3 유한한 형태로 : 지금 아르주나에게 나타난 크리슈나와 같은 모습으로.
4 진리 : '다르마'의 번역이다. 따라서 '진리가 쇠퇴하고'를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라고 옮길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집착과 두려움과 분노에서 벗어났으며,
그 깨달음의 불길로 정화되어
나의 존재 상태에 이르렀다.

11~12.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에게 귀의한다.
나는 그들이 어떤 길을 통해서 오든 다 받아들인다.
아르주나여,
실제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의 길을 따른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길 바라면서
저마다 자신이 선택한 신을 섬긴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나에게 오는 길이다.

13. 신분의 구별,[5]
세 가지 서로 다른 본성적인 에너지,
그리고 서로 다른 본성적인 에너지에 따라 일어나는
서로 다른 행위가
다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그것들의 창조자이다.
하지만 나는 영원히 하고자 함 없이 그렇게 한다.[6]

5 신분의 구별 : 문자적으로는 '네 카스트 제도'인데, 사람마다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 곧 다르마가 다른 것을 일컫는다.

6 나는 영원히 하고자 함 없이 그렇게 한다 : 문자적으로는 '나는 영원한 비행위자(non-doer)이다'. 노자의 무위(無爲) 철학을 크리슈나의 이런 가르침의 반향으로 볼 수도 있다.

14~15. 나는 어떤 행위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나는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행위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다.
이 진리를 깨달은 이들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대도
고대의 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대의 일을 계속 해 나가라.
행위에 종속됨 없이 그대의 의무를 수행하라.

16. 무엇이 '행위'이고 무엇이 '행위 하지 않음'인가?[7]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자들조차도 혼돈을 겪었다.
이제 내가 행위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이것을 알면 그대는 행위의 굴레에서[8] 벗어나게 되리라.

17.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또한 무엇이 잘못된 행위이며
무엇이 행위 하지 않음인지도 알아야만 한다.

18. 행위를 하면서도 인위적으로 함이 없이
무위(無爲)로 행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7 무엇이 '행위'이고 무엇이 '행위 하지 않음'인가? : '무엇이 행위(行爲)이고 무엇이 무위(無爲)인가?'로 옮길 수 있다.

8 행위의 굴레에서 : 문자적으로는 '죄악에서'. 행위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욕망으로 행위 하는 것은 모두 죄악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들은 의식이 요가로 제어된 상태에서[9]
모든 행위를 한다.

19~20. 현자들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이기적인 욕망[10]을
참 자아를 아는 지혜의 불에 완전히 태워버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른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 하는 사람은
결과에 따라 울고 웃지 않는다.
그는 어떤 결과가 와도 만족한다.

21.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소유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참 자아 상태에 머물면서
육체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못이 없다.

22~23. 그런 사람은
선과 악, 좋고 싫음의 이원적인 분별을 넘어선
순간순간의 만족과 자유를 누린다.
그들은 성공과 실패를 평등하게 보고,
행위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항상 만족한다.
따라서 그들은 행위를 하지만 행위에 구속되지 않는다.

9 의식이 요가로 제어된 상태에서 :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의식이 늘 각성된 상태에서 모든 행위를 한다는 뜻이다.

10 이기적인 욕망 : '카르마(행위)'의 번역인데, 욕망과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 행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의 마음은 이기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참 자아를 아는 지혜 속에 안주한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신께 드리는 제물로 여기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행위의 여파가 남지 않는다.[11]

24. 행위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 자체가
브라만의 행위이다.
바치는 제물인 행위도 브라만이다.
브라만이 브라만의 불길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의 깊은 차원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가 신의 행위임을 아는[12] 사람은
브라만 상태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5~27. 수행자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에고를 브라만의 불에 제물로 바친다.
또 어떤 사람은 감각의 즐거움을 포기함으로써
감각의 대상을 제물로 바친다.
또 어떤 수행자들은 감각기관을 억제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느낌을 신의 느낌으로 여기며
생명 에너지의 활동[13]을 신의 활동으로 여기는 수행을
제물로 바친다.
이들은 모두 지혜의 빛으로 밝은,
자기를 제어하는 요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11 행위의 여파가 남지 않는다 : 문자적으로 '(모두) 녹아 없어진다'. 무엇을 하든지 그냥 그것을 하는 것으로 끝날 뿐 그것이 다음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

12 의식의 깊은 차원에서……아는 : 문자적으로 '사마디(三昧) 상태에서 관조하는'.

13 생명 에너지의 활동 : '프라나'의 번역이다. 프라나는 숨 또는 생명의 기운이며, 숨을 조절하는 수행을 '프라나야마'라고 한다.

28~30. 재물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고행을 바치는 사람도 있다.
굳은 서원을 세우고 배움과 경전 연구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도 있고,
명상을 제물로[14] 바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면서
생명의 기운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생명의 기운을 통제하는 능력을 얻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억제하고
생명의 기운에서 생명의 기운을 취하는[15] 수행을 한다.
이들은 모두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바치는 제사를 통해
모든 더러움을 씻고 맑게 정화된다.

31.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결과로 영혼의 양식을 얻고[16]
영원한 브라만의 경지에 도달한다.
아르주나여,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17]

14 명상을 제물로 : '요가 야즈나'의 번역이다. 문자적인 뜻은 '요가 제사'이다.

15 생명의 기운에서 생명의 기운을 취하는 : 문자적으로는 '프라나를 프라나에게 바치는'이다.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충만한 생명의 기운인 프라나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를 취하는 수행을 가리킨다.

16 영혼의 양식을 얻고 : 문자적으로는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성스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브라만에게 간다)'.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음식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는다. 따라서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곧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일컫는다.

17 이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 문자적으로는 '이 세상조차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늘 불평하며 짜증을 낸다.
하물며 어떻게 다른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겠는가?

32~33. 제사를 드리는 것은 행위다.
이렇게 각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 브라만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아르주나여,
지혜를 닦는 것이[18]
자기가 소유한 물질을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낫다.
지혜와 깨달음이 모든 행위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34~35. 진리를 깨친 스승에게 다가가
그의 발아래 그대를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진리를 물어라.
그러면 그가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일단 진리를 깨달으면
그대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이 참 자아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6~38. 아르주나여,
그대가 죄인 가운데 죄인일지라도
지혜의 배를 타고 죄악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장작을 재로 만들듯이,
지혜의 불은

18 지혜를 닦는 것이 : '갸나 야즈나'의 번역이다. 문자적으로 '지혜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라는 뜻이다.

행위로 인해 쌓인 모든 카르마를 재로 만든다.
지혜의 불만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
요가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자기 내면에서 참 자아를 아는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39~40. 지혜 얻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강한 믿음으로 감각기관을 훈련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지혜를 얻고 완전한 평화로 들어간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파멸에 이른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없고
저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도 결코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41~42. 요가를 통해 인위적인 행위를 포기한 사람,
지혜로 의심을 잘라내고,
참 자아 상태에 흔들리지 않고 안주하는 사람은
행위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는 무엇을 하든 자유로우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 아르주나여,
지혜의 칼로
그대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잘라내도록 하라.
용감하게 일어나서 요가의 길을 가도록 하라.

[해설]

제 4 장 | 갸나 요가-지혜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

크리슈나는 최고의 영적인 진리를 진지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지금 아르주나의 관심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곤경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에 쏠려 있다. 아르주나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친족과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의 관심이 고차원적인 영적인 진리보다는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쏠려 있는 것이 이해가 된다.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의 친구이자 숭배자였다. 그래서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태곳적부터 전해 내려온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해준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발원지가 자기라고 한다. 하지만 아르주나는 관심이 온통 현실 문제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크리슈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비스바트나 마누보다 훨씬 나중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불멸의 가르침을 전해 줄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라고 묻는다.

여기서 크리슈나는 환생에 대해 다시 설명한다. "그대와 나는 수많은 생을 거쳐 왔다. 그대는 지나온 생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크리슈나는 자신은 영원한 존재이며, 세상에서 진리가 쇠퇴할 때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수없이 환생했다고 밝힌다.

크리슈나는 비슈누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비슈누의 화신임을 은연중에 밝힌다. 자기는 만물 속에 머물고 있는 만물의 주(主)라 한다. 힌두교에서는 이 세상의 주재자를 이슈바라(Ishvara)라고 한다. 그리고 창조하고 유지하고 해체하는 이슈바라의 세 기능을 다시 인격화하여 브라마(Brahma), 비슈누(Vishnu), 시바(Shiva)라 부른다. 브라마는 창조의 능력이 인격화된 신이고, 비슈누는 유지하고 지탱하는 능력이 인격화된 신이며, 시바는 파괴하는 힘이 인격화된 신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현상 세계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성의 세 측면 가운데 현상 세계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비슈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비슈누는 세상에서 신적인 진리가 쇠퇴할 때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다. 비슈누의 화신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하고 만다. 비슈누는 자비와 사랑의 신이다. 그는 세상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악을 멸하고 선을 보호하기 위해 시대마다 이 땅에 내려온다. 비슈누의 화신은 세상의 구원자이다. 이것이 힌두교의 전통적인 신앙이며, 아르주나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크리슈나는 자기가 바로 비슈누의 화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크리슈나는 헌신을 통해 자기에게 귀의하는 사람은 자기와 하나 될 수 있으며, 자기에게 오는 길도 꼭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기운(구나)과 서로 다른 행위 양식과 신분과 지위의 구별을 창조한 자가 자기라고 밝힌다.

1장에서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전차몰이꾼으로 무대에 등장했다. 다분히 인간적인 친구이자 조언자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바가바드 기타》의 저자는 이제 관심의 초점을 크리슈나의 신적인 본성을 향해 돌리고 있다. 《바가바드 기타》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크리슈나의 신적인 본성은 개별적인 존재 크리슈나가 아니라 만물의 참 자아인 아트만이다. 《바가바드 기타》 안에서 크리슈나가 '나'라고 말할 때 그 '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인물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참 자아 아트만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크리슈나가 "나는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고 말했을 때, 이 말은 "아르주나여, 어떤 행위도 그대의 참 자아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뜻이다. 참 자아 아트만은 어떤 행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참 자아 아트만은 오염되지 않고 본래 상태에 머문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행위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다."

14절부터는 아르주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제가 바뀐다. 크리슈나는 '행위'와 '행위 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행위에 대한 크리슈나의 가르침의 요점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행위함'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행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행위의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전혀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행위를 해도 행위 그 자체가 일어날 뿐 행위의 여파가 남지 않는다. 결과나 대가를 기대하고 행위 하는 사람은 행위를 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하는 행위에 얽매이고, 행위가 끝난 다음에도 행위의 결과에 종속된다. 하지만 결과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그저 행하는 사람은 행위와 행위의 결과 모두에서 자유롭다.

24절부터는 예배와 제사인 야즈나(yajna)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진다. 고대 힌두교 제의에는 제단의 불 위에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크리슈나는 영적인 구도자의 수행에 이런 제사의 이미지를 적용한다. 구도자들이 저마다 자기가 선택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다양한 수행이 모두 신께 바치는 제물이다. 곡식을 제물로 바치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의 탐구나 명상에 자신을 바치든지 모두 자기희생을 전제로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자기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결과로 영혼의 양식을 얻고 영원한 브라만의 경지에 도달한다." 하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들은 늘 불평하며 짜증을 낸다. 하물며 어떻게 다른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겠는가?"(31절)

크리슈나는 3장에서 행위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런데 4장 33절 이하에서는 행위의 길을 가는 목적이 지혜와 깨달음에 이르는 것임을 밝힌다. 모든 행위의 수련과 제사의 목적은 깨달음과 자유에 도달하는 데 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행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아무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의 경지에 이른다. 영적인 지혜의 불은 행위의 여파로 쌓인 카르마를 모두 태워버린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은 가장 위대한 정화자이다.

크리슈나는 마음을 뒤덮고 있는 의심을 지혜의 칼로 잘라버릴 것을 촉구하면서 이 장을 끝맺는다. 아르주나의 의심하는 마음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처음 등장한다. 크리슈나는 앞으로도 여러 번 아르주나에게 의심을 부숴버릴 것을 권면한다. 이것은 아르주나가 크리슈나의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르주나가 아무리 망설일지라도 크리슈나는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와 자유

제 5 장 | 포기와 자유

아르주나 :

1. 오 크리슈나여,
당신은 세속적인 행위를 포기하는 '상키야 요가'[1]도 좋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 하는
'카르마 요가'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길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크리슈나 :

2. 세속적인 행위를 포기하는 상키야 요가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 하는 카르마 요가는
둘 다 지고한 목표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세속적인 행위를 포기하는 길보다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의 길이 더 낫다.

3. 완전한 포기를 성취한 사람은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다.
그는 이원성의 분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4~5. 어리석은 사람은 상키야 요가와 카르마 요가
곧, 지혜의 길과 행위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1 세속적인 행위를 포기하는 '상키야 요가' : 문자적으로는 '행위의 포기'이다. 크리슈나는 2장에서는 상키야 요가를 가르쳤고, 다음에는 카르마 요가를 가르쳤다. 여기서 아르주나의 질문은 그 둘 중에 어느 길이 더 좋으냐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번역했다. 일반적으로 상키야 요가 수행에는 세속적인 행위를 포기하고 산야시 곧 은둔 수행자가 되는 길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똑같은 것으로 본다.
어느 한 길을 통해서든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다른 길을 통해 도달하는 것과
똑같은 경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혜의 길이 목표로 하는 것과
행위의 길이 목표로 하는 것이 같다.
이 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본다고 하여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다.

6. 행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완전한 포기를 성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2]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의 길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브라만에 도달할 것이다.

7.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행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감각과 욕망을 정복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그들은 만물 속에서 참 자아 아트만을 보며
그들과 자신이 하나임을 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
자신이 하는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3]

8~9.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 자신을 행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만지고, 냄새 맡고, 움직이면서도,

2 지혜로운 사람 : 문자적으로는 '요가로 훈련된 현자'이다.
3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문자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행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는다'.

또 잠자고, 숨쉬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 반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10~11.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모든 행위를 브라만에게 드리는 제사로 여기는 사람은
연꽃잎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악에 더렵혀지지 않는다.
그들도 몸과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을 통해 행위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행위 한다.

12. 행위의 요가로 마음을 제어한 사람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궁극의 평화를 얻는다.
하지만 마음이 제어되지 않는 사람은
행위의 결과에 집착함으로써
자기가 하는 행동에 얽매인다.

13. 행위의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몸을 입은 자'는 '아홉 개의 문이 있는 도시'[4]
곧 육체 안에서 평안하게 거한다.
그는 육체의 욕망에 끌려 다니는 종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육체를 움직이는 주인이다.
그는 육체를 움직이지만 자신은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4 '아홉 개의 문이 있는 도시' : 아홉 개의 문은 두 눈, 두 귀, 두 콧구멍, 입, 항문, 생식기를 말한다.

14. 참 자아 아트만[5]은 행위자가 아니다.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충동이나,
행위나,
행위와 결과의 연결은
참 자아 아트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 하고자 하는 충동, 행위, 행위 결과는
본성에 따라 저절로[6] 일어나는 것이다.

15~16. 참 자아 아트만은
어떤 사람의 선행이나 악행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누구의 행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기가 행위의 주체로서
선이나 악을 행하고
그 결과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믿으며
미혹의 늪에서 헤매는 이유는
참 지혜가 무지의 장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무지의 장막은
자기 내면에 거하는 참 자아를 깨달을 때 사라진다.
태양처럼 빛나는 이 깨달음의 빛이 비추면
지고한 존재가 밝게 드러난다.

5 참 자아 아트만 : '주님' 또는 '능력 있는 분'을 뜻하는 '프라부스'의 번역이다.

6 본성에 따라 저절로 :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또는 '타고난 본성에 따라'를 뜻하는 '스바브하바스'의 번역이다. 타고난 세 가지 구나의 활동에 따라 행위가 저절로 일어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온도계 눈금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저절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거기에 행위자는 없다. 물론 누군가가 온도계가 그렇게 작동되도록 만들었겠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누가 왜 온도계를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었냐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온도계의 작동 자체에는 행위자가 없다는 것이다.

17. 지고한 존재에 몰입하여
모든 의식을 거기에 집중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만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그 지혜로 모든 허물이 씻어진다.
그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행위가 행위를 낳는 환생의 고리에서 벗어난다.[7]

18~19. 지고한 존재 브라만에 머무는 사람은
만물을 평등하게 본다.
그는 코끼리나 소나 개를 볼 때에도
또는 개를 잡는 천한 사람을 볼 때에도
겉모양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지고한 존재를 본다.
이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행위가 행위를 낳는 환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이 이미 모든 허물과 차별상에서 벗어나 있는
브라만 안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 이런 사람은 모든 망상에서 벗어난다.
좋은 것을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마음이 참 자아인 브라만 안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만에 안주하는 사람은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8]
그는 참 자아로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며,

7 행위가 행위를 낳는 환생의 고리에서 벗어난다 : 문자적으로는 '환생 없음으로 간다'.
8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 : 문자적으로는 '외부와의 접촉에 집착하지 않는다'.

의식을 브라만과 통합시키는 요가를 통해[9]
불멸의 기쁨을 누린다.

22. 아르주나여,
외적인 대상과의 접촉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렇게 한계가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23~24. 육체에서 비롯되는
욕망과 분노의 충동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를 제어한 요가 수행자이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온전한 기쁨 속에서 산다.
이런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즐거움과 평안한 쉼과 깨달음의 빛을 발견하며,
브라만과 하나 되어
브라만 안에서 영원한 평화에 이른다.[10]

25. 이원성의 분별을 완전히 제거하여
자신에게 죄와 허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마음을 제어하여 참 자아에 안주하며

9 의식을 브라만과 통합시키는 요가를 통해 : '요가를 통해서 브라만과 합일함으로써'로 옮길 수도 있다.

10 브라만 안에서 영원한 평화에 이른다 : 문자적으로는 '브라만 열반(涅槃)에 이른다'. 여기서 열반(涅槃)은 '니어바나'의 번역인데, 촛불을 끄듯이 '불어서 끄다(또는 꺼지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브라만 열반'은 '(촛불이 사라지듯이) 브라만 안으로 꺼져서 들어감'으로 옮길 수 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브라만 안에서 영원한 평화에 이른다.

26. 생각과 마음을 엄격하게 제어하여
욕망과 분노에서 해방된 사람,
그리하여 참 자아를 아는 사람에게는
브라만의 영원한 평화가 멀지 않다.

27~28. 지혜로운 사람은
참 자아를 깨닫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
그들은 외계와의 접촉을 끊고,
들고 나는 숨을 고르게 하며,
두 눈썹 사이에 있는 영적인 의식 센터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감각과 마음과 지성의 활동을 제어한다.
그들의 목표는 욕망과 두려움과 분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11]에 이르는 것이다.

29. 내가[12] 우주의 주이며,
모든 제사와 영적인 수행의 목적이고,
모든 존재의 친구인줄 아는 사람은
영원한 평화를 얻는다.

11 영원한 자유 : '사다 무크타'의 번역이다. '무크타'는 해탈(解脫)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12 내가 : 크리슈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 보다는 참 자아 아트만을 일컫는 말로 보는 것이 문맥에 어울린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예수의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설]

제 5 장 | 포기와 자유

이 장에서는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수행자가 되는 길과 세속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길이 대조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세속의 삶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 은둔 수행자가 되는 것은 전통적인 구도자의 길이다. 이렇게 세속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산야사(sannyasa)라고 하고, 포기의 서원을 세우고 은둔 수행자가 된 사람을 산야시(sannyasi)라고 한다. 세속의 삶을 포기하고 산야시가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야사 전통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으며, 산야시들은 어느 정도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야시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고타마 싯다르타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왕자로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행의 길에 들어섰다. 보통 산야시들이 그러한 것처럼 싯다르타 역시 세속의 즐거움과 의무를 포기하고 금욕 수행에 몸을 던졌다. 그가 세상에 돌아온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서구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도 사막이나 수도원에 은거하면서 평생을 명상과 수행으로 보낸 수도사들이 많다. 그들 역시 상당히 높은 깨달음에 도달했다.

크리슈나는 이러한 포기의 길이 지고한 목표로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포기의 길보다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의 길인 카르마 요가가 더 낫다고 한다. 그는 4절과 5절에서 이론〔상키야〕과 실천〔요가〕이 결국 같은 목표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상키야'는 2장의 주제였던 참 자아에 대한 앎을 추구하는 '지혜의 길'을 가리키고, '요가'는 3장의 주제였던 '행위의 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가바드 기타》에 언급되고 있는 '요가'라는 낱말은 상당히 넓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행동적인 영적인 삶' 곧 행위를 통한 수행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바가바드 기타》가 저술될 당시에는 지혜

의 길을 최고로 여겼던 것 같다. 구도자들은 행위의 길을 저속하게 여기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바가바드 기타》는 이 두 길을 하나로 묶는다. 크리슈나는 지혜의 길과 행위의 길을 다르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다(4절). 행위의 길과 지혜의 길은 둘 다 목적이 참 자아에 대한 깨달음에 있으며,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가더라도 참 자아에 대한 깨달음에 이른다고 강조한다. "행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완전한 포기를 성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6절)는 말은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행위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 한 구절로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행위의 길의 핵심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 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욕망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사람은 영혼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연꽃잎이 물에 잠겨 있으면서도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욕망 없이 행하는 사람은 행위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는다(10절). 뒤에 또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행위의 여파(카르마)도 남지 않으며, 그저 행위 자체로 독립된 행위를 한다. 과거에 행했던 행위의 여파로 지금 행위가 일어나는데, 지금 하는 행위가 여파를 남기지 않는다면 과거에 쌓은 행위의 여파가 하나씩 소멸되어 갈 것이다. 그리하여 서서히 자아의 정화가 이루어진다(11절).

크리슈나는 말한다. 내면에 머물고 있는 참 자아 주인공은 행위자가 아니다. 또 참 자아 주인공은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행위의 구속에서 벗어나며, 만물을 평등하게 본다. 이런 사람은 모든 망상에서 벗어난다. 좋은 것을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마음이 참 자아인 브라만 안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적인 대상과의 접촉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렇게 한계가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욕망과 분노의 충동을 극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이며 온전한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즐거움과 평안한 쉼과 깨달음의 빛을 발견하며, 브라만과 하나 되어 브라만 안에서 영원한 평화에 이른다.

이 장의 마지막 세 절(27~29절)은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 속에 정리되어 있는 구체적인 요가 수행법과 명상의 가장 깊은 단계인 사마디에 대한 설명이다. 파탄잘리는 요가 수행을 여덟 단계로 나눈다. 야마(금지하는 계율), 니야마(권장하는 계율), 아사나(자세), 프라나야마(호흡조절), 프라티야라(감각제어), 다라나(정신집중), 디야나(몰입), 사마디(합일)가 그것인데 크리슈나는 이 여덟 단계의 명상법을 종합해서 설명하고 있다. 명상에 몰입하면 호흡이 느리고 고요해지며 감각기관의 활동이 멈춘다. 그러면 쉴 새 없이 움직이던 마음도 고요하게 가라앉는다. 욕망,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도 사라진다. 이런 상태가 사마디이며, 영혼은 사마디가 지속되는 동안 자유로움과 평온함에 잠긴다. 하지만 오랜 세월 훈련이 쌓이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 도달해도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한다.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늘 이런 상태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

명상의 길

제 6 장 | 명상의 길

크리슈나 :

1~2. 제사도 드리지 않고

일상적인 행위[1]도 하지 않는 사람은 포기자가 아니다.

행위의 결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해야 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포기자요

요가의 목표를 이룬 사람이다.

아르주나여,

그러므로 그대는

이기적인 욕망 없이 행위 하는 것이

곧 포기임을 알아야 한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요가의 길을 가지 못한다.

3~4.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 하는 카르마 요가는

우주적인 합일[2]에 도달하고자 하는 구도자가 가야 할 길이다.

요가의 길에 들어서서 수행에 몰두하는 사람은

우주적인 합일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음의 고요함을 지켜야 한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과

감각대상과의 접촉을 통한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면

우주적인 의식과 통합되는

진정한 요가의 경지에 오른다.

1 일상적인 행위 : 날마다 제단에 촛불을 켜고 제물을 바치는 일.

2 우주적인 합일에 도달하고자 하는 : 문자적으로는 '요가(상태)로 오르고자 하는' 또는 '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이다.

5. 마음이 그대의 유일한 친구이자 적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그대가 곧 참 자아 아트만임을 깨달을 수도 있고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로 깎아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6. 마음으로 에고의식을 정복한 사람[3]에게는
마음이 자신의 친구이나,
자기 내면에서 참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그를 괴롭히는 적이다.

7. 에고의식을 정복한 사람은[4]
지극한 평화 속에서 산다.
춥거나 덥거나, 즐겁거나 고통스럽거나,
남이 칭찬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8~9. 진정한 식별력[5]과 지혜가 흔들리지 않는,
감각기관을 정복한 요가 수행자는
추위와 더위, 돌과 황금을 모두 평등하게 본다.
가족이나 친구나 적을,
친절한 사람이나 해치려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똑같이 대한다.
그들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이유는,

3 마음으로 에고의식을 정복한 사람 : 문자적으로는 '아트만으로 아트만을 정복한 사람'이다. 곧 '참 자아로 에고의식을 정복한 사람'을 가리킨다.

4 에고의식을 정복한 사람은 : 문자적으로 '(저급한) 자아를 정복한 지고한 자아는'의 번역이다.

5 진정한 식별력 : 현상 세계의 속성에서 비롯된 앎이 아니다, 아트만의 앎을 일컫는다.

이미 이원성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아트만 의식 속에 통합된 경지에 머물기 때문이다.

10. 요가의 통합된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은
고요함 속에 홀로 머물면서
몸과 마음을 제어하고,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의식을 지고한 자아에 집중하는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11~12. 아르주나여,
깨끗한 장소를 골라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자리를 마련하고
깨끗한 풀 위에 헝겊이나 영양 가죽을 깔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앉도록 하라.
자리에 앉으면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과 감각기관의 활동을 제어하면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라.
그렇게 마음을 정화하는 요가를 수행하도록 하라.

13~15. 머리와 목과 몸통을 일직선이 되도록 꼿꼿하게 세우고,
흔들림이 없는 자세로 앉아서
시선을 코끝에 고정시켜라.
고요한 상태에서 두려움을 떨어버리고
성적인 욕망을 단호하게 제어하도록 하라.[6]

6 성적인 욕망을 단호하게 제어하도록 하라 : 문자적으로는 '성욕을 억제하겠다는 서원을 굳게 지켜라'이다. 요가 수행자는 성욕을 제어하는 수행을 해야만 한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그런 수행을 '브라마카리아'라고 한다.

마음을 제어하여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라.
그렇게 나에게 집중한 상태로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는 구도자는
내면의 참 자아인 나와 하나로 합일되어
열반(涅槃) 곧 완전한 평화 속에 거하게 된다.

16~18. 아르주나여,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나차게 많이 먹거나 지나치게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자지 않아도 안 된다.
슬픔과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먹는 것과 자는 것을 알맞게 하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면서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마음이 모든 갈망과 욕망에서 해방되어
참 자아에만 머무는 요가의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한다.

19~22. 생각을 제어하여
참 자아에만 머무는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은
바람 없는 곳에 놓인 등불이 흔들리지 않듯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집중하는 수행을 통해 생각의 흐름이 멈추게 되면
참 자아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면 수행자는 참 자아의 눈으로 참 자아를 보면서
지극한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
그는 초월적인 지성으로
감각을 초월한 기쁨을 인지하며,

그 영원한 진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어떤 슬픔도 그를 흔들지 못한다.

23~25. 고통과의 결합을 해체하여
모든 고통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
이것을 요가라고 한다.
그대는 굳은 결단과 열정을 가지고
이 길을 따르도록 하라.
이기적인 욕망과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남김없이 내버리고,
그대의 의지력을 총동원하여
감각기관을 제어하도록 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이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
마음은 서서히 참 자아 속으로 가라앉아
흔들리지 않게 된다.[7]

26~27. 마음이 외적인 대상을 향해 이리저리 방황하면
다시 내면으로 끌어들여
참 자아에 머물러야 한다.
마음을 참 자아 안에 고요히 가라앉힌 수행자,
욕망을 잠재운 수행자,
그리하여 죄나 허물로부터 자유로워진 수행자는
브라만과 하나 된 상태에서
충만한 내면의 기쁨을 누린다.

7 흔들리지 않게 된다 : 문자적으로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

28~29. 마음을 참 자아에 통합시키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모든 죄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어렵지 않게 브라만과의 합일에 이르러[8]
무한한 기쁨을 얻는다.
그들은 모든 것 속에서 참 자아를 보며,
참 자아 속에서 모든 것을 본다.
요가 수행을 통해 참 자아와 하나 된 사람은
만물을 평등하게 본다.[9]

30~31. 만물 속에서 '나'를 보며
내 속에서 모든 존재를 보는 사람은
나에게서 분리되지 않으며
나도 그에게서 분리되지 않는다.
나와 이런 '하나임' 상태에 이른 수행자는
모든 존재 속에 머물고 있는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늘 내 안에 머문다.

32. 아르주나여,
모든 존재를 자기와 동일하게 보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처럼 여기는 사람은
가장 높은 단계의 요가를 성취한 사람이다.

8 브라만과의 합일에 이르러 : 문자적으로는 '브라만과 조우함으로써'.
9 만물을 평등하게 본다 : 문자적으로는 '언제나 같은 것을 본다'.

아르주나 :

33~34. 오! 크리슈나여,

제 머리로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요가의 경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마음이

어떻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크리슈나여,

마음은 쉬지 않고 이리저리 날뛰며,

거세고 완고합니다.

이런 마음을 제어하려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크리슈나:

35~36. 그렇다.

마음을 제어하기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어렵다.

하지만 아르주나여,

그것은 가능하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외적인 대상에 초연해지는 수행을 함으로써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

에고의 의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요가의 길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에고의 의지를 제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은

요가의 완성에 도달할 것이다.

아르주나 :

37~39. 크리슈나여,

믿음은 있으나 의지가 부족하여

수행의 길에서 이탈하여[10]

요가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도의 길[11]에서 방황하면

이생에서의 즐거움도 잃고

내생에서의 복락도 얻지 못한 채

조각난 구름처럼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크리슈나여,

이 의심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십시오.

저의 이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크리슈나 :

40. 아르주나여,

그런 사람[12]은 이생에서나 내생에서나 멸망하지 않는다.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불행한 결말에 도달하지 않는다.

41~44. 수행을 하다가 도중에 이탈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공덕을 쌓은 사람들의 세계로 가서

오랜 세월을 거기서 지낸다.

그런 다음 때가되면

마음이 순수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 다시 태어난다.

10 수행의 길에서 이탈하여 :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요가에서 떠나'.

11 구도의 길 : 문자적으로는 '브라만에 이르는 길'.

12 그런 사람 : 믿음에까지는 도달했으나, 의지력이 부족하여 요가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을 가리킨다.

또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수행자 가문에 태어날 수도 있다.
태어난 다음에는
전생에 도달했던 의식 수준이 일깨워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완전을 향해 나가게 된다.
그는 전생에 닦았던 수행의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요가의 길을 가게 된다.
단순히 요가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만 했던 사람일지라도
의미 없이 제사만 드리는 사람보다[13]
훨씬 앞으로 나간다.

45. 요가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도중에 이탈하더라도,
여러 생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마침내 이기적인 욕망을 모두 제거하고
궁극적인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46~47. 참 자아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요가 수행자는
금욕주의자나 경전에 통달한 학자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요가 수행자가 되어 궁극적인 합일에 도달하도록 하라.
아르주나여,
나는 요가 수행자 중에서도
완전한 신뢰심을 가지고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

13 의미 없이 제사만 드리는 사람보다 : '사브다-브라마'의 번역이다. '사브다-브라마'는 베다의 규율을 지키는 것, 또는 베다를 암송하는 것이나 베다를 인용하는 것을 뜻한다.

나에게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14]을
가장 훈련이 잘 된 사람으로 본다.

14 나에게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 : '내면의 자아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해설]

제 6 장 | 명상의 길

이 장에는 수행에 뜻을 두고 있는 일반 사람이 주목할 만한 흥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에는 요가의 여러 시스템과 수행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구도의 길에 인생을 던진 출가 수행승에게는 더없이 값진 안내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이해하고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크리슈나는 이 장에서 요가의 깊은 가르침을 일반 사람도 따라갈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는 "누가 진정한 요기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들어 있다. '요기'란 말 그대로 요가 수행자를 가리킨다. '요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머리를 땅에 박고 거꾸로 서 있거나 팔다리를 꼬고 이상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 또는 바늘방석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연상한다. 육체의 훈련에 비중을 둔 하타 요가 수행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바늘방석 위에 앉아 있거나 산채로 매장해도 오랜 기간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바가바드 기타》에서 말하는 요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타 요가는 요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몸의 상태를 만드는 일종의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크리슈나도 앉는 방법과 몸의 자세에 대해 언급을 한다. 하지만 육체의 훈련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것은 오히려 영적인 진보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크리슈나는 행위의 결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해야 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포기자이며 요가의 목표를 이룬 사람이라고 한다(1절). '요가'의 문자적인 뜻은 '(신과의) 합일' 또는 '(정신의) 통합'이며, '요기'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결국 요가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인 아트만과 하나 되는 길이자 목표이며, 이 길을 가는 사람과 목표에 도달한 사람을 모두 '요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크리슈나는 지금까지 외적이며 활동적인 행위의 길에 대해서 가르침을 폈다. 그런데 이제는 내적이며 관조적인 명상의 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행위의 길은 깨달음의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산의 정상에 도

달한 사람에게는 관조적인 평화의 길이 열린다.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육체와 행위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 훈련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험준한 산을 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일단 산의 정상에 오르고 나면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다.

영적인 수행과 그 결과를 산을 오르는 것과 산의 정상에서 누리는 고요한 평화로움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시나이 산을 뒤덮은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하느님과 교류를 했다. 또 십자가의 성 요한은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한 훈련을 카르멜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크리슈나는 이 장에서 고요한 평화로움으로 충만한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 곧 감각과 마음의 제어에 대해서 가르친다.

영적인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력과 인내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산에 오르는 데에는 자신의 마음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힘이 되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마음속에 깊숙이 숨어 있는 에고의식은 끊임없이 자기를 강화하려고 애쓴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이 가장 위험한 적이다. 하지만 강인한 의지 곧 굳은 마음으로 에고의식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다(5~6절).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 에고의식을 극복한 사람은 지극한 평화 속에 거한다.

크리슈나는 에고의식을 극복한 사람이 진정한 요기라고 말한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존재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본다. 내면의 통합을 성취한 진정한 요기는 '나와 너' 또는 '나와 그것'이라는 이원성을 초월한다. 그는 모든 존재 속에 동일한 참 자아가 머물고 있음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에고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가? 《바가바드 기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가르친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다. 이 훈련이 기본이다. 《바가바드 기타》에는 힌두 전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잡한 의식이나 정교한 테크닉에 대한 언급이 없다. 크리슈나는 아주 단순한 수행 지침만을 준다. 명상을 하기에 적당한 깨끗한 곳을 골라 거리에 자리를 마련하라. 그리고 마른 풀 위에 헝겊이나 사

슴 가죽을 깔고 그 위에 앉아라. 명상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요기들의 전통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흐름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이다. 명상이란 마음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크리슈나는 몸의 자세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한다. 머리와 목과 몸통을 일직선이 되도록 꼿꼿하게 세우고, 흔들림이 없는 자세로 앉아서 시선을 코끝에 고정시키라고 한다(13절). 얼핏 보아 이것은 육체의 훈련에 대한 강조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는 이런 자세가 명상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효과가 있음을 염두에 둔 가르침으로 보인다. 머리와 목과 몸통을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있으면 졸음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생명의 기운인 쿤달리니가 원활히 흐르게 되기 때문이다.

크리슈나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준다. 명상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극단적 금욕이나 극단적 방종을 피하고 적당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16~18절). 겉으로 보면 힌두 문화는 극단적 감각주의와 극단적 금욕주의로 발전한 것처럼 보인다. 인도의 그림이나 조각, 춤을 보면 성적인 아름다움이나 쾌락을 극단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포르노그라피의 원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남녀의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카마수트라》 같은 책에 경전을 뜻하는 '수트라'라는 이름이 붙어있을 정도이다. 양념이나 향도 인도처럼 발달한 나라가 없을 것이다. 인도에는 이처럼 감각문화가 극단적으로 발전했다. 한편 인도에는 '사두'라고 부르는 방랑 수행승들의 극단적 금욕주의도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바가바드 기타》는 극단적 감각주의도 아니고 극단적 금욕주의도 아닌 가운데 길(中道)을 제시한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명상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도 안 된다. 왕궁에서 쾌락과 은둔 수행자로서의 고행을 거친 다음, 붓다도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육체는 현악기 줄과 같아서 너무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줄이 적당히 당겨져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이 장에는 마음을 등불에 비유한 유명한 구절(19절)이 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등불처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방황한다. 하지

만 마음을 제어하는 훈련을 통해 마음이 참 자아 안에 머물게 되면 바람 없는 곳에 놓인 등불처럼 마음이 고요해 진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감각을 초월한 기쁨과 지극한 평화 속에 거하게 된다. 욕망이 사라지며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요가의 목표이다.

아르주나는 이제 절박한 질문을 던진다. "오, 크리슈나여. 제 마음은 잠시도 쉬지 않고 흔들립니다. 저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신비로운 영원한 평화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몹시 완고하고 거셉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제어한다는 말입니까?" 크리슈나는 마음을 제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아르주나의 푸념을 인정한다. 하지만 집착을 버리는 수행을 지속함으로써 마음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 격려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크리슈나는 아르주나가 마음을 제어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아르주나의 몫으로 남겨 놓는다.

아르주나는 다시 묻는다. "그러면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그동안 쌓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행을 한다고 나서는 바람에 이생의 즐거움을 잃었고, 또 중간에 포기함으로써 다음 생에 받을 즐거움도 놓치는 것이 아닙니까?" 아르주나는 수행의 길에 들어서고는 싶지만 중간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으리라. 사실 아르주나의 이 물음은 구도의 길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질문이다.

크리슈나는 애정 어린 말로 아르주나를 격려한다. 영적인 노력은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생에서 노력하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다음 생에 이생에서 도달한 영적인 상태에 어울리는 환경에 태어나고, 이생에서 도달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구도의 길을 출발하게 된다. 이 가르침은 힌두교의 전통적인 믿음과 일치한다. 인도 사람들 사이에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영적인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크리슈나는 참 자아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요가 수행이 그 어떤 훈련이나 수행보다 뛰어나다는 말로 이 장을 끝맺는다.

지혜와 깨달음

제 7 장 | 지혜와 깨달음

크리슈나 :

1. 아르주나여,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바치고
나만 의지하면서 요가를 수행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나를 완전히 알고
털끝만한 의심도 남지 않으리라.

2. 내 이제 참 자아를 아는 지혜[1]와
참 자아를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깨달음[2]에 대해
그대에게 말해 주리라.
이것을 알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다.

3~5. 수천 명 중에서 한 명 정도가
영혼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나를 아는 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4~5. 흙, 물, 불, 바람, 공간, 마음, 지성, 에고의식[3]
이 여덟 가지는 모두
물질 차원에 나타난 나의 본성적인 에너지[4]이다.

1 참 자아를 아는 지혜 : '갸나'의 번역이다. '갸나'와 뒤에 나오는 '비갸나'에 대해서는 이 장 해설 참조.
2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깨달음 : '비갸나'의 번역이다.
3 마음, 지성, 에고의식 : 일상적인 차원의 마음이나 생각을 뜻하는 '마나스', 초월적인 지성을 뜻하는 '붓디', 내가 무엇을 한다는 자아의식을 가리키는 '아함카라'의 번역이다.
4 본성적인 에너지 : '프라크리티'의 번역이다.

하지만 이들 낮은 차원의 본성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내적인 본성이 있으며,
그것이 이 우주와 만물을 지탱하는 생명의 힘이다.

6~7. 나의 내적인 본성이 만물이 태어나는 자궁이다.
내 안에서 우주가 탄생하고 소멸한다.
아르주나여,
나보다 더 위는 없다.[5]
온 우주가
실에 꿰어있는 구슬처럼
나와 연결되어 있다.

8~9. 아르주나여,
나는 물의 유동성이며, 태양의 빛이며, 달의 빛이다.
나는 모든 《베다》에 언급되어 있는 성스러운 소리 '옴'이며,
공간 속에 울리는 소리이며,
사람 속에 있는 인간성이다.
나는 달콤한 대지의 향기이며, 태양의 광휘이다.
나는 모든 존재의 생명이며, 영적인 구도자의 열정[6]이다.

10~11. 아르주나여,
나는 모든 존재의 씨[7]이다.
나는 분별력 있는 사람의 분별력이고,

5 나보다 더 위는 없다 : 크리슈나의 '내적인 본성'이 온 우주의 궁극의 원인 또는 제 1원인이라는 뜻이다.
6 열정 : '타파스'의 번역이다. '타파스'는 본래 "열이 나서 후끈하게 달아오르다"는 뜻인데, 구도자의 열정적인 수행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7 모든 존재의 씨이다 : '모든 피조물의 최초의 원인이다'라고 옮길 수도 있다.

뛰어난 사람의 뛰어남이며, 힘 있는 사람의 힘이다.
나에게는 욕망이나 집착[8]이 없지만,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9]도
존재의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나의 힘이다.

12. 물질 차원의 세 기운인
밝은 기운, 활동적인 기운, 어두운 기운도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13~15. 이 세 가지 기운의 상호연관으로
이 세상의 온갖 현상이 벌어진다.
사람들은 현상에 미혹되어
그들의 원인이자 영원한 존재인 나를 보지 못한다.
세 가지 기운이 만들어 내는
현상이라는 환영(幻影)에서 빠져나가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나에게 귀의하는 사람은
환영의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다.
나에게 귀의하지 않는 사람은
환영에 현혹되어 악한 일만 행한다.
나를 믿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낮은 차원의 본능적인 충동만을 따르며 멸망의 길을 간다.[10]

8 욕망이나 집착 : '카마라가'의 번역이다. '카마'는 성적인 욕망을 비롯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욕망을 일컫는 말이며, '라가'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을 일컫는 말이다.
9 본능적인 욕망 : '카마'의 번역이다.
10 멸망의 길을 간다 : '악마에 씐 것처럼 살아간다' 또는 '귀신이 들린 것처럼 살아간다'고 옮길 수도 있

16. 아르주나여,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네 가지다.

삶이 고통스러워서[11] 나를 찾는 사람도 있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12] 찾는 사람도 있으며,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찾는 사람도 있고,

진실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찾는 사람도 있다.

17. 이 중에서 참다운 지혜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 또한 나를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한다.

18~19. 어떤 이유에서라도

나를 찾는 사람은 훌륭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

그들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와 하나 되는 것[13]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런 사람은 여러 생을 거치면서 나를 찾다가

마침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영혼은 아주 드물다.

20. 나를 찾긴 하지만

참다운 지혜가 없는 다른 사람들은

다.

11 삶이 고통스러워서 : '잃어버린 영적인 힘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옮길 수도 있다.

12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 '최고의 진리를 터득하고자'라고 옮길 수도 있다.

13 나와 하나 되는 것 : 문자적으로는 '내 안에 거하는 것'.

타고난 육체적인 본성에 따라 일어나는
이런저런 욕망을 좇아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

21~23.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을 신뢰하고
그 신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나는 그가 완전한 믿음으로 자기가 선택한 신을 섬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준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소원 성취를 바라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나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하지만 이들이 얻는 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이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간다.
하지만 진실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14] 나에게 온다.

24~26.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라고 여기며 섬기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의 진정한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으며,
태어남과 죽음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모른다.
나의 창조력이 빚어낸,
환영에 지나지 않는 외적인 현상에 미혹되어 있는 동안에는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영원히 변하지도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14 진실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 문자적으로는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아르주나여,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15] 알고 있다.

그러나 참으로 나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없다.

27~28. 아르주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미혹되어 환영의 세계에 거듭 태어난다.

그러나 좋고 싫음을 구별하는 미망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행위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서원으로 나를 섬긴다.

29~30.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에게 귀의하는 사람은

브라만과 지고한 자아 아트만과 카르마(행위)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내가 물질 현상과 정신적인 원리와 영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지고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고 나의 상태에 머문다.

15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 '세상을 떠난 존재와 살아 있는 존재와 앞으로 올 존재를'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해설]

제 7 장 | 지혜와 깨달음

이 장의 산스크리트어 제목은 〈갸나 비갸나 요가〔지혜와 깨달음의 요가〕〉이다. 갸나와 비갸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이 두 낱말은 '알다'라는 뜻의 어근 '갸나(jna)'에서 파생되었다. 영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헬라어 '노시스(gnosis)'도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접두사 '비(vi)'는 낱말의 뜻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비갸나'는 '확고부동한 지혜'라는 뜻이다. 비갸나를 지식이라고 옮기는 사람도 있는데, 비갸나는 책을 통해 배운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직접적인 앎을 가리킨다. 따라서 '깨달음'이라고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 라마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한다. "불에 대한 이야기를 단지 듣기만 한 사람은 아갸나〔무지〕한 사람이다. 불을 본 사람은 갸나〔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불을 피우고 그것으로 음식을 해먹을 줄 아는 사람은 비갸나〔깨달음〕가 있는 사람이다."

이 장의 주제는 현상 세계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작은 주제들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핵심을 놓치기가 쉽다. 작은 주제 가운데 하나는 크리슈나의 '두 가지 본성'이다. 크리슈나는 현상적인 본성과 초월적인 본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모두 크리슈나 자신이 나타난 것이고, 그 뒤에는 만물의 주(主)인 초월적인 크리슈나가 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푸루샤와 프라크리티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푸루샤와 프라크리티는 후에 상키야 학파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발전했는데, 상키야 철학은 모든 존재는 푸루샤와 프라크리티라는 두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파악했다. 푸루샤는 초월적인 정신 또는 신적인 정신이다. 프라크리티는 물질현상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근본질료(根本質料)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마음도 포함되며, 영원한 이 두 힘의 결합으로 현상 세계가 창조되어 나온다. 상키야 입장에서는 현란하게 전개되는 프라크리티의 유희에 현혹되지 않고 푸루샤의 차원에 들어가는 것이 깨달음이었다.

《바가바드 기타》는 철학적인 이론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상키야 학

파가 정교하게 발전시킨 푸루샤와 프라크리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키야 학파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바가바드 기타》는 푸루샤와 프라크리티 배후에 영원한 존재 크리슈나가 있다고 말한다. 이 장에서 크리슈나는 우주만물의 창조자로 나온다. 대부분의 힌두 신화에서는 브라마(Brahma)가 창조자로 나온다. 얼굴이 넷인 신 브라마가 지나간 세상과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창조자이다. 하지만 비슈누 신화에 따르면 브라마는 비슈누의 배꼽에서 자라나온 연꽃에서 태어났다. 비슈누의 자궁인 연꽃에서 태어난 브라마가 비슈누의 명령에 따라 세상을 창조한다. 비슈누 신화에서는 이렇게 비슈누가 진짜 창조자이며, 브라마는 비슈누의 명령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는 대리자 역할을 한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아르주나의 스승으로 나오는 크리슈나는 비슈누의 화신이다. 그래서 크리슈나를 우주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이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힌두 신앙에서 절대자와 여러 신들에게 부여한 속성과 역할과 영광을 모두 크리슈나에게 돌린다. 이것은 신성의 여러 측면을 인격화한 다른 신들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심의 초점을 크리슈나에게 모으기 위함인 것처럼 보인다. 저자는 크리슈나를 모든 신들을 합쳐놓은 존재인 것처럼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 크리슈나는 그들을 도와주어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오도록 한다.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크리슈나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다(21~23절).

힌두교에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고 변화하는 것이 모두 신의 유희라는 신앙이 있다. 유희(lila)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바가바드 기타》는 어린아이가 친구와 놀이를 하듯 이 세상이 크리슈나의 유희로 창조되었다는 관념을 받아들이고 있다(6~7절, 12~13절). 그가 세상의 창조자이며, 그가 만물의 에센스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힘이 모두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구나(기운 또는 본성)도 그에게서 나온 것이며(12절), 심지어는 성적인 욕망까지도 그의 힘이다(11절). 현상 세계가 크리슈나의 놀이고, 현상의 배후에는 현상에 종속되지 않는 놀이하는 자 크리슈나가 있음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깨달음(비갸나)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현란한 크리슈나

의 유희가 만들어 내는 환영(幻影)의 바다를 무사히 건넌다(14절).

14절에 '마야(幻影)'라는 중요한 낱말이 나온다. 앞서 말했던 푸루샤와 프라크리티에 대한 개념이 후에 상키야 철학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졌듯이, 마야에 대한 개념은 베단타 학파의 철학에 흡수되어 발전했다. 이 말의 어근 '마(ma)'는 '재어서 분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피조물마다 그에 걸맞도록 이름과 형상을 분배하는 신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야는 이렇게 현란하게 전개되는 생명의 세계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신의 마법적인 창조력을 일컫는 말이었다. 마야는 또한 스크린 위에 비치는 영상처럼, 내재하고 있는 영원한 신성을 가리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환영(幻影)이라고 옮기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취한 것이다. 마야는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위험하다. 마야는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성질인 구나들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영혼의 항해자는 일시적인 그림자인 마야의 바다를 건너 흔들리지 않는 땅에 도달하기 위해 피나는 수행을 한다. 여기서 크리슈나는 사랑과 헌신이 마야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다리라고 말한다. 이 장에서 시작된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강조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다.

크리슈나의 진정한 모습이 마야에 의해 가려져 있다(25절). 마야는 이렇게 위험하다. 하지만 크리슈나는 마야에 대해 더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대신 '모하(moha)'에 대한 가르침으로 말문을 돌린다. '모하'는 마야를 실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미혹' 또는 '망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망상은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을 증오하는 이원적인 분별심에서 생긴다. 마야를 실재로 여기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거듭하여 마야의 세계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영원히 슬픔과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27절). 그러나 크리슈나에게 귀의하여 그에게 헌신하는 사람 곧 마음을 그에게만 집중하고 그만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얻어 미망에서 벗어난다(28절).

7장은 이렇게 참된 지혜와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되는 망상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는 후대에 상키야와 베단타 학파에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된 푸루샤와 프라

크리티 그리고 마야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고 있다. 물론 이런 개념이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마야는 가장 오래된 베다인 《리그베다》에 이미 언급되어 있고, 푸루샤는 여러 우파니샤드에서 이미 사용한 낱말이다. 따라서 《바가바드 기타》는 고대 우파니샤드 현자들의 뛰어난 통찰과 후대의 걸출한 사상가들의 철학적인 체계 사이에서 연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원한 신성

제 8 장 | 영원한 신성

아르주나 :

1. 오 크리슈나여, 브라만이 무엇입니까?
지고한 아트만(참 자아)은 무엇이며,
카르마(행위)는 무엇입니까?
물질 현상의 본질은 무엇이고,
물질 현상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인 원리[1]는 또 무엇입니까?

2. 야즈나(희생제사)의 주(主)인 브라만이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브라만이 어떻게 육체 속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과 하나 되어 당신의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리슈나 :

3~4.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의 지고한 본성을 브라만이라고 한다.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나의 본질을
지고한 아트만(지고한 자아)이라고 한다.
개체 속에 깃들어 있는,
만물을 생성해 내는 나의 창조적인 힘의 활동을
카르마(행위)라고 한다.
개체들의 행위가 만들어 내는
물질 현상은 일시적이며 늘 변한다.

1 정신적인 원리 : '지고한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디다이밤'의 번역이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배후에는
영원한 정신적인 원리(푸루샤)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가 그대의 육체 속에 머물면서
제사를 드리는 자이며 제사를 받는 주(主)이다.

5~8. 죽는 순간에[2]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존재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죽음의 순간에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그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죽은 사람은
마지막에 품고 있던 생각에 상응하는
존재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를 생각하며
힘을 다해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 기울이면
반드시 나의 상태에 이를 것이다.
요가 수행을 통해 얻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지고한 영혼[3]만을 생각하도록 하라.
그러면 지고한 그의 차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9~10. 브라만은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브라만은 가장 오래된 자 곧 '최초의 원인'이다.
브라만은 온 우주를 지배하는 '통치자'이다.
브라만은 가장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은 자'이다.
브라만은 이 세상을 유지하는 '유지자'이다.

2 죽는 순간에 : 문자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3 지고한 영혼 : 문자적으로는 '가장 높은 푸루샤' 곧 모든 물질 현상의 원인인 브라만의 정신적 원리를 가리킨다.

브라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자'이다.
브라만은 무지의 어둠을 넘어선 '태양처럼 밝은 자'이다.
이런 브라만에 흔들리지 않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오면,
평소 닦은 요가와 헌신의 힘에 의해
생명 에너지[4]를 두 눈썹 사이에 집중시킴으로써
지고한 신적인 정신에 이른다.

11. 경전에 통달한 현자들이 불멸의 경지라고 말하는 상태,
욕망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경지,
신에게 자신의 온 삶을 바친 수행자들[5]이 찾고 있는 그 경지를
이제 그대에게 간략히 말해 주리라.

12~13. 죽음의 순간에 다다르면 이렇게 하라.
감각의 문을 모두 닫고 마음을 가슴 안으로 모아라.
그리고 생명의 기운 프라나를 정수리로 끌어올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 집중 상태를 유지하라.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며
영원한 브라만의 상징인 성스러운 음절
'옴'을 반복해서 읊어라.
그러면 육체에서 벗어난 다음 지고한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14~15. 아르주나여,
언제 어디서나 나만 생각하며

4 생명 에너지 : '프라나'의 번역이다. '프라나'는 '호흡' 또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5 신에게 자신의 온 삶을 바친 수행자들 : '브라마카리암'의 번역이다. 곧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적인 순결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는 수행자는
어렵지 않게 나의 상태에 도달한다.
나의 상태에 도달하여 지고한 완성에 이른 위대한 영혼은
분리의식에서 비롯되는 고통으로 가득 찬,
덧없는 이 세상에서 해방된다.
그는 다시는 이런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16. 아르주나여,
위로 신들의 세계에 사는 존재들을 포함하여
아래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삶과 죽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나와 하나가 되면
고통의 연속인 삶과 죽음의 반복에서 벗어난다.

17~19. 지구의 시간으로는 수십억 년[6]이
브라마의 세계에서는 하루 밤낮에 지나지 않는다.
브라마의 아침이 밝으면
뭇 존재들이 무형(無形)의 세계에서 현상 세계로 나와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다가 브라마의 밤이 오면
모든 존재들이 무형의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브라마의 낮과 밤에 따라
존재들의 생성과 소멸이 무한하게 반복된다.

20~21. 그러나 생성과 소멸을 초월한
더 높은 또 다른 무형의 차원이 있다.
이 근원적인 무형의 세계는

6 수십억 년 : 문자적으로는 '수천 유가'. '유가'에 대해서는 해설 참조.

우주가 소멸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실재 차원이다.[7]
이 차원이 곧 나의 세계다.
삶의 지고한 목표인 이 차원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변의 실재라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고향인 나의 세계로 온다.
나의 세계에 온 사람은
다시는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세계로[8] 되돌아가지 않는다.

22. 진정한 헌신이 있으면
모든 존재의 토대이자 만물 속에 두루 깃들어 있는
이 지고한 영혼의 세계[9]에 이를 수 있다.

23. 아르주나여,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행자가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환생에 이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
이제 그 두 길에 대해 말해 주겠다.

24~25. 불, 밝음, 낮, 달이 차올라 밝아지고 있을 때,
태양이 낮이 긴 여섯 달을 지나고 있을 때[10] 죽으면
브라만을 아는 자들은 지고한 세계에 도달한다.

7 우주가 소멸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실재 차원이다 : 문자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소멸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8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세계로 : 문맥에 따라 역자가 덧붙인 구절이다.
9 이 지고한 영혼의 세계 : 문자적으로는 '이 가장 높은 푸루샤'.
10 태양이 낮이 긴 여섯 달을 지나고 있을 때 : 문자적으로는 '태양이 위쪽을 지나고 있는 여섯 달 (동안에)' 곧 태양이 북쪽 진로를 진행하는 여섯 달을 뜻한다.

하지만 연기, 어두움, 밤, 달이 기울어 어두워지고 있을 때,
태양이 밤이 긴 여섯 달을 지나고 있을 때[11] 죽으면
달빛이 비치는 길을 따라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26~28. 빛과 어둠의 이 두 길을 따라
어떤 영혼은 영원한 자유에 이르고
어떤 영혼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이 두 길을 아는 요가 수행자는 미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굳건한 요가 수행을 통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경전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순수한 행위,
제사를 드리고,
고행을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모든 행위가 헛된 것은 없다.
하지만 진정한 요가 수행자는
그 모든 것을 넘어
근원인 지고한 세계에 이를 것이다.

11 태양이 밤이 긴 여섯 달을 지나고 있을 때 : 문자적으로는 '태양이 오른쪽 진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인도에서는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오른 쪽을 남쪽이라고 한다. 이 구절은 밝음과 어두움, 또는 지혜와 무지를 대조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해설]

제 8 장 | 영원한 신성

이 장에는 힌두 신학의 여러 중요한 개념에 대한 간략한 가르침이 실려 있다. 시작 부분에서는 우파니샤드의 주제인 브라만, 아트만, 카르마, 야즈나 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간단하게 전개된다(1~4절). 이어서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하여야 해탈에 이르는지에 대한 비밀스러운 가르침과(5~16절), 우주의 생성과 소멸 주기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17~22절).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 영혼의 여행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다(23~28절).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들은 모두 《바가바드 기타》 시대 이전에 이미 체계가 잡힌 가르침인데, 《바가바드 기타》의 저자는 《우파니샤드》를 비롯한 고대의 경전들에 나오는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장은 아르주나의 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아르주나의 질문은 7장 마지막에서 크리슈나가 던진 화두 같은 말에서 비롯되었다. 거기서 크리슈나는 브라만과 아트만과 카르마와 물질 현상과 정신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했다. 아르주나는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묻는다(1~2절). 크리슈나의 대답은 브라만이 만물 안에 있으며 동시에 만물을 초월한 영원한 신성이며, 자기가 곧 브라만이라는 것이다(3~4절).

아르주나는 또 묻는다. 죽음의 순간 어떻게 당신과 하나가 되어 당신의 상태에 머물 수 있는가? 여기서 아르주나는 크리슈나를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우주적인 신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르주나가 묻고 있는 '크리슈나의 상태'란 참 자아를 깨달은 사람이 들어가는 영원불멸의 상태를 가리킨다. 크리슈나는 대답한다. 죽음의 순간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의 존재 상태에 이르게 된다(5절).

죽음 이후 영혼의 여행은 죽는 순간에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마지막 생각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 마음의 힘이 영혼을 끌고 간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에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죽는 순간에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란 결국 그가 살아오면서 줄곧 생각해오던 것이다. 가장 마음에 쓰이는 것이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마련이다. 마음을 돈에 가장 많이 쏟았으면 돈 생각이 날 것이고, 자식에

게 가장 많이 쏟았다면 마지막까지 자식 생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의 순간에 크리슈나를 기억하려면 평소에 늘 그를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크리슈나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5~8절).

크리슈나는 죽음의 순간에 의식을 정수리에 집중하고, 생명 에너지를 그곳으로 끌어올리라고 한다. 그러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다음 지고한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12~13절). 요기들 가운데는 이런 식의 죽음 훈련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훈련을 통해 죽음과 사후 세계와 환생의 과정을 낱낱이 체험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경우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티베트 사자의 서》이다. 물론 《티베트 사자의 서》는 후대의 책이지만, 죽음과 죽음 이후 영혼의 여행과 환생에 대한 《티베트 사자의 서》의 내용이 여기서 크리슈나가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과 같다. 파탄잘리도 《요가수트라》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죽을 수 있는 훈련을 언급하고 있다. 《브리하드 우파니샤드》에도 죽음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온다.

죽음의 과정은 의식이 감각기관에서 떠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의식이 감각기관에서 떠나면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냄새 맡을 수 없다. 의식은 또렷하게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9개의 문(입, 콧구멍 둘, 두 귀, 두 눈, 생식기, 항문)을 통해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의식이 빠져 나가는 문을 배꼽과 정수리 숨구멍을 더하여 11개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한다. 의식이 감각기관의 문을 통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감각기관을 닫고, 마음을 가슴 안으로 모아들여라. 이 말은 아마 마음을 심장 차크라에 고정시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런 다음 밖으로 향하던 생명의 기운(프라나)을 안으로 돌려 정수리로 끌어올려라. 생명의 기운은 의식을 집중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식을 정수리에 집중하여 생명의 기운을 그곳으로 끌어올려라(12절). 생명의 기운이 다른 감각기관이 아니라 정수리에 있는 브라만 구멍(브라마란드라)를 통해 빠져나가면 육체에서 벗어난 다음 지고한 경지에 도달한다(13절).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14~16절).

크리슈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평소에 집중하는 훈련과 생명의 기운을 조절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파니샤드》는 생명의 기운이 다른 문으로 빠

져나가면 지고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 몸을 떠날 때, 성스러운 모음 ‘옴(AUM)’을 소리 내어 반복하면서 태양의 빛줄기를 따라 올라가라. 자신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마자 태양에 도달할 것이다. 거기가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다. 아는 사람은 들어가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춘다.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심장에서 101개의 미묘한 길이 뻗어 나온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정수리로 곧장 올라간다.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 다른 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찬도가 우파니샤드》 8:6:5~6)
《바가바드 기타》도 육체를 떠날 때 성스러운 모음 ‘옴’을 반복해서 읊으라고 한다. 거기에 더하여 오직 크리슈나만을 생각하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지고한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크리슈나의 가르침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지고한 존재와 신비한 합일을 이룬 사마디 상태에서 육체를 떠나라는 것이다. 꼭 죽기 전이라도, 평소에 이런 합일 상태에 도달한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분리의식에서 비롯되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다(14~15절).
크리슈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두 길을 언급한다. 하나는 빛의 길인 북쪽 길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의 길인 남쪽 길이다. 북쪽 길과 남쪽 길은 태양의 진로를 가리킨다. 태양은 동지가 지나면 북쪽으로 기울고 하지가 지나면 남쪽으로 기운다. 북쪽 길을 따라가면 지고한 세계에 이르고, 남쪽 길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24~25절). 이 두 길은 깨달음과 무지의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 태양이 북쪽 진로를 따라가는 동안에는 낮이 길다. 그래서 북쪽 길은 밝음 또는 깨달음의 상징이다. 태양이 남쪽 진로를 따라가는 동안에는 밤이 길다. 그래서 남쪽 길은 어둠 또는 무지의 상징이다(26절). 결국 크리슈나의 말은 깨달아서 영혼이 밝은 길을 가면 영원한 자유에 이르고, 깨닫지 못하여 영혼이 어두운 길을 가면 고통스러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크리슈나는 브라마의 낮과 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한다(17~19절). 브라마는 힌두교 삼위일체－창조자 브라마, 유지자 비슈누, 파괴자 시바－를 구성하고 있는

신이다. 낮과 밤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처럼, 이 우주도 창조와 해체를 영원히 반복한다. 브라마의 날이 밝으면 존재들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낮이 다 가고 밤이 오면 존재들은 해체되어 사라진다. 브라마도 활동을 쉰다. 브라마의 밤 동안에는 만물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근본 질료인 프라크리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브라마의 낮과 밤의 길이는 같다. 그것을 칼파(kalpa, 겁)라고 하는데, 1칼파는 대략 43억 2천만 년이다. 브라마의 낮 동안 세상은 사차 유가, 트레타 유가, 드바파라 유가, 칼리 유가라는 4시대를 1천 번 반복한다. 네 유가의 주기는 432만 년이며, 이 주기가 1천 번 반복하는 시간인 1칼파인 43억 2천만 년이 브라마의 하루 낮이다. 브라마의 밤도 낮과 길이가 같다. 물론 이런 시간 계산을 영원한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도 있다.

크리슈나가 브라마의 낮과 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브라마의 낮과 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보다는 존재들이 생성과 소멸을 무한히 반복하지만, 생성과 소멸을 초월한 영원한 차원이 있으며, 거기가 크리슈나의 세계이고, 모두의 고향이며, 이 세계를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은 생사윤회(生死輪廻)의 세계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20~21절).

위대한 지혜와 비밀

제 9 장 | 위대한 지혜와 비밀

크리슈나 :

1. 그대는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장 깊은 비밀을 알려주고자 한다.
내가 알려주는 지혜와 통찰을 얻으면
그대는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1] 벗어나리라.

2~3. 이 비밀스러운 지혜는
모든 지혜의 왕이며 최고의 정화 도구이다.
이 영원한 지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확하다.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으며,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아르주나여,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길로 되돌아온다.

4~6. 온 우주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나에게서 나왔다.
모든 존재가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2]
나의 이 장엄한 신비를 깨닫도록 하라.

1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 문자적으로는 '악에서' 또는 '불순함에서'.

2　나는 그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 문자적으로는 '나는 그들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모든 것이 무형의 신성에서 비롯되었고, 모든 존재 속에 무형의 신성이 깃들어 있지만 유형의 존재로는 무형의 신성을 규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내가 만물을 생성하고 유지하지만
나의 본성이 그들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바람이 이리저리 불지만 언제나 허공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7. 우주적인 한 주기[3]가 끝나면
모든 존재는 내 안으로 흡수되어 사라진다.
그 후 또 다른 주기가 시작되면
나는 그들을 다시 현상 세계로 내보낸다.

8~9. 나의 외적인 본성의 법칙에 따라
만물의 생성과 소멸이 계속되고,
나의 외적인 본성의 법칙[4]이 그것들을 지배한다.
하지만 아르주나여,
나는 생성과 소멸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것들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생성과 소멸에[5] 집착하지 않고,
영원히 초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10. 아르주나여,
나는 나의 외적인 본성이 활동하여
살아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산출해 내는 것을

3 우주적인 한 주기 : '한 칼파' 곧 '한 겁'의 번역이다.
4 외적인 본성의 법칙 : '프라크리티'의 번역이다. '물질적인 본성'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5 생성과 소멸에 : '외적인 본성의 행위에'로 옮길 수도 있다.

집착 없이 바라보는 목격자이다.
세상은 이렇게,
나의 외적인 본성의 행위와
그것이 산출해 내는 것을 초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나로 인하여
돌아가고 있다.

11~12.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나의 외적인 모습 배후에 있는 나의 진정한 모습,
곧 만물의 주(主)인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보이는 현상에 미혹된 사람들의 지식은 공허하다.
그들은 본성의 악마적인 상태[6]에 머물면서
헛된 것을 추구한다.
그들의 행위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13~14. 그러나 진실로 위대한 영혼은
내가 만물의 영원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본성의 신성한 상태에 머물면서 한마음으로 나를 섬긴다.
굳은 의지로 서원을 지키려고 늘 애쓰면서
흔들림 없이 나를 섬긴다.
그들은 나를 찬양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나에게 바친다.

15. 지혜의 길을 통해
나에게 오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내가 '유일자'이자 '다양한 현상'이라는 것을 안다.

6 본성의 악마적인 상태 : 프라크리티 곧 현상 차원에서 활동하는 브라만의 본성에 두 가지 상태가 있다. 에고의식에서 비롯되는 분별심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와 모든 것이 같은 근원을 지니고 있다는 하나임 의식 상태가 그것이다. '본성의 악마적인 상태'란 분별심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나임 의식 상태는 13절에서 언급되는 '본성의 신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얼굴을 본다.

16. 나는 제사 의식이다.
나는 제사의 목적이다.
나는 제단에 바치는 공물이다.
나는 제사에 사용되는 약초다.
나는 제사드릴 때 음송하는 주문이다.
나는 제단에 붓는 술이다.
나는 제단에 바치는 버터이며,
그것을 태우는 불이다.

17. 나는 이 세상 전체를 유지하는 부양자이다.
나는 이 세상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할아버지이다.
나는 모든 앎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나는 정화하는 자이며 성스러운 음절 '옴'이다.
나는 성스러운 경전,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이다.

18. 나는 삶의 목표이다.
나는 만물의 부양자이며 그들의 위대한 주(主)이다.
나는 내면에서 지켜보는 자이다.
나는 만물의 거주처이며 피난처이다.
나는 만물의 참된 친구다.
나는 만물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다.
나는 만물이 태어나는 자궁[7]이며,
만물의 영원한 씨앗이다.

7 만물이 태어나는 자궁 : 문자적으로는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집'.

19. 내가 태양의 열을 주는 자이며,
가뭄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는 자이다.
아르주나여,
나는 불멸이고 죽음이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모두 나이다.

20~21. 경전의 가르침을 따르며
제사를 드리고 제주(祭酒)를 마시며 나를 섬기는 사람들은
죄악을 씻고 신들의 세계에 태어난다.
그들은 거기에서 천상의 기쁨을 누린다.
그러나 그들이 쌓은 공덕이 다하여 천상의 기쁨이 끝나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경전의 가르침만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22. 나는 오로지 한 생각으로 나만 섬기고,
언제 어디서나 나만 생각하는 집중이 흩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23~25. 아르주나여,
믿음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간접적이기는 하지만[8] 결국은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모든 제사를 받는 주(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지 못한 그들은

8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 문자적으로는 '규율에 따라 섬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신들의 세계로 갈 것이다.
조상을 섬기는 사람은 조상들이 있는 세계로 갈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들의 세계로 갈 것이다.
하지만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에게 올 것이다.

26. 나뭇잎 한 장,
꽃 한 송이,
과일 한 조각,
물 한 그릇을 나에게 바치더라도
가슴을 다하여 바치면
나는 순수한 영혼의 그 제물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27~28.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그대의 모든 행위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도록 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바치든지,
무엇을 베풀든지,
또는 무슨 수행을 하든지,
그대의 모든 행위를
나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라.
그러면 그대는 행위의 결과에서 벗어나리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악의 업보에서 벗어나리라.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완전한 포기를 통해[9]

9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완전한 포기를 통해 : 문자적으로는 '포기의 요가를 수행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얻고 나에게 오게 되리라.

29. 나는 만물을 평등하게 본다.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할 것이며,
나도 그들 안에 거할 것이다.

30~31. 아주 악한 사람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에게 헌신하면
모든 죄악에서 풀려나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살면서
한없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르주나여,
이 점을 잊지 마라.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10]

32~33. 아르주나여,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더라도
나에게 귀의하는 사람은
이생에서 가장 높은 목표에 이를 것이다.
바이샤나 심지어 수드라처럼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하물며 덕 있는 왕족과 경건한 현자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왕 덧없고 불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태어난 마당에

10 불행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 문자적으로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34. 아르주나여,
그대의 마음을 나로 채우라.
항상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겨라.
나를 지고한 목표로 삼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오게 되리라.

[해설]

제 9 장 | 위대한 지혜와 비밀

이 장은 크리슈나를 만물을 창조하고 자신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 머물고 있는 지고한 존재로 찬양한다. 저자는 크리슈나의 뛰어남과, 그는 모든 존재들 속에 머물고 있지만 현상적인 존재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적인 능력이 인격화된 모습들이다. 그런데 크리슈나는 그 모든 신들의 종합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신을 숭배하지만 그 숭배는 결국 크리슈나를 향한 것이다. 크리슈나가 삶의 목표이며, 이 세상을 유지하는 부양자이며, 유일한 귀의처이고, 유일한 친구이다. 그는 만물의 알파요 오메가이다(15~19절).

《베다》가 지시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신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천상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천상의 복락이 끝나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신을 섬기는 행위가 에고 중심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는 동안에는 아무리 《베다》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다고 해도 이 세상에 거듭 태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20~21절). 물론 이렇게 거듭 태어나는 가운데 영적으로 아주 조금씩 진보하다가 어느 때엔가는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크리슈나는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마지막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한다.

고뇌하는 영혼이 끝없이 환생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종의 저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고한 존재를 깨닫고 그와 하나 되어 그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다. 영혼은 이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거듭 태어나면서 자신을 정화해 나간다. 과거에 쌓은 행위의 결과를 모두 씻어내기까지는 여러 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깨달음과 영원에 이르는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따라서 환생을 저주가 아니라 기회와 축복으로 보아야 하리라.

《바가바드 기타》는 냉엄한 환생의 법칙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크리슈

나는 자신의 자비로운 성품을 밝히기 시작한다. 크리슈나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바치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목적이 배제된 진실한 마음을 바치는 것이다. 이런 헌신을 산스크리트어로 '박티'라고 한다. 박티는 가장 강렬한 사랑이며 가장 깊은 헌신이다. 모든 종교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종교심이다. 《바가바드 기타》에는 박티에 대한 강조가 여러 번 나온다. 그러나 크리슈나에 대한 참다운 이해가 없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혜의 길과 헌신의 길은 두 길이 아니다. 크리슈나를 우주적인 신성으로 이해하고, 모든 행위를 그에게 바치는 제물로 여기는 헌신을 할 때, 마지막에는 크리슈나의 차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28절).
이 장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그대의 모든 행위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도록 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바치든지,
무엇을 베풀든지,
또는 무슨 수행을 하든지
그대의 모든 행위를
나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라."(27절)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행위를 신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행위가 다음 행위를 낳는 카르마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 경우 자기는 행위자가 아니다. 신의 뜻에 따라 행위가 일어날 뿐이다. 모든 것을 신께 바치는 제물로 여기는 사람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욕망이 없다. 그러므로 행위와 행위의 결과에 속박되지 않는다. 지금 일어나는 행위는 과거에 쌓은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행위가 더 이상 다음 행위의 원인

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쌓여 있던 원인들이 하나씩 소멸되어 감과 동시에 더 이상 원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모든 카르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크리슈나의 지고한 차원에 이르게 된다(28절).

크리슈나는 자기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한다고 선언한다(29절). 크리슈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크리슈나 안에 거할 것이며, 크리슈나 또한 그들 안에 거할 것이다. 심지어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도 크리슈나에게 귀의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 된다(30절). 참고로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사두'의 번역이다. 지금은 '사두'가 다른 사람을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원래의 말뜻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듯 크리슈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거나 누구를 더 미워하지 않는다. 문제는 누가 크리슈나를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하느냐이다. 신은 모든 땅에 골고루 비를 내려주지만, 어떤 밭은 곡식을 내고 어떤 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곡식을 내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는 땅에 달려 있는 것이다.

크리슈나는 자기에게 귀의하는 사람은 이생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크리슈나를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31절). 여기서 불행이란 영적으로 처참한 상태를 뜻한다. 이 장에는 복잡한 철학적 주제가 없다. 이 장이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만물을 창조하고 자신이 창조한 만물 속에 머물고 있는 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신의광채

제 10 장 | 신의 광채

크리슈나 :

1. 아르주나여,
나의 지고한 가르침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이도록 하라.
강한 팔을 지닌 전사여,
사랑하는 그대의 행복을 위하여 내 더 많은 것을 말해 주리라.

2~3. 신들과 현자들도 나의 기원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기원이기 때문이다.
나를 태어나지도 않고 시작도 없는 자,
세계의 대주재자로 아는 사람은
미혹에서 벗어나 모든 악에서 해방된다.

4~5. 분별과 지혜와 이해,
용서와 진실과 절제,
평온함과 즐거움과 괴로움,
태어남과 죽음, 두려움과 용기,
명예와 불명예, 비폭력과 자비와 공평함,
자족함과 영적인 수행 등
존재들의 각기 다른 이런 특성들은 모두
오직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6~7. 일곱 명의 현자들[1]과 인류의 조상들[2]도
내 마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생명을 받아 태어났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의 능력과 신비를 아는 사람은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나에게 온전히 헌신하여[3]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8~9. 나는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온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은 생각을 나에게만 몰두하고,
온 힘을[4] 나에게 쏟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만물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며,
늘 만족하며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

10~11. 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헌신하면
내가 합일에 이르는 지혜[5]를 줄 것이다.

1 일곱 명의 현자들 : 《베다》에 나오는 일곱 명의 전설적인 현자를 가리킨다. 이 말이 때에 따라서는 작은곰자리에 있는 일곱별을 가리키기도 한다.
2 인류의 조상들 : 문자적으로는 '네 명의 마누'인데, 마누는 태양신 비바스바트가 낳은 최초의 인간 아들이다. '마누'는 구약성서의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비바스바트에게는 14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전승과 4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등 다양한 전승이 있는데, 여기서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전승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나에게 온전히 헌신하여 : 문자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요가로'.
4 온 힘을 : 숨, 생명의 기운을 뜻하는 '프라나'의 번역이다.
5 합일에 이르는 지혜 : '붓디 요가'의 번역이다. '붓디'는 초월적인 마음 또는 초월적인 마음의 식별력을

그러면 그대는 그 지혜를 통해
나에게 올 수 있으리라.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나는 그대의 가슴속에 머물면서
그대에게 지혜의 빛을 줄 것이다.
내가 주는 지혜의 빛으로
그대의 무지의 어둠은 부서질 것이다.

아르주나 :
12~13. 당신은 지고한 브라만이요 궁극적인 거주처입니다.
당신은 무지를 멸하는 영원한 신적인 정신[6]입니다.
당신은 신들의 머리가 되는 이며,
태어나지도 않은 무한한 분입니다.
모든 현자들이 당신을 그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다, 아시타, 데발라, 뱌사하 같은 성인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14~15. 오 크리슈나여,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신들이나 악마들조차도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 지고한 정신[7]이시여,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일컫는다.
6 신적인 정신 : '푸루샤'의 번역이다.
7 정신 : '푸루샤'의 번역이다.

만물을 주관하는 주재자이십니다.
당신은 신들의 신이시며,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16~17. 당신만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신적인 본질을,
우주를 가득 채우고 그 안에 머물고 계신 당신의,
스스로를 드러내는 신적인 현현(顯現)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씀해 주십시오.

17~18. 크리슈나여,
당신은 요가의 주(主)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여야
언제 어디서나 당신만 생각할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어떤 모습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 크리슈나여,
당신의 신비한 능력과 무한한 현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르침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듣고 들어도 더 듣고 싶습니다.

크리슈나 :
19. 좋다.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신적인 현현에 대해서 말해 주겠다.
그러나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 말해 주겠다.

20. 나는 모든 존재의 중심에 있는[8] 참 자아 아트만이다.
나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다.

21. 나는 천상의 신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비슈누이다.
나는 빛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태양이다.
나는 바람의 신들 가운데 폭풍의 신인 마리치이다.
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뭇별들 가운데 달이다.

22. 나는 모든 경전 가운데 베다의 찬가[9]이다.
나는 신들 가운데 그들의 우두머리인 인드라이다.
나는 감각의 주인인 마음이다.
나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의 의식(意識)이다.

23. 나는 무서운 신 루드라 가운데 상카라[10]이다.
나는 자연을 지배하는 신과 영들 가운데 풍요의 신 비테사이다.
나는 정화하는 불 가운데 있는 불의 신 파바카[11]이다.
나는 산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이 솟은 메루산[12]이다.

24. 나는 사제들의 우두머리인 브리하스파티이다.
나는 제사의 주(主)인 프리타이다.
나는 군대 장군들을 지휘하는 전쟁의 신 스칸다이다.
나는 호수의 으뜸인 바다이다.

8 중심에 있는 : '가슴에 머물고 있는' 또는 '심장에 머물고 있는'으로 옮길 수도 있다.
9 찬가 : 찬가로 이루어진 '사마 베다'의 번역이다.
10 상카라 : 생식과 다산 그리고 파괴를 관장하는 '시바'의 다른 이름이다.
11 파바카 : 불의 신 '아그니'의 다른 이름이다.
12 메루산 : 세상의 중심이 있으며, 신들이 내려와 머무는 산.

25. 현자들 가운데 현자인 브리구이다.
나는 모든 말〔言〕 가운데 성스러운 음절 '옴'이다.
나는 제사 드릴 때 반복해서 읊는 거룩한 신의 이름이다.
나는 우뚝 서 있는 것들 가운데 으뜸인 히말라야이다.

26. 나는 나무 가운데서 성스러운 무화과나무이다.
나는 성인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성인 나라다이다.
나는 음악의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치타라타[13]이다.
나는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서 카필라[14]이다.

27. 나는 말〔馬〕 가운데서 태양신의 마차를 끄는 우차이스라바이다.
나는 코끼리 가운데서 인드라가 타고 다니는 아이라바타이다.
나는 인간들 가운데서 제왕이다.

28. 나는 무기 가운데 인드라의 무기 바즈라이다.
나는 소〔牛〕 가운에 소원을 이루어주는 카마두크이다.
나는 생식을 주관하는 사랑의 신 칸다르파[15]이다.
나는 뱀들 가운데 뱀들의 왕 바수키이다.

29. 나는 용(龍) 가운데서 우두머리인 아난타이다.
나는 물에 사는 것들 가운데 물의 신 바루나이다.
나는 옛 조상들 중에 최초의 조상인 아리야만이다.
나는 정복자 중에 최고의 정복자인 죽음의 신 야마이다.

13 치타라타 : 천상에서 음악을 관장하고 있는 '간다르바' 가운데 우두머리. 간다르바는 한자로 건달바(乾達婆)라고 음역되었는데, 이 말에서 하는 일 없이 건들거리는 사람을 일컫는 '건달(乾達)'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14 카필라 : 인도의 가장 오래된 철학 가운데 하나인 상키야 철학 학파를 설립한 현자.
15 칸다르파 : 사랑과 성욕을 관장하는 신. 다른 이름은 '카마'이다.

30. 나는 짐승 무리 가운데 백수의 제왕인 사자이다.
나는 새들 가운데 으뜸인 독수리 가루다이다.
나는 아수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프라흘라다이다.
나는 모든 헤아림 가운데 헤아림의 토대인 시간이다.

31. 나는 정화하는 힘 가운데서 바람이다.
나는 전사들 중에 전사 라마이다.
나는 물고기 가운데 괴물인 마카라이다.
나는 모든 강 가운데 가장 성스러운 갠지스 강이다.

32. 나는 모든 존재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다.
나는 모든 지식 가운데 지고한 아트만에 관한 앎이다.
나는 모든 논쟁 가운데 논쟁의 핵심인 논리이다.

33. 나는 문자 가운데 첫 글자인 아(A)이다.
나는 낱말이 동등하게 합쳐진 병렬복합어이다.
나는 무한한 시간이다.
나는 수많은 얼굴로 모든 곳을 지켜보는 만물의 유지자이다.

34. 나는 모든 것을 끝내는 죽음이다.
나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것의 근원이다.
나는 명성, 행운, 말(言), 기억, 지혜, 고귀함,
그리고 용서와 같은 여성적인 성질이다.

35. 나는 베다의 찬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브리하트이다.
나는 시구 가운데 가장 성스러운 가야트리이다.
나는 열두 달 가운데 첫 달인 마르가쉬르샤이다.

나는 네 계절 가운데 꽃이 피는 봄이다.

36. 나는 사기꾼들이 벌이는 도박이다.
나는 빛나는 사람들의 찬란함이다.
나는 이긴 자의 분투와 승리이다.
나는 선한 사람의 선함이다.

37. 나는 브리쉬니 종족[16] 가운데 바수데바[17]이다.
나는 판두의 아들들 가운데 아르주나이다.
나는 성자들 가운데 으뜸인 뱌사하이다.
나는 시인들 가운데 위대한 시인 우샤나스이다.

38. 나는 징벌하는 자의 몽둥이다.
나는 승리를 원하는 자들의 비책(秘策)이다.
나는 알려지지 않는 것들의 침묵이며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다.

39. 아르주나여, 나는 모든 존재의 씨앗이다.
움직이는 존재나 움직이지 않는 모든 존재나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한다.

40~41. 아르주나여,
나의 신적인 현현(顯現)은 끝이 없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힘이나 아름다움이나 영적인 능력 등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16 브리쉬니 종족 : 크리슈나 자신의 종족이다.
17 바수데바 :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를 '바수데바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의 영광의 파편들이다.

42. 하지만 아르주나여,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있으며,
나의 한 부분으로도
온 우주가 가득 찰 수 있다는 것만 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해설]

제 10 장 | 신의 광채

크리슈나는 이제 더 깊은 자신의 신적인 본질을 밝히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다양한 현상 배후에 있는 유일한 실재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이원성을 초월한 궁극적인 실재이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괴로움, 태어남과 죽음, 두려움과 용기 등 존재들의 모든 특성이 크리슈나에서 비롯된다(2~5절).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브라만처럼, 크리슈나는 이원성과 이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머리로는 그의 진정한 본성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는 오직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이 하나가 되는 사마디 상태에서만 알 수 있다(10~11절).
아르주나는 크리슈나를 '푸루쇼트마'라고 부른다(15절). '푸루쇼트마'는 '지고한 (신적인) 정신'이라는 뜻이다. 아르주나는 이제 크리슈나를 전차몰이꾼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화신으로 인정하면서(13~14절), 전투에 직면하고 있는 전사(戰士)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구도자로 그 모습을 바꾼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신적인 능력과 본질의 일부분을 밝힌다.
19절부터는 힌두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가르침의 주제는 명확하다. 크리슈나가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며 알맹이〔본질〕라는 것이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름들은 힌두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전설적인 성자나 성스러운 땅이나 강의 이름이다. 그 가운데 비슈누, 베다, 인드라, 갠지스강, 히말라야 등 익숙한 이름도 많지만 대부분의 이름이 낯설다. 그들 가운데서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이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크리슈나는 모든 존재의 참 자아 아트만이다(20절). 구도자로 돌아선 아르주나는 현란하게 펼쳐지는 신성의 다양한 모습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크리슈나가 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르주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참 자아임을 일깨우는 말이 맨 먼저 나오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크리슈나는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자비로운 주(主) 비슈누이다(21절). 힌두 신앙에서 비슈누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죄악을 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시대마다 거듭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 크리슈나는 그런 비슈누의 화신이다.
크리슈나는 인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숭배하던 태양신이며(21절), 《베다》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의 우두머리인 인드라이다(22절). 인도 신화에서 인드라는 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천둥과 번개로 물리치는 폭풍과 전쟁의 신으로 나온다. 베다 시대에는 인드라가 가장 강력한 신이었다. 《베다》에서는 불의 신 아그니 다음으로 많은 찬양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크리슈나 신앙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후대의 신화에서 크리슈나는 인드라의 폭풍 같은 진노에서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자로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는 크리슈나 자신이 폭풍의 신 인드라라고 선언한다. 그는 아르주나가 이 말을 폭풍의 신 인드라도 크리슈나이고, 인드라의 진노에서 보호하는 수호자도 크리슈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크리슈나는 샹카라이다(23절). 샹카라는 시바의 다른 이름이며, 무서운 신 루드라의 또 다른 측면인 인정이 넘치는 성격을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크리슈나는 메루 산이다(23절). 신화에는 메루 산이 시바와 그를 따르는 신들이 살고 있는 산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세상의 중심으로 나온다. 한자로 수미산(須彌山)이라고 하는 산이 바로 이 산이다. 크리슈나는 모든 말 가운데서 가장 성스러운 음절 '옴'이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음송하는 신의 이름이다(25절). 크리슈나는 또 우주적인 바다가 영생 불사하는 감로수로 변하기 위해 휘저어질 때 거기서 태어난 말〔馬〕 우차이스라바이다(27절).
크리슈나는 우주적인 뱀 아난타이다(29절). 신화에는 비슈누가 아난타를 침대삼아 그 위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나온다. 크리슈나는 《베다》에 나오는 바다의 신 바루나이며, 죽음의 신 야마이다(29절). 가장 뛰어난 아수라인 프라흘라다도 크리슈나이다(30절). 신화에는 프라흘라다가 아수라 종족으로 태어났으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비슈누에 대한 신앙을 지킨 신앙의 표본으로 나온다. 아수라는 인간계 바로 위에 있는 영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인간 차원에서 진화해 올라간 존재들이다. 그러나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끊

임없이 경쟁하고 싸운다. 몹시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을 아수라장(阿修羅場)이라고 하는 것도 아수라의 세계가 경쟁과 싸움으로 늘 시끄럽다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크리슈나는 전설적인 전사 라마이다(31절). 라마는 왕자이자 위대한 전사였다. 그는 비슈누의 일곱 번째 화신이고, 크리슈나는 그 뒤를 이은 여덟 번째 화신이다. 라마의 영웅적인 행적은 불멸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크리슈나는 모든 지식 가운데서 가장 근본이 되는 참 자아에 대한 앎이다(32절). 인도 사람들은 경전을 배우기 위해서 산스크리트어와 그 문법을 익히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크리슈나도 그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모든 문자의 출발점인 알파벳 'A'라고 선언한다(33절). 그는 시구 가운데서 가장 성스러운 가야트리이다(35절). 가야트리는 《리그베다》에서 뽑은 기도문에 운율을 붙인 찬송이다. 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기도를 드렸으며, 지금도 드리고 있다.

크리슈나가 계절 가운데서 꽃피는 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35절). 그러나 자기가 사기꾼들이 벌이는 도박이라고 하는 말은(36절)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도박에 맛을 들인 사람은 모든 것을 잊고 거기에 빠진다. 도박의 특성은 몰두, 열정, 집중, 끝가지 해 보겠다는 집념 등이다. 크리슈나는 아마 도박의 이런 특성에 비유해서 자신의 속성을 은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이 스스로를 드러낸 것임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 세계에서는 크리슈나는 브리쉬니 종족의 왕자 바수데바이다(37절). 인도 고대 전승에 따르면 바수데바는 크리슈나의 아버지이다. 그러나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크리슈나를 바수데바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다. 고대 인도에는 바수데바를 섬기는 바가바타 종교가 있었다. 이것이 후에 크리슈나 신앙, 비슈누 신앙과 결합되어 크리슈나가 비슈누의 화신이며 그가 곧 바수데바라는 신앙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정에 근거해서 《바가바드 기타》는 원래 바수데바를 섬기던 바가바타 종교의 시편이었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크리슈나의 더 놀라운 말은 아르주나가 자기이며, 《바가바드 기타》의 저자인 뱌사하도 자기라는 것이다(37절). 결국 모든 존재가 자기이며, 자기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크리슈나는 강조한다. “나의 신적인 능력과 영광은 끝이 없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힘이나 아름다움이나 영적인 능력 등 그대가 발견하는 모든 것은 나의 영광의 파편들이다. 하지만 “아르주나여,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있으며, 나의 한 부분으로도 온 우주가 가득 찰 수 있다는 것만 알면 그것만으로도 그대의 앎은 충분하다.”(41~42절)

우주적인 비전

제 11 장 | 우주적인 비전

아르주나 :

1~2. 지고한 자아의 비밀에 대한 당신의 가르침으로
제 눈을 덮고 있던 환영(幻影)의 안개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모든 존재의 시작과 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연꽃 같은 눈을 가진 이여,
당신은 영원히 현존하는
당신 자신의 지고한 신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3~4. 오 크리슈나여,
영원한 신적인 정신이시여,
당신이 말씀하신 무한한 영광을
이제 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지고한 창조주인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요가의 주(主)이시여,
저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불멸의 자아를 보여 주소서.

크리슈나 :

5~7. 아르주나여, 보라.
수천수만 가지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무수한 나의 신적인 형상을.
아르주나여,
저 열두 태양신[1]을 보라.

1 열두 태양신 : 태양신 '아디티'의 열두 아들인 '아디티야스'의 번역이다.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신들[2]을 보라.
바람과 폭풍의 신[3]을 보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들의 놀라운 모습을 보라.
아르주나여,
온 세상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라.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대가 보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음을 보라.

8. 하지만 그대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에,
내가 그대에게 영적인 눈[4]을 열어 주리니
그 눈으로 나의 장엄한 능력을 보라.

산자야 :
9. 요가의 주(主)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한 다음
아르주나에게 자신의 장엄한 형상을 펼쳐 보였습니다.

10~11. 그는 갖가지 천상의 보석으로 장식한
수많은 얼굴을 가진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갖가지 무기를 들고 있는
온갖 기이한 모습으로 아르주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목에 두르고
빛나는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2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신들 : '바수스'의 번역이다. '바수스'는 인드라의 명령을 받아 물, 불, 바람 등 자연의 여러 가지 힘을 다스리는 여덟 명의 신이다.
3 바람과 폭풍의 신 : 모든 죄악을 날려버리는 '으르렁거리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인드라'와 폭풍의 신인 '마루츠'의 번역이다.
4 영적인 눈 : '신적인 눈' 또는 '하늘의 눈'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몸에서는 천상의 향기가 퍼져 나왔습니다.
크리슈나는 이렇게 자신의 무한한 신성을,
모든 기이한 것들의 근원이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르주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2. 크리슈나의 위대한 존재[5]의 광채는
마치 천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올라
빛을 발하고 있는 것처럼
찬란한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13~14. 그때 아르주나는 보았습니다.
신들의 신인 크리슈나 안에서,
온 우주가 하나의 상태에 머물면서
동시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르주나는 놀라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머리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주나 :
15. 오 주여,
저는 모든 신들과 뭇 존재들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창조주 브라마가
당신 안에서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5 위대한 존재 : '마하트마나스'의 번역이다. '위대한 자아' 또는 '위대한 영혼'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옛 현자들과 천상의 뱀들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16. 저는 지금 수많은 팔과 가슴을 가지고 있는,
무수한 얼굴과 눈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모든 곳에 있는
무한한 당신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 만유의 주이시여,
온 세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17. 당신은 왕관을 쓰고
무지를 부수는 방망이와
깨달음의 빛을 비추는 거울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당신에게서 눈부신 광채가 발산합니다.
도저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마치 수천 개의 이글거리는 태양이
동시에 빛을 내뿜는 것처럼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18. 당신은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실재요,
최고의 깨달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고한 목표입니다.
당신은 모든 피조물의 피난처이며,
진리의 영원한 수호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의 근원[6]임을 믿습니다.

6 모든 것의 근원 : 문자적으로는 '태고의 영(靈)'.

19. 당신은 시작도 없고 중간도 없으며 끝도 없습니다.
당신의 무한한 능력은 미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태양과 달이 당신의 눈이며,
당신의 입에서는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당신에게서 퍼져 나오는 광채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20. 오 주님이시여,
하늘과 땅이 당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섭고 놀라운 당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삼계(三界)가 전율하고 있습니다.

21. 모든 신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당신의 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들과 깨달은 자들이
당신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22. 루드라와 이디티야와 바수들,
사디야와 비쉬베데바와 아쉬빈들,
마루트와 우쉬마파와 간다르바들,
야크샤와 아수라와 싯다들,
이 모든 신들과 깨달은 자들이
놀라움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3. 오, 전능한 분이시여,
당신의 수많은 눈과 입과 무시무시한 이빨을 보며,
당신의 수많은 팔과 다리와 가슴을 보며,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 또한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24. 오 비슈누시여,
당신의 빛을 내뿜는 눈과 크게 벌린 입,
그리고 온갖 색깔의 광채를 발하며
하늘 끝까지 닿아있는 당신의 거대한 몸을 보면서
저의 심장이 두려움에 요동을 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도저히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25. 당신의 크게 벌어진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세상을 집어 삼킬듯한 불길을 보면서,
또 무시무시하게 생긴 송곳니를 보면서
저는 혼이 빠져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온 우주를 유지하는[7] 주님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26~29. 트리타라슈트라 왕의 아들들과,
비스마와 드로나와 카르나와,
우리 편 군대의 전사들과 모든 장수들이
당신의 입 속으로 빨려들어 가면서
무시무시한 송곳니에 으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듯이

7 온 우주를 유지하는 : 문자적으로는 '우주의 집'.

이 땅의 모든 전사들이
불길이 솟는 당신의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나방이 죽음을 향하여
불길 속으로 날아들듯이,
모든 존재가 자신의 파멸을 향하여
당신의 입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30. 당신은 불타는 거대한 입으로
온 세상을 삼켜버립니다.
오, 비슈누시여,
당신이 뿜어내는 무시무시한 불길이
온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31. 오, 주님이시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난 당신이 누구인지.
엎드려 비노니,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한
당신이 누구인지[8]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크리슈나 :
32. 나는 만물의 파괴자 시간이다.
나는 세상을 집어삼키는 자이다.
그대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의 모든 전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절할 것이다.

8 당신이 누구인지 : '당신이 하시는 일을'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33. 그러니 아르주나여, 일어나 싸우라.
적군을 물리치고 옛 왕국의 영광을 되찾으라.
적군의 전사들은 이미 내가 죽였다.
이 싸움에서 그대는 단지
나의 손에 들려진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34. 비스마, 드로나, 자야드라타, 카르나,
그리고 다른 모든 적군의 전사들은
이미 나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대는 나가서
이미 내가 죽인 그들을 죽이도록 하라.
주저하지 말고 나가 싸워라.
승리는 이미 그대의 것이다.

산자야 :
35.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의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주나 :
36. 오 크리슈나여,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에
온 세상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악마의 무리는 겁에 질려 사방으로 달아나고
성자와 현인들은 당신께 경배합니다.

37. 오, 위대한 영혼이시여,
어찌 당신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창조자 브라마보다 먼저 존재하는
항상 현존하는 영원한 분입니다.
당신은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존재 온 우주의 집입니다.
당신은 존재이며 비존재입니다.
아니, 당신은
존재와 비존재의 이원성을 초월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멸자입니다.

38. 당신은 시간을 초월한 원초적인 신이며,
온 우주의 근원[9]입니다.
알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당신이며,
그것을 아는 자도 당신입니다.
당신 안에 온 세상이 있으며,
온 세상의 모든 형상이 다 당신입니다.

39. 당신은 바람의 신 바유입니다.
당신은 죽음의 신 야마입니다.
당신은 불의 신 아그니입니다.
당신은 물의 신 바루나입니다.
당신은 달이며, 창조자 브라마[10]입니다.
당신은 모든 존재의 최초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또 경배합니다.

9 온 우주의 근원 : '푸루샤 푸라나스'의 번역이다. 문자적인 뜻은 '태고의 정신' 또는 '태고의 영혼'이다.
10 브라마 : '프라자파티'의 번역이다. '프라자파티'는 창조자 브라마의 열 명의 아들이다.

40. 앞을 향해 당신께 절합니다.
뒤를 향해 당신께 절합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방을 향해 당신께 절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존재 속에 충만하게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41~42. 저는 당신을 그냥 친구정도로만 알았습니다.
때로는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같이 앉아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오 크리슈나여,
불멸자인 당신의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께 보인 이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43~44. 당신은 온 세상의 아버지입니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온 세상에 당신과 견줄 자가 없습니다.
삼계(三界)에 당신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오, 은혜로우신 주님이시여,
엎드려 청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용서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을 용서하듯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6.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두려워 떨립니다.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집이시여,
은총을 베푸시어 부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광채를 발하는 신들의 신의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비록 온 세상이 다 당신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천 개의 팔을 지닌 무서운 형상의 당신보다는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죄악을 쳐부수는 방망이와
무지를 일깨우는 거울을 들고 있는
당신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크리슈나 :
47. 아르주나여,
그대는 나의 은총으로
내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지고한 형상을 보았다.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나의 빛나는 우주적인 모습을 보았다.

48~49. 경전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제물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자비를 많이 베풀고 뼈를 깎는 고행과 금욕을 해도,
그대가 본 나의 모습은 볼 수 없다.
오직 그대만이 나의 영적인 비전을 보았다.
오, 용감한 전사 아르주나여,

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 하지 마라.
이제 나의 무서운 모습을 거둘 것이니
마음을 편안히 갖도록 하라.

산자야 :
50.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한 다음
자애롭고 멋진 이전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르주나를 위로하고 안정시켰습니다.

아르주나 :
51. 오 크리슈나여,
인간의 형상으로 돌아온 부드러운 당신의 모습을 보니
이제야 저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크리슈나 :
52~53. 그대가 본 것과 같은 비전을 보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신들조차도
그대가 본 것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다.
경전 탐구를 통해서도
고행과 금욕과 보시를 통해서도
그리고 제사나 종교의식을 통해서도
그대가 본 것과 같은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한다.

54~55. 아르주나여,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만
나와 하나 될 수 있고,

나를 알고 나를 볼 수 있다.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나를 의지해서 나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원적인 대립을 벗어나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갖지 않는 사람만이

나의 존재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된다.

[해설]

제 11 장 | 우주적인 비전

아르주나는 앞 장에서 크리슈나의 신적인 본질에 대한 말을 들었다. 아르주나는 이제 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준다. 1장에 등장하는 아르주나는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전사였다. 크리슈나는 그런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서 자신이 누구이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었다(1절).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의 신적인 본성과 그 본성이 곧 자신의 참 자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슴속에서 크리슈나와 합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아르주나는 신적인 능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3~4절). 아르주나는 머리로 이해한 진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는 크리슈나와 합일을 이루려면 그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과연 마음속에 어떤 모습의 크리슈나를 상상하면서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었을 것이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르주나를 사마디 상태로 끌고 들어간다(47절). 아르주나는 사마디 상태에서 크리슈나의 장엄한 형상을 본다(9~13절). 사마디란 일상적인 의식의 흐름이 끊어지고 더 깊은 의식만 깨어 있는 상태로서, 요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초월적인 의식 상태 또는 변성 의식 상태이다. 파탄잘리는 《요가수트라》에서 여러 단계의 사마디에 대해 설명한다. 사마디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마디가 아니다. 초보적인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영원 속으로 완전히 녹아 들어간다. 아르주나도 초보 단계의 사마디에서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크리슈나를 본다(10~12절). 그러나 더 깊은 사마디로 들어가면서, 모든 존재들이 크리슈나 안에 있는 기이하고 장엄한 광경을 본다(15~16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 크리슈나가 뿜어내는 불길에 소멸되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본다(30절).
크리슈나의 모습은 마치 천 개의 태양이 일시에 비치는 것처럼 찬란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아르주나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부셨다(12절). 아르주나

는 크리슈나 안에서 온 우주가 하나의 상태에 머물면서, 동시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 크리슈나를 찬양한다(15~22절). 아르주나는 이제 크리슈나를 비슈누라고 찬양한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손에 방망이와 원반을 들고 있는 형상은 비슈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17절).

아르주나는 점점 더 강렬한 비전 속으로 빨려들어 가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23절). 그는 크리슈나가 내뿜는 불길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광경을 보며 두려움에 떤다(25, 30절). 아르주나는 전쟁을 위해 집결한 모든 전사와 장수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26~28절). 부나방이 죽음을 향하여 불길 속으로 날아들듯이, 모든 존재가 자신의 파멸을 향하여 크리슈나의 크게 벌린 입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광경도 본다(29절). 공포에 휩싸인 아르주나는 자기가 알고 있던 크리슈나와 지금 보고 있는 무시무시한 모습의 크리슈나를 어떻게 동일시해야 될지를 몰라서 묻는다. “이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난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31절)

32절은 ‘당신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크리슈나의 답변이다. 크리슈나는 자기는 만물을 파괴하는 ‘시간’이라고 한다. 만물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 소멸한다. 시작도 없고 끝이 영원히 흐르는 시간이야말로 크리슈나의 신적인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일 것이다. 크리슈나가 자기를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의 영원성 앞에서는 모든 현상적인 존재가 덧없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리라.

아르주나는 용감한 전사로서 강심장의 소유자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본 것과 같은 비전을 보고 정신을 잃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주적인 장엄한 비전을 본 아르주나는 크리슈나를 찬양하면서(36~40절) 용서를 빈다(41~44절). 크리슈나의 신성한 차원을 깨닫지 못하고 친구나 전차몰이꾼 정도로 여긴 나머지 소홀하게 대했거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는 것이다. 이 말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크리슈나는 자신이 우주적인 존재이며, 모든 존재 속에 자기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용서를 비는 대상이 크리슈나에서 모든 존재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르주나의 말은 모든 사람 모든 존

재가 성스러운 신의 나타남인 줄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미워하고 싸우고 자기 욕심대로 이용한 것을 용서해 달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르주나는 사마디 상태에서 크리슈나의 밝고 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깊은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찬양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모습의 크리슈나를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이전의 자애로운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고 간청한다. (45~46절).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간청을 받아들여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아르주나에게 말한다. "그대가 본 것과 같은 비전을 보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신들조차도 그대가 본 것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다.……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만 나와 하나 될 수 있고, 나를 알고 나를 볼 수 있다. 나를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원적인 대립을 벗어나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갖지 않는 사람은 나의 존재 속으로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된다."(52~55절)

헌신의 길

제 12 장 | 헌신의 길

아르주나 :

1.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께 완전히 헌신하는 박티 요가 수행자와
당신을 무형(無形)의 영원한 실재로 여기고
정신적으로 당신을 찾는 갸나 요가 수행자 중에
누가 더 흔들리지 않는 합일의 길을 가는 것인지요?[1]

크리슈나 :

2. 순수한 믿음으로 마음을 나에게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요가 곧 가장 완벽한 합일의 길이다.

3~5. 그러나 감각기관과 마음을 제어하면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초월적인 실재를 찾으며,
선악미추(善惡美醜)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여기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갸나 요가 수행자들 역시 나에게 이른다.
하지만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실재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집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1 누가 더 흔들리지 않는 합일의 길을 가는 것인지요? : 문자적으로는 '누가 요가를 가장 잘 아는 것인지요?'

6~7. 그러나 나만을 목표로 삼고
모든 행위를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여기는 사람,
한마음으로[2] 나를 명상하며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바다를 쉽게 건널 수 있다.

8.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그대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나에게 몰두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토록
나와 하나인 상태에 머물 것이다.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9. 그러나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규칙적인 요가 수행을 하도록 하라.

10~11. 규칙적인 수행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대 자신을 내 대신 행위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행위를 통해서도 그대는 완성에 이를 수 있다.

12. 기계적인 훈련보다는 지혜의 탐구가 낫고,
지혜의 탐구보다는 명상에 몰입하는 것[3]이 나으며,

2 한마음으로 : 문자적으로는 '흩어짐 없는 요가로'.
3 명상에 몰입하는 것 : 한자로 '선정(禪定)'이라고 쓰는 '디야나'의 번역이다. '디야나'는 파탄잘리의 《요

명상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포기가 훨씬 낫다.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 하는 자는
즉시 평화를 얻는다.

13~14. 나는 아무도, 또 그 어떤 존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품지 않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며,
고통과 기쁨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나 만족하며,
자신을 제어하고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마음과 생각 전체를 기울여
나에게 몰두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다.

15. 이런 사람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며,
세상 또한 이런 사람을 흔들지 못한다.
기쁨, 경쟁심,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멀리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 역시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가수트라》에 정리되어 있는 요가의 8단계 가운데 7번째 단계에 해당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대상을 향해 흐르는 의식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를 넘어가면 대상의 본성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그 자체가 스스로 빛나는 상태인 '사마디〔三昧〕'가 온다.

16.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순수한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욕망 없이 행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자기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 없이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17. 나는 즐겁다고 좇아가지 않고
괴롭다고 피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무엇이 오고 가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나에게만 마음을 향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18~19. 나는 원수와 친구를 동등하게 대하며,
존경과 멸시, 추위와 더위, 즐거움과 괴로움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칭찬과 비난에 초연한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말없이,
어떤 상황이라도 만족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고향이나 거주처에 대한 집착 없이
어느 곳에서나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나만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20. 그러나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말한 이 영원한 진리에 마음을 모으고,

나를 삶의 목표로 삼고,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해설]

제 12 장 | 헌신의 길

이 장은 15장과 함께 《바가바드 기타》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라는 면에서는 《바가바드 기타》의 알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의 주제는 사랑과 헌신이다. 사랑과 헌신은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영적인 덕목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나 붓다나 마호메트에게 헌신하면서 영적인 길을 가고 있다. 힌두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지혜의 길(갸나 마르가)과 행위의 길(카르마 마르가)과 헌신의 길(박티 마르가)이 공존하고 있다. 행위의 길과 헌신의 길은 성격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혜의 길과 행위의 길(또는 헌신의 길)만 언급하는 경우도 많다.

이 장에서 크리슈나는 지혜의 길과 대비하여 헌신의 길을 가장 완벽한 길이라고 강조한다(3절). 이는 물론 지혜의 길이 불완전한 길이라는 뜻이 아니다. 크리슈나는 이미 2장과 4장 등에서 지혜의 길을 통한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 했다. 여기서 크리슈나가 헌신의 길이 가장 완벽한 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헌신의 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뜻이다.

《우파니샤드》를 '베단타(베다의 끝)'라고 한다. 이는 곧 《우파니샤드》가 《베다》의 결정판이자 알짬이라는 뜻이다. 《베다》의 꽃이자 모든 가르침의 결론 같은 《우파니샤드》는 현상계 배후에 있는 영원한 진리인 궁극적인 실재를 강조하고 있다. 《우파니샤드》의 스승들은 참 자아 아트만을 깨달으라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참 자아 아트만과 궁극적인 실재인 브라만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영적인 구도의 절정에 도달한다. 이런 깨달음을 결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탓 트밤 아시(Tat tavam asi)'이다. 이 말은 '네가 그것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것'은 이름도 붙일 수 없고 형태도 없는, 영원한 신성인 브라만을 가리킨다. 브라만은 만물 속에 두루 깃들어 있는 내재자이면서 동시에 현상계에 종속되지 않는 초월자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브라만을 깨닫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크리슈나는 좀 더 쉽고 안전한 헌신이라는 길을 제시한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하지만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그러나 한마음으로 나를 명상하며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바다를 쉽게 건널 수 있다.”(5~7절) 지혜의 길을 가려면 타고난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 크리슈나가 제시하는 사랑과 헌신의 길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따를 수 있다.
기독교 신비가들 가운데도 지혜의 길을 간 사람과 헌신의 길을 간 사람이 있다. 기독교 신비가들의 저술 가운데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책의 저자는 헌신의 길을 강조한다. 그는 사랑이야말로 하느님께 이르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말한다. 그는 “생각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느님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사도 바울도 사랑이 모든 지식과 능력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말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고린도전서 13:2~3)
십자가의 성 요한도 나약한 인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따르기도 쉬운 길임을 명확히 말한다. 그는 말한다. “욕망을 극복하고 욕망으로 추구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상으로 향하던 사랑의 불길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강렬한 불길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만약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느님을 향한 고귀한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면 감각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신을 향한 이런 사랑의 불길은 누구에게나 쉽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크리슈나는 사랑과 헌신에 몰두할 수 없다면 다른 수행을 규칙적으로 행하라고 권면한다(9절). 어떤 수행이든지 규칙적으로 행하다 보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크리슈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수행마저도 규칙적으로 행할 수 없다면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 하는 연습을 하라고 한다(10절). 크리슈나는 이렇게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포기이며, 이런 포기를 통해 평화에 이른다(12절).
13절부터 20절까지는 진정으로 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성에 대한 묘사이다. 진정으로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크리슈나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혼란스럽게 하지 못한다.

물질과 정신

제 13 장 | 물질과 정신

크리슈나 :
1~2.[1] 아르주나여,
육체를 '들판'이라고 하고
'들판'을 알고 경작하는 존재를 '들판을 아는 자'라고 한다.
아르주나여,
내가 곧 '들판을 아는 자'임을 알아라.
나는 '들판'과 '들판을 아는 자'를 동시에 아는 것을
참다운 앎으로 여긴다.

3~4. 들판이란 무엇인가?
들판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질은 어떻게 변하며,
성질을 변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리고 '들판을 아는 자'는 누구이며,
그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제 이런 의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다.
현자들은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들판'과 '들판을 아는 자'를 노래하고 있다.
《브라마수트라》[2]에도

1 1절 앞에 "아르주나가 말했다. (물질적인 본성인) 프라크리티가 들판이고 (신적인 정신) 푸루샤는 들판을 아는 자입니다. 프라크리티는 앎의 대상이고, 푸루샤는 앎입니다. 크리슈나여,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는 한 절이 더 첨부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그러나 이 절이 본문에 포함되면 《바가바드 기타》 전체가 701절이 되고, 그것은 전체가 700절로 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견해와 달라진다. 또한 이 절이 포함되지 않아도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본에는 이 절이 누락되어 있다.

2 《브라마수트라》 : 바타라야나가 편찬한 《브라마수트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그 책은 《바가바드 기타》보다 훨씬 늦은 A.D. 200년 무렵에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바가바드 기타》 이전

'들판'과 '들판을 아는 자'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다.

5~6. 아르주나여,
들판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 가지 물질적인 원소(흙 · 물 · 불 · 바람 · 공간),
'나'라는 자아의식,
다섯 가지 감각기관(눈 · 귀 · 코 · 혀 · 몸),
다섯 가지 감각대상(색깔 · 소리 · 냄새 · 맛 · 감촉)
다섯 가지 작용기관(입 · 손 · 발 · 항문 · 생식기),
인식과 인식작용.
이것이 바로 들판이다.
이 들판에서 욕망과 증오, 쾌락과 고통, 육체와 지성,
그리고 의지 같은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7~8. 들판의 구성요소와 그 변화를 아는 사람은
오만과 위선에서 벗어난다.
비폭력, 용서, 정직, 순수, 스승에 대한 헌신 등이
그들의 특징이다.
그들은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잘 제어하고,
감각대상과 에고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생로병사와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9~11. 들판의 구성요소와 그 변화를 아는 사람은
소유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에 브라만에 관한 찬송 또는 경구를 모아 놓은 다른 어떤 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내나 자식들에 대해서도 애착을 갖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행운이나 불행을
평등한 눈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헌신하며,
세상 사람들과 무리지어 어울리기 보다는
한적한 곳에서 홀로 있으면서
오직 나를 아는 상태에 머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앎의 궁극 목표인 '나'를 찾는 것이
참다운 지혜이다.
'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무지이다.

12. 이제 그대에게 모든 앎의 목표인
불멸에 이르는 지혜,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그것',
곧 시작이 없는 브라만에 대해 말해 주리라.

13~14. 그는 모든 것 안에 있다.
모든 손과 발과 머리에 그가 있다.
모든 얼굴과 눈과 귀에 그가 있다.
그는 온 세상을 감싸고 있다.
그에게는 감각기관이 없지만
모든 감각의 활동을[3] 인지한다.
그는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지만
모든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현상 세계를 움직이는 세 가지 기운에서 자유롭지만

3 모든 감각의 활동을 : 문자적으로는 '감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나의 나타남을'.

그 세 가지 기운이 일으키는 변화를 경험한다.

15~16. 그는 멀리 있으면서 동시에 가까이 있고,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밖에 있으며,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한 존재이다.
그는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다양한 존재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가 존재들을 생성시키는 창조자이고,
존재들을 지탱하는 유지자이며,
존재들을 소멸시키는 파괴자이다.
이런 그를 아는 것이 모든 앎의 목표이다.

17. 그는 모든 존재의 가슴 속에[4] 머물고 있다.
그는 모든 빛의 원천이다.
그는 어둠을 초월해 있다.
그는 모든 앎의 대상이자 목표이며,
앎 그 자체이다.

18. 지금까지 설명한
들판과 앎과 앎의 대상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라.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나의 상태에 이르리라.

19~20. 현상 세계의 본질인 프라크리티와
그 배후에 있는 신적인 정신 푸루샤는

4 가슴 속에 : '심장 속에'라고 옮길 수도 있다.

둘 다 시작이 없다.
물질의 세 성질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모든 변화는
프라크리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프라크리티가 행위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행위자이다.
하지만 모든 쾌락과 고통의 향수자는 푸루샤이다.

21. 푸루샤는 프라크리티 안에 머물면서,
프라크리티에서 비롯된 구나들의 활동을
지켜보며 경험하고 있다.
만약 어떤 존재 안에 머물고 있는 푸루샤가
특정한 구나의 활동에 집착하면
그것이 그가 좋은 곳이나 나쁜 곳에 태어나는
탄생의 원인이 된다.

22. 육체 안에 머물고 있는 지고한 푸루샤는
지켜보는 자이며 인도하는 자이다.
그는 현상 세계를 지탱하는 자이며
모든 경험을 향수하는 자이다.
그가 곧 위대한 대주재자이다.

23. 푸루샤와 프라크리티와 구나의
본성과 변화를 이해한 사람은,
어떤 수행의 길을 가든지[5]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5 어떤 수행의 길을 가든지 :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든지'라고 옮길 수도 있다.

24~25. 어떤 이들은 명상수행을 통해서[6]
내면의 참 자아를 깨닫는다.
어떤 이들은 지혜의 길을 감으로써[7]
내면의 참 자아를 깨닫는다.
어떤 이들은 집착 없이 행위 하는 길을 감으로써[8]
자기 내면의 참 자아를 깨닫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길을 전혀 모른 채
깨달은 스승[9]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기만 하지만,
이들도 역시 죽음의 바다를 건넌다.

26. 아르주나여,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프라크리티와 푸루샤,
곧 '들판'과 '들판을 아는 자'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다.

27~28. 모든 존재 속에 똑같이 머물고 있는
지고한 주님을 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보는 자이다.
그는 소멸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소멸되지 않는 주님이 계신 것을 본다.
모든 존재 속에 동일한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사람은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6 명상수행을 통해서 : 문자적으로는 '디야나(禪定)를 통해서'.
7 지혜의 길을 감으로써 : 문자적으로는 '상키야 요가를 수행함으로써'.
8 집착 없이 행위 하는 길을 감으로써 : 문자적으로는 '카르마 요가로'.
9 깨달은 스승 : 문자적으로는 '다른 사람'.

그래서 그는 지고한 목표에 도달한다.

29~30. 모든 행위는
프라크리티 곧 물질적인 성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자기가 행위자가 아님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아는 사람이다.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 하나이며,
그 하나의 근원에서 만물이 전개되어 나옴을 보는 사람은
지고한 브라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31~32. 영원히 현존하는 참 자아 아트만은
시작도 없고, 구나 곧 물질적인 기운도 없다.
아르주나여,
참 자아 아트만이 몸속에 머물고 있지만
그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며,
어떤 행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허공은 온 우주에 두루 퍼져 있으며,
허공 안에는 무수한 존재들이 있다.
하지만 허공은 자기 안에 있는 존재들로 인하여
더렵혀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참 자아 아트만은
변화하는 모든 존재들 속에 머물면서도
그들의 활동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

33~34. 하나의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들판을 아는 주(主)께서 들판 전체를 비춘다.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들판'과 '들판을 아는 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프라크리티 곧 현상 세계의 변화에 구속되지 않는
지고한 경지에 이른다.

[해설]

제 13 장 | 물질과 정신

이 장에는 '들판'과 '들판을 아는 자'라는 두 가지 포괄적인 개념이 나온다. 간단히 말해서 들판은 현상계〔프라크리티〕이고 들판을 아는 자는 현상계 안에 머물고 있는 영원한 신적인 정신인 참 자아〔푸루샤〕를 가리킨다. 들판을 현상계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마음도 포함된다. 아함카라 곧 '나라는 생각'이 마음의 근원이다. 아함카라는 '나'라는 뜻의 '아함(aham)'과 '만드는 자'라는 뜻의 '카라(kara)'가 합쳐진 말이다. 쉽게 말해서 에고의식을 가리키는데, 이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상계에 속하는 것이다. 들판은 대상이고 들판을 아는 자는 주체이다. 크리슈나는 자기가 들판을 아는 자라고 선언한다(2절).

현대 물리학에서는 물질과 에너지의 경계가 사라졌다. 물질이란 에너지가 특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에너지란 물질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도 '에너지-물질 연속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의 마음은 '에너지-물질 연속체'와 영향을 주고받는, 그것들과 연결된 전체의 일부이다. 마음이 에너지 장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물질 현상으로 나타난다. 또 물질 현상과 에너지 장의 변화가 인간의 마음과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현상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는 프라크리티〔들판〕는 '에너지-물질-마음의 연속체'라는 현대적인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다(5~6절).

옛날에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는 현자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현자가 대답했다. "나는 농부요." 질문한 사람은 그 대답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현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의 이 몸이 들판입니다. 나는 선한 생각과 행위를 이 들판에 심고 그 열매를 거둡니다." 붓다도 지금 현재의 상태는 과거에 생각한 것들의 결과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다. 생각의 힘이 모아지면 그것은 행위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이 삶의 형태를 결정하고 만들어 나간다. 생각, 욕망, 결단 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행위는 그들이 무

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바가바드 기타》의 가르침은 생각과 행위와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모두 '들판'에서 일어나는 일이며(6절), 그 배후에는 들판을 경작하며 그것을 즐기는 '아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프라크리티가 행위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행위자이다. 하지만 모든 쾌락과 고통의 향수자는 푸루샤이다."(20절)

7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의 참 자아인 '들판을 아는 자'를 이해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다. 들판과 들판의 구성요소와 변화를 아는 사람의 삶은 조화롭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들판'과 '들판을 아는 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한다. 들판에 지나지 않는 육체와 마음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들판을 경작하는 자인 브라만에 대한 설명이다. 브라만은 현상계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상계의 근원이자 토대이다. 이 브라만이 '들판을 아는 자'이며, 모든 존재의 참 자아 아트만이다.

19절부터는 푸루샤와 프라크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마음을 포함한 현상계의 모든 것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과 성질이 모두 프라크리티이다. 푸루샤는 이런 프라크리티의 주인으로서, 프라크리티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그 변화를 경험하고 향수하는 자이다. 현상계의 창조와 변화는 프라크리티와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신적인 정신인 푸루샤의 합작품이다. 푸루샤라는 영적인 토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프라크리티라는 물질적인 질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현상으로 나타날 수 없다. 프라크리티는 재료이고 푸루샤는 그 재료로 현상을 만드는 자인 셈이다.

푸루샤와 프라크리티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푸루샤를 시바(Shiva)로, 프라크리티를 샥티(Shakti)로 인격화시켜서 숭배한다. 시바는 아버지이고 샥티는 어머니이다. 물론 《바가바드 기타》에는 이 두 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바가바드 기타》가 비슈누 신앙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힌두 신앙에서 시바는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는 최고 절대자이다. 샥티는 시바의 배우자로서 시바와의 결합을 통해 세상을 창조해 낸다(14장 3~4절 참조). 시바는 샥티가 없이는 아무것도 산출해 내지 못한다. 샥티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름도 많다. 프라크리티가 인격화된 샥티는 탄생과 죽음의 영역, 곧 현상계를 지배한다. 반면에 푸루샤가 인격화된 시바는 영원불멸의 영역에 머물면서, 샥티와의 결합을 통해 세상을 창조해 낸다. 마음을 포함한 현상계의 모든 것은 시바와 샥티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다(26절).

이 장에서 크리슈나는 '들판을 아는 자'인 참 자아 아트만은 들판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참 자아 아트만이 몸속에 머물고 있지만 그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며, 어떤 행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허공은 온 우주에 두루 퍼져 있으며, 허공 안에는 무수한 존재들이 있다. 하지만 허공은 자기 안에 있는 존재들로 인하여 자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참 자아 아트만은 변화하는 모든 존재들 속에 머물면서도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31~32절) 현상계의 만물이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변화하고 있지만, 소멸되어 가는 것들의 가슴속에 머물고 있는(27절) '아는 자'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영원히 자신의 상태에 머문다.

현상 세계를 움직이는 세 기운을 초월하는 요가

제 14 장 | 현상 세계를 움직이는 세 기운을 초월하는 요가

크리슈나 :
1~2. 아르주나여,
이제 그대에게 최고의 지혜를 말해 주리라.
모든 현자들은 이것을 알고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렀다.
이 최고의 지혜를 성취한 사람은
나의 상태에 도달하여,
태어남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현존 상태에 이른다.

3~4. 아르주나여,
프라크리티[1]는 나의 씨를 잉태하는 자궁이다.
프라크리티의 모든 자궁은 브라만의 씨를 받아
만물을 생성해 낸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궁인 프라크리티에서 태어나며,
내가 씨를 뿌리는 아버지이다.

5. 프라크리티에서 생겨난 세 성질,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라는 물질의 세 성질이
불멸의 참 자아를 육체 속에 가두어 놓는다.

1 프라크리티 : 문자적으로는 '위대한 브라마'이다. 브라만은 생각이나 표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브라만이 현상적인 세계의 창조-유지-해체(파괴)를 주관하는 인격신으로 나타날 때는 '이슈바라'라는 이름을 갖는다. 이슈바라에게는 세 모습이 있다. 브라마(Brama)(이슈바라의 창조력), 비슈누(이슈바라의 유지력), 시바(이슈바라의 해체력)가 그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브라마'는 현상 세계를 창조하는 힘 곧 프라크리티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슈바라의 힘이다.

6. 사트바는 밝고 순수하며 평화로운 기운이다.
그러나 사트바에서 비롯되는
행복과 지혜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불멸의 참 자아[2]가 속박을 당한다.

7. 라자스는 욕망과 집착에서 생기는 격정적인 기운이다.
라자스의 격정적인 활동에 집착함으로써
불멸의 참 자아가 속박을 당한다.

8. 타마스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어두운 기운이다.
타마스의 어두운 힘으로 말미암아
불멸의 참 자아가 미혹에 빠진다.
모든 존재들이 이 기운으로 말미암아
둔함과 게으름과 잠에 빠진다.

9. 아르주나여,
사트바는 그대를 행복에 집착하게 하고,
라자스는 그대를 활동으로 몰아넣으며,
타마스는 그대의 지혜를 덮어 미혹에 빠지게 한다.

10. 어떤 때는 밝고 고요한 기운이
활동적인 기운과 어두운 기운을 제압한다.
어떤 때는 활동적인 기운이
밝고 고요한 기운과 어두운 기운을 압도한다.

2 불멸의 참 자아 : 여기서 '참 자아'는 '몸을 입은 자'의 번역이다. 영원한 푸루샤 또는 영원한 브라만 곧 참 자아 아트만이 몸을 입고 변화하는 프라크리티 세계를 경험한다. 이에 대해서는 2장 11~30절을 참고할 것.

어떤 때는 어두운 기운이
활동적인 기운과 밝고 고요한 기운을 집어삼킨다.

11~13. 사트바의 밝고 고요한 기운이 우세할 때는
육체의 모든 세포가 지혜의 빛으로 밝아진다.
라자스의 활동적인 기운이 우세할 때는
욕망과 집착, 불안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활동으로 내몰린다.
타마스의 어두운 기운이 우세할 때는
무지와 혼란과 게으름과 망상에 빠진다.

14~15.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사트바의 밝고 고요한 기운이 우세하면
그는 현자들이 사는 순수한 곳(신들의 차원)으로 간다.
라자스의 활동적인 기운이 우세하면
그는 행위가 지배하는 세상(인간 차원)에 태어난다.
타마스의 어두운 기운이 우세하면
그는 무지한 존재(짐승 차원)의 자궁으로 들어간다.

16. 선한 행위는 밝고 고요한 사트바 기운의 열매이며,
고통은 활동적인 라자스 기운의 열매이고,
무지는 어두운 타마스 기운의 열매이다.

17. 지혜는 밝고 고요한 사트바 기운에서 생기고,
탐욕은 활동적인 라자스 기운에서 생기며,
무지와 혼란과 미망은 어두운 타마스 기운에서 생긴다.

18. 밝고 고요한 사트바 기운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위에 있는 세계로 가고,
활동적인 라자스 기운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며,
어두운 타마스 기운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세계로 간다.

19. 지혜가 있는 사람[3]은
행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가 세 가지 기운의 활동임을 안다.
물질차원의 세 기운 너머를 아는 그는
나의 상태에 이른다.

20. 몸을 입은 자인 참 자아가
육체에서 비롯되는 물질의 세 가지 기운을 넘어가면
생로병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불멸의 자유를 얻는다.

아르주나 :
21. 오 크리슈나여,
물질 차원의 세 기운을 초월한 사람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물질 차원의 기운을 초월했다면
어떤 힘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물질 차원의 세 기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3 지혜가 있는 사람 : 문자적으로는 '관찰자' 또는 '구경꾼'이다.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을 행위자로 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크리슈나 :

22~23. 물질 차원의 세 기운을 초월한 사람은
밝으면 밝은대로 놔두고,
활동적이면 활동적인대로 놔두며,
어두우면 어두운대로 놔둔다.
어떤 상태를 싫어하지도 않고 갈구하지도 않는다.
그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처럼
물질의 기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
그는 물질적인 기운의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는 모든 행위와 활동이
물질적인 기운의 활동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

24~25. 그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하나로 보며,
흙덩이와 돌과 황금을 똑같은 것으로 여긴다.
그는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는 명예와 불명예를 동등하게 보고,
친구와 적을 똑같이 여기며,
인위적인 행위를 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일러
물질 차원의 기운을 초월한 자라고 한다.

26~27. 변함없는 사랑[4]으로

4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직 나에게만 마음을 바치는 사람 : 문자적으로는 '박티 요가를 흔들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

오직 나에게만 마음을 바치는 사람은
물질 차원의 세 기운을 초월하여
브라만 차원에 이른다.
내가 브라만의 토대이고,
결코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며,
궁극적인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해설]

제 14 장 | 현상 세계를 움직이는 세 기운을 초월하는 요가

13장에는 푸루샤와 프라크리티를 혼동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었다. 이 장에서는 마음과 물질로 이루어진 프라크리티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이 자세하게 펼쳐진다. 크리슈나는 현상계의 변화를 프라크리티의 세 성질인 사트바 구나, 라자스 구나, 타마스 구나의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현존하는 참 자아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세 가지 구나의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19~20절, 22~23절). 그러나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모든 존재가 구나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구나'란 성질 또는 기운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트바 구나는 맑고, 고요하고, 밝고, 가볍고, 조화로운 기운이다. 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천상(天上) 차원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다. 라자스 구나는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기운으로 분노, 증오, 탐욕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일종의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진화의 측면에서는 인간 차원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다. 타마스 구나는 어둡고, 무겁고, 무기력한 기운이다. 세 구나 가운데서 가장 차원이 낮은 기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물 차원의 기운으로 볼 수 있다(14~15절, 18절).

모든 존재는 이 세 가지 기운의 결합으로 나타나고 변화한다.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이 세 기운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세 기운 가운데 어떤 한 기운이 우세하면 나머지 두 기운을 힘을 잃는다. 사트바가 우세하면 라자스와 타마스가 상대적으로 힘을 잃고, 라자스가 우세하면 사트바와 타마스의 기운이 약해 진다(10절).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가 어떤 기운이 우세하냐에 따라 그 성질과 성격이 결정된다(11~13절). 세 기운 사이의 우세와 열세의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따라서 현상계는 한 순간도 고정된 순간이 없다. 이것이 구나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프라크리티의 본성이다.

구나들의 영향력을 벗어나야만 참된 자유가 있다. 밝고 순수한 기운인 사트바 구나 조차도 넘어서야 한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사트바는 그대를 행복에 집착하게

하고, 라자스는 그대를 활동으로 몰아넣으며, 타마스는 그대의 지혜를 덮어 미혹에 빠지게 한다."(9절)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탈은 프라크리티 세계 너머에 있는 푸루샤 영역으로 들어가야 맛볼 수 있다(20절).

아르주나가 프라크리티의 그물에서 벗어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묻자(21절) 크리슈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물질 차원의 세 기운을 초월한 사람은 밝으면 밝은대로 놔두고, 활동적이면 활동적인대로 놔두며, 어두우면 어두운대로 놔둔다. 어떤 상태를 싫어하거나 갈구하지 않는다. 그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처럼 물질세계의 기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 그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는 모든 행위와 활동이 물질적인 기운의 활동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22~23절) 또 "그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하나로 보며, 흙덩이와 돌과 황금을 똑같은 것으로 여긴다. 그는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는 명예와 불명예를 동등하게 보고, 친구와 적을 똑같이 여기며, 인위적인 행위를 꾀하지 않는다."(24~25절)

마지막으로 크리슈나는 '박티' 곧 헌신의 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26절). 변함없는 사랑으로 크리슈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프라크리티 영역의 세 기운의 영향력을 벗어나 영원한 브라만 차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궁극적인 자아

제 15 장 | 궁극적인 자아

크리슈나 :

1. 현자들은 영원한 아슈바타 나무[1]에 대해 말한다.
이 나무는 뿌리는 위를 향해 있고,
가지는 아래로 뻗어 있으며,
《베다》의 노래인 잎이 무성하다.
이 나무를 아는 이는
《베다》의 참 뜻을 깨우친 사람이다.

2. 이 나무는
물질세계의 세 가지 기운을 양분으로 섭취하면서
위 아래로 가지를 뻗어 세상을 뒤덮는다.
무성한 가지에서는 온갖 감각의 대상인 싹이 움튼다.
아래로 뻗어 내리는 뿌리[2]는
인간 세상을 온통 휘감고
사람들을 끊임없는 행위의 물결 속으로 끌고 간다.

3~4. 현상 세계에 현혹된 사람은
이 나무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나무의 시작과 전개되는 모습과 끝을 알지 못한다.
아르주나여,

1 아슈바타 나무 : 어떤 주석가는 피팔 나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반얀 나무라고 하기도 한다. 많은 주석가들이 뿌리를 위에 두었다는 것은 이 나무의 기원이 브라만이기 때문이고, 가지가 아래로 뻗었다는 것은 현상 세계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이 나무는 현상 세계 또는 감각 세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래로 뻗어 내리는 뿌리 : 이 나무는 원래 뿌리가 위에 있는 나무인데, 아래로 뿌리가 뻗었다 함은 감각 세계가 의식을 지배한 상태를 말한다.

그대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나무를
강한 무집착의 도끼로 잘라내야 한다.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집을 발견하게 되리라.
모든 행위와 에너지의 발원지인
최초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리라.

5~6. 자기가 행위자라는 망상과
자기가 무엇을 한다는 자만심에서 벗어난 사람,
이기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
기쁨과 고통의 대립을 넘어선 사람,
그리하여 어디에도 미혹되지 않고
항상 참 자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영원한 그 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곳은 해도 달도 불빛도 필요 없는 곳이다.
그 집은 나의 영원한 거주처이며,
여기에 이른 사람은
고통의 세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7~9. 나의 조각이 뭇 생명 안에 거하면서
개체적인 영혼이 된다.
나의 조각이 육체 속에 머무는 동안[3]
나는 감각과 마음의 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바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향기를 퍼뜨리는 것처럼
이 육체에서 저 육체로 옷을 갈아입는다.
나는 이런 식으로 개체의 영혼이 되어,

3 육체 속에 머무는 동안 : 문자적으로는 '프라크리티 안에 머무는 동안'.

마음과 눈과 귀와 코와 혀와 피부를 통해
감각의 대상을 즐긴다.

10. 현상 세계에 현혹된 사람들은
육체 속에 머물면서
구나들의 활동과 감각의 대상을 즐기는 나를 감지하지 못한다.
또 감각의 대상을 즐기다가
육체를 벗고 떠나는 나를 감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나를 본다.

11. 요가의 길에서 정진하는 수행자는
자기 안에 머물고 있는 참 자아를 본다.
하지만 무지하고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참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다.

12~14.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해와 달과 모든 빛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대지로 스며들어가 만물을 나고 자라게 한다.
나는 생명의 물을 내려주는 달의 신[4]이 되어
모든 식물에게 활기를 불어넣는다.
나는 모든 존재의 들숨과 날숨[5]을 결합하여
생명을 주는 숨이 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장 속의 불기운이 된다.

4 생명의 물을 내려주는 달의 신 : 문자적으로는 '향기로운 소마가 되어'. 《베다》에는 '소마'가 신들이 마시는 물로 언급되어 있다.

5 들숨과 날숨 : '프라나'와 '아파나'가 결합된 '프라나파나'의 번역이다. 힌두 전통에서는 숨을 다섯 종류로 구분한다. 그 가운데 '프라나'는 숨의 에센스 곧 생명의 기운을 가리키고, '아파나'는 노폐물을 배출하여 몸을 정화하는 숨을 가리킨다.

15. 나는 모든 존재들의 가슴 속에[6] 머물면서
그들에게 기억하는 힘과 추리하고 아는 능력을 준다.
모든 《베다》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직 나이다.
내가 《베다》의 정수인 《베단타》의 저자이고,
《베다》를 아는 자 또한 나이다.

16~17.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다.
하나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생멸하는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변하지 않는 불멸의 존재[7]이다.
하지만 이 둘을 초월한,
가장 높은 존재인 지고한 자아 아트만이 있다.
그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깃들어 있으며,
그가 만물을 양육하고 지탱하는 영원한 주(主)이다.

18~19. 나는 모든 경전이
지고한 자아 아트만으로 찬양하고 있는
생멸(生滅)과 불멸(不滅)을 초월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나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을 발견하고
존재 전체를 바쳐 나를 향한다.[8]

20. 아르주나여,

6 가슴 속에 : '심장 속에'라고 옮길 수도 있다.
7 불멸의 존재 :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생멸하는 존재'는 감각 세계 안에 나타나는 뭇 존재들과 그들이 보여 주는 다양한 현상들을 일컫고, '불멸의 존재'는 감각 세계 자체 곧 프라크리티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
8 나를 향한다 :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 또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옮길 수도 있다.

나는 그대에게 가장 깊은 진리를 전해 주었다.
이 가르침을 깨닫는 사람은 밝은 지혜를 얻는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모든 의무[9]를 완수한 것이다.

9 의무 : '다르마'의 번역이다.

[해설]

제 15 장 | 궁극적인 자아

크리슈나는 13장에서 프라크리티(물질)와 푸루샤(신적인 정신)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그 둘을 혼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14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프라크리티의 세 가지 구나(기운)의 활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구나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에 이르는 길을 설명했다. 이제 15장에서는 브라만과 현상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거꾸로 서 있는 나무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 나무는 뿌리가 하늘을 향해 있고, 가지와 잎사귀는 땅을 향해 무성하게 뻗어있다. 뿌리가 있는 하늘은 브라만이고(1절), 거기에서 뻗어 나온 가지와 잎사귀는 이 세상의 온갖 현상들이다(2절).

'아슈바타(ashvatta)' 나무는 뿌리를 하늘(브라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무이다. 《카타 우파니샤드》에도 뿌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나무를 '영원불멸의 브라만'이라고 한다. 크리슈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이 나무에서 온갖 감각의 대상인 싹이 움트고, 아래로 뻗어 내리는 뿌리는 인간 세상을 온통 휘감고 사람들을 끊임없는 행위의 물결 속으로 끌고 간다"고 말한다(2절). 여기에서 말하는 '아래로 내린 뿌리'는 진짜 뿌리가 아니다. 진짜 뿌리는 하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 세계에 미혹된 사람들은 가짜 뿌리를 진짜로 여기고 집착한다. 이 가짜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위의 물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크리슈나는 이 뿌리를 무집착의 도끼로 잘라내면 영원불멸하는 자신의 근본 자리인 '그 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4절).

《우파니샤드》에서는 궁극적인 실재인 브라만을 '탓(Tat)'이라고 한다. '탓'은 '그것'이라는 뜻인데, 궁극적인 실재를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런데 《바가바드 기타》는 '그것'에 인격을 부여하여 '그것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표현을 쓴다(4절). 크리슈나는 그 집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영원한 거주처라고 하면서, 그 집이 모든 인생의 목표라고 말한다(6절). 2절과 5

절에서 '영원한 집'이라고 말할 때 '집'으로 옮긴 산스크리트어 '파다(pada)'에는 층(層)이라는 뜻도 있다. 《베다》의 신화에는 비슈누가 이 세상을 세 층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층이 신들이 사는 천상 세계인데, 천상 세계에 사는 신들도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를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크리슈나가 말하는 '영원한 집(층)'은 천상 세계 너머에 있는 영역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크리슈나의 영원한 거주처인 이 집은 현상계의 빛을 초월한 빛의 세계이다(6절). 《카타 우파니샤드》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 "그곳을 비추는 것은 해나 달이나 번개의 빛이 아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의 빛이 아니라 참 자아의 빛이 모든 존재를 비추고 있다."(5:15)

크리슈나는 이렇게 지고한 영역에 머물고 있지만, 동시에 빛과 어둠이 뒤얽혀 있는 이 세상에도 현존하면서 온갖 형태로 자신을 나타낸다(7~9절). 크리슈나는 모든 존재 내면에 머물고 있는 참 자아이다. 크리슈나는 자기가 생명의 주인공이라고 선언한다(12절 이하). 자기가 생명의 기운 프라나라고 말한다. 고대의 경전에는 다섯 종류의 프라나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크리슈나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 곧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숨과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운을 언급한다(14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나는 그대에게 가장 깊은 진리를 전해 주었다. 이 가르침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모든 다르마(의무)를 완수한 것이다"라는 말은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크리슈나는 행위의 길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강조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다르마를 수행하라는 것이, 그리고 늘 영원한 실재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수행과 온전한 헌신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달음이 다르마의 완성'이라고 선언한다. 행위이든, 수행이든, 헌신이든 마지막 목표는 깨달음 곧 자신의 참 자아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다. 사실은 4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주었다. 거기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많으며,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길을 통해 여기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준 바 있다(4:11).

신적인 길과 악마적인 길

제 16 장 | 신적인 길과 악마적인 길

크리슈나 :

1~3. 아르주나여,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라.

영적인 수행의 길[1]에서 흔들리지 마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감각의 욕구를 절제하라.

신실한 마음으로 신을 섬겨라.

경전을 탐구하여 진리를 깨달으라.

집착을 버리고, 포기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려라.

누구를 향해서든 분노하거나 해치지 마라.

모든 존재를 자비로움으로 대하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선을 행하라.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심과 순결함을 키워라.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마라.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해라.

그러면 그대의 신적인 성품이 완성될 것이다.

4. 아르주나여,

위선과 오만과 편견,

분노와 잔인함과 무지,

이런 것들은 사람을 악마적 차원으로 떨어뜨린다.

1 영적인 수행의 길 : '갸나 요가'의 번역이다. '갸나 요가'는 지적인 분석과 식별력을 사용하여 흔들림 없는 경지에 도달하려는 요가이다. '지혜의 길' 또는 '앎의 길'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5. 신적인 성품은 영원한 자유[2]로 인도하지만
악마적인 속성은 속박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아르주나여,
그대는 신적인 성품을 가슴에 안고 태어났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6. 아르주나여,
어떤 사람은 신적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악마적인 길을 따라 살아간다.
신적인 길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하게 말했다.
그러니 이제는 악마적인 길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라.

7. 악마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열심히 한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순수한 것이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른다.

8~9. 그들은 신이 없다고 말한다.
진리라는 것도 없으며
영적인 법칙이나 질서도 없다고 말한다.
세상 만물은 성적인 욕망에 의해
우연히 태어난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런 비뚤어진 견해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쥐꼬리만한 지식을 최고로 여기면서
이 세상을 고통과 파멸로 몰아넣는

2 영원한 자유 : '모크샤'의 번역이다. '모크샤'는 흔히 '해탈(解脫)'이라고 번역된다.

온갖 못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한다.

10~11. 그들은 위선과 자만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부질없는 망상에 빠져 살고 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르고,
끝없이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한다.
그들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죽는 날까지 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12. 그들은 수만 가지 갈망의 올가미에 걸려
탐욕과 분노의 힘에 내몰린다.
그들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재물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13~16.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오늘을 돈을 많이 벌었다.
내일은 더 많이 벌 것이다.
오늘 번 것은 다 내 것이다.
내일 벌 것도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 원수를 없애버렸다.
내일은 다른 원수를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
나는 성공했고 힘이 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우리 집안은 훌륭하고 나는 부자다.
나와 견줄 자 있으면 나와 봐라.
나는 통이 크고 관대하다.
헌금도 넉넉하게 바치고
자선모금 상자에 두툼한 봉투도 넣으리라.'
이게 바로 무지로 인해
망상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탐욕의 올가미에 묶이고
망상의 거미줄에 걸린 사람은,
탐욕을 좇아 갈팡질팡하다가
마지막엔 어두운 지옥에 떨어진다.

17~18. 그들은 자만심이 강하고 완고하며
돈이 있다고 어깨에 힘을 준다.
어쩌다 제사를 드려도
제사의 참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남에게 보이려고 그 짓을 할 뿐이다.
그들은 이기심과 폭력과 오만,
그리고 탐욕과 분노로 자신을 채움으로써
자기 속에, 그리고 다른 존재들 속에 머물고 있는
나를 욕되게 한다.

19~20. 나는 이 가증스럽고 잔인하고 더러운 인간들을
악마의 자궁 속으로 던져 넣는다.
아르주나여,
저들은 어두운 악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
생을 거듭할수록 더욱 미혹되어

나에게 이르지 못하고
어두운 삶만을 반복하게 된다.

21~23. 욕망과 분노와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의 지옥으로 던져 넣는 세 문(門)이다.
아르주나여,
그대는 이 세 가지[3]를 버리도록 하라.
지옥에 이르는 이 세 문을 피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며 지고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라.
경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은 삶의 진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행복도 맛보지 못한다.

24. 그러므로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하여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다음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도록 하라.

3 이 세 가지 : 문자적으로는 '이 세 가지 타마스의 문(門)'.

[해설]

제 16 장 | 신적인 길과 악마적인 길

이 장은 매우 특이하다. 크리슈나는 지금까지 아주 자상하게 진리의 길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 장에 와서는 매우 격한 어조로 영적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책망한다.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의 길을 가면서 신실하게 신을 섬기는 사람은 타고난 자신의 신적인 성품을 완성한다(1~3절). 이들은 한 걸음씩 영적으로 진화하면서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5절). 그러나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신이나 진리나 영적인 법칙 같은 것은 없다고 하면서 동물적인 본성을 따라간다(8절). 크리슈나는 이런 사람을 악마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힐난하면서(7절), 이들은 악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며(19~20절), 마지막에는 어두운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한다(16절).

항상 밝고 자상한 느낌을 주던 크리슈나가 이 장에서는 영적인 길을 무시하고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대단히 분노한 모습으로 변한다. 하지만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에 앞서서 아르주나를 위로하며 안심시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1~3절). 그대는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욕망을 좇아 악마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악마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이다(8절). 그들은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동물적이고 성적인 욕망을 따라간다.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자신도 그런 낮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9절). 그들의 마음은 오만과 편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감각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한다(10~11절). 크리슈나는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어두운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고 경고한다(13~16절). 크리슈나가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가 어떤 공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롭고 밝은 상태인 것처럼, 지옥도 무지와 고통으로 뒤범벅이 된 영적인 상태를 가리킨

다. 따라서 악마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점점 더 어두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위로와 격려의 말 없이, 악마적인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한 질책과 힐난만 있었다면 크리슈나가 보통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신적인 길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그 길을 가면 지고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격려의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1~3절), 악마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크리슈나의 분노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분노임을 알 수 있다. 크리슈나는 '두려워하지 말라'(1절)는 말로 말문을 연다. 아마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 없음'이 최고의 덕목이리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다름'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두려움이란 내가 아닌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다. 내가 참 자아이며 모두가 '나'라는 통합된 인식이 있다면 두려움이 생길 까닭이 없을 것이다. 영적으로 지고한 경지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다.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런 자유와 평화는 맛볼 수 없다. 따라서 '두려움 없음'이야말로 최고의 영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욕망과 분노와 탐욕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세 문이다(21절).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癡〕이라는 삼독(三毒)을 경계하라고 가르친다.

이 장의 산스크리트어 제목은 〈데바와 아수라의 운명을 구별하는 요가〉이다. '데바'는 영적으로 높이 진화한 선한 영 또는 선한 신을 가리킨다. '아수라'는 인간 차원에서 한 걸음 진화는 했지만, 서로 더 높이 올라가려고 싸움을 그치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힌 영들이다. 힌두 신화에는 데바와 아수라의 싸움이 수없이 등장한다. 집단으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도 대단히 많다. 이들의 싸움은 끝에 가서는 결국 데바의 승리로 끝나지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수라들이 일시적으로 이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데바와 아수라의 싸움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싸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싸움을 의인화시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힌두 신화에 따르면 크리슈나도 악의 무리들과 오랫동안 싸웠다. 그래서 '마두수

다나(악마 마두를 죽인 자)'니 '케시니수다나(악마 케시니를 죽인 자)'니 하는 별명이 붙었다. 영원불멸의 대서사시 《라마야나》는 크리슈나보다 한 번 일찍 이 세상에 온 비슈누의 화신 라마의 전쟁이야기이다. 라마는 악마 라바나를 죽였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투쟁에 대한 기록이며 가르침이다. 《바가바드 기타》도 선의 세력을 대표하는 판두의 아들들(판다바스)과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쿠루의 아들들(카우라바스) 사이의 전투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어진 가르침이다. 판다바스와 카우라바스는 원래 한 핏줄에서 태어난 사촌 형제들이다. 판다바스와 카우라바스의 싸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집안싸움이다.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 외부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용기를 내어 적을 물리치라고 말하는 것도, 아르주나 내면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진리와 망상의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하라는 격려인 셈이다.

세 가지 믿음

제 17 장 | 세 가지 믿음

아르주나 :
1. 오 크리슈나여,
경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밝음, 격정, 어두움 가운데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크리슈나 :
2. 모든 존재는 타고난 기질에서 비롯되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밝고 고요한 기질에서 비롯되는 믿음을,
어떤 이는 격정적인 기질에서 비롯되는 믿음을,
또 어떤 이는 어두운 기질에서 비롯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3. 아르주나여,
믿음은 그 사람의 기질을 닮는다.
사람의 특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성이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인 셈이다.

4. 기질이 밝고 고요한 사람은 천상의 신들을 숭배한다.
기질이 격정적인 사람은 재물을 관장하는 신인 야크샤와
권력과 쾌락의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영인 아크샤를 섬긴다.
기질이 어두운 사람은 죽은 자의 영과 귀신을 섬긴다.

5~6. 어떤 사람은 가혹한 고행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전의 가르침은 뒤로 제켜두고
위선과 이기심에서 행하는 고행은
애꿎은 육체만 괴롭히는 것이며,
몸 안에 머물고 있는 나를 괴롭히는 행위이다.
야망에 휩싸인 채 별별 희한한 고행을 다하고 있는 저들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마와 같다.

7. 기질과 믿음에 따라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제사 드리는 태도와 방식도 다르며,
수행하는 태도가 다르다.
또 베푸는 태도 역시 기질과 믿음에 따라 다르다.

8~10. 기질이 밝고 고요한 사람은
부드럽고 신선하고 제 맛이 살아있는 음식을 좋아한다.
이들은 활기를 돋우고 기운을 맑게 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음식을 좋아한다.
기질이 격정적인 사람은
짜거나 쓰거나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음식은 고통과 병의 원인이 된다.
기질이 어두운 사람은
타거나 역한 냄새가 나거나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좋아한다.
이들은 대체로 제 맛을 잃어버린 음식을 좋아한다.

11~13. 기질이 밝고 고요한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
기질이 격정적인 사람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기질이 어두운 사람은
규범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다.
이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규정된 신성한 제물도 바치지 않으며,
사제들을 대접하지도 않는다.
이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도무지 믿음이 없다.

14. 몸의 고행은 이런 것이다.
신과 두 번 태어난 사람[1]을 섬기는 것,
지혜로운 사람과 영적인 스승을 섬기는 것,
청결함과 단순함과 절제와 비폭력,
이런 것이 몸의 고행이다.

15. 말의 고행은 이런 것이다.
위로하는 말과 진실 되게 말하는 것,
친절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
규칙적으로 경전을 낭독하는 것,
이런 것이 말의 고행이다.

16. 마음의 고행은 이런 것이다.

1 두 번 태어난 사람 : 문자적으로는 '성스러운 줄(탯줄)을 두른 사람'으로 카스트의 고위층 사람을 일컫는다. 첫 번째 출생은 자연적인 출생이고, 두 번째 출생은 빛의 아이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이라는 해석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은 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고요함과 부드러움과 침묵을 지키는 것,
자기를 제어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이 마음의 고행이다.

17~19. 기질이 밝고 고요한 사람은
지극한 믿음으로,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꾸준히 이 세 가지 고행을 한다.
기질이 격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존경 받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
이들이 하는 고행은 지속성이 없다.
상황에 따라 했다 안했다 한다.
기질이 어두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것이
영적인 행위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고행을 한다.

20~22. 기질이 밝고 고요한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당연히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베푼다.
그들은 적당한 때, 적절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기질이 격정적인 사람은
어떤 호의적인 대가를 기대하면서,
마지못해 보시를 한다.
기질이 어두운 사람은
때와 장소가 적절치 못한 상황에서,

적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존중하는 마음도 없이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도록 자선행위를 한다.

23~27. '옴', '탓', '삿'.
이 세 음절은 브라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세 음절로 표현되는 브라만에서
사제와 경전과 제사의식이 나왔다.
그러므로 베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제사와 수행과 보시를 시작할 때
'옴'을 음송한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유로워지기만을 바라면서[2]
제사와 고행과 보시를 행하는 이들은
그런 행위를 하는 도중에 '탓'을 음송한다.
'삿'은 '실재'라는 뜻과
'선(善)'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삿'은 올바른 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제사와 고행과 보시를 꾸준히 행하는 것도
'삿'이라고 하며,
제사와 고행과 보시와 관련된 다른 모든 행위도
'삿'이라고 한다.

2 자유로워지기만을 바라면서 : 문자적으로는 '모크샤만을 바라면서'. '모크샤'는 해탈(解脫)이라고 번역되는데, '풀려남' 또는 '자유로워짐'이라는 뜻이다.

28. 그러나 아르주나여,
믿음 없이 행하는 제사와 고행과 보시는
'아샷'이라고 한다.
'아샷'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아샷'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아무 쓸모가 없다.

[해설]

제 17 장 | 세 가지 믿음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크리슈나는 경전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권했다. 그러자 아르주나는 전통적인 경전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경전의 가르침을 곧이곧대로 지키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아르주나의 질문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으냐는 것이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 구나와, 그에 따라 형성되는 서로 다른 기질, 그리고 다른 기질에서 비롯되는 신앙생활 양식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크리슈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문에서 산스크리트어 '슈랏다(sraddha)'를 '믿음'으로 번역했지만 꼭 들어맞는 번역은 아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분명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슈랏다'라고 보면 될 듯싶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슈랏다'는 그 사람의 인생관의 총체인 셈이다. 그래서 크리슈나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나름대로의 '슈랏다'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슈랏다'를 가지고 있느냐가 곧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 준다고 말한다.

믿음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 사트바적인 밝고 고요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고,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라자스적인 믿음이 있다. 라자스적인 믿음은 열정이라는 덕을 지니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기심이 끼어들 수 있다. 욕망과 분노와 탐욕을 특징으로 하는 타마스적인 믿음은 그것도 믿음이 어떤 사람의 인생관의 총체라는 점에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의 믿음과는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타마스적인 믿음은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퇴보의 원인이 된다.

크리슈나는 4~6절에서 이런 믿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사트바적인 밝고 고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상 세계의 신들을 섬기고, 라자스적인 활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관장하는 신인 야크샤와 권력과 쾌락의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영인 아크샤를 섬긴다. 이를테면 라자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와 권력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마스적인 어둡고 무거운 기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급한 차원에서 헤매는 귀신을 섬긴다. 곧 타마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신과 같은 저급한 차원에서 욕망에 휩싸인 채 아귀다툼을 벌인다는 뜻이다. 크리슈나는 기질에 따라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제사 드리는 태도도 다르다고 말한다. 이 말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특성이 타고난 기질에서 비롯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잘못하면 크리슈나의 이런 가르침을,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운명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크리슈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앞에서 크리슈나는 모든 행위가 구나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구나의 활동은 현상적인 프라크리티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無常)한 것이며, 또 늘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영적인 진화의 길로 들어 설 수 있다고 가르쳤다.

중요한 것은 크리슈나가 말하는 이런 세계관 또는 인생관은 옳고 그름의 이원론적인 시비를 초월한다는 것이다. 행위의 특성이 사트바적이든지 라자스적이든지 아니면 타마스적이든지 그런 것은 영원한 본질이 아니다. 모든 행위는 세 가지 구나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세 구나의 활동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단지 상태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아무리 고상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그것마저도 넘어가야 한다. 행위의 세계인 프라크리티를 넘어서 영원한 신적인 정신인 푸루샤 차원에 도달해야 한다.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없다.

그러나 크리슈나의 가르침은 푸루샤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크리슈나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의무를 행하는 카르마 요가를 여러 번 강조했다. 아마 이것이 《바가바드 기타》 전체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것이다. 크리슈나는 살아 있는 존재는 어떤 식으로든지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 함으로써 하나의 행위가 다음 행위를 낳는 행위의 구속 곧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카르마의 사슬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다.

크리슈나는 14~16절에서 영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고행과 훈련에 대해서 언급한다. 지속적인 훈련 없이는 영적인 진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가바드 기타》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본문에서 '고행'으로 번역한 '타파스(tapas)'는 '뜨겁다' 또는 '고통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프(tap)'에서 온 말이다. 그래서 '타파스'는 열이 나는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뜻이 되었다.

요가 수행이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수행자는 몸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을 느낀다.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인 쿤달리니가 활성화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쿤달리니가 활성화되면 흔히 초능력이라고 하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크리슈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초능력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타파스를 경계한다. 그리고 진정한 타파스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한다. 몸의 고행과 말의 고행과 마음의 고행을 말하고 있는 14~16절은 진정한 고행이 무엇인지를 가……는 고행에 관한 황금률이라고 할 만하다.

마지막 부분에서 크리슈나는 갑자기 이 장의 주제와 관계가 없는 듯한 '옴', '탓', '삿'이라는 만트라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절에서 올바를 행위인 '삿'과 아무 가치도 없는 행위인 '아삿'을 대비해서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다. '옴'은 힌두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만트라로서, 브라만 자신을 표현하는 성스러운 음절이다. 수행자는 명상에 깊이 몰입했을 때 가슴속에서 '옴'이라는 성스러운 음절이 진동하는 것을 느낀다. '탓'은 '그것'이라는 뜻인데, 생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궁극적인 실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삿'은 '실재'와 '선(善)'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옴-탓-삿'은 선악의 이원성을 초월한 절대 선(善)인 브라만, 곧 궁극적인 실재만이 현존하고 있음을 확언하는 만트라인 셈이다.

'삿'의 반대는 '아삿'이다. '아삿'은 '삿이 아닌 것'이라는 뜻이다. '삿'이 실재이며 선이며 선한 행위라면, '아삿'은 실재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선한 행위도 아닌 것을 말한다. 크리슈나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아삿'이라고 단정을 내린다. 그런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말에 걸리면 안 된다. 앞에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믿음 없이 행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믿음 없이 행하는 제사와 고행은 '아삿'이라고 말하는 크리슈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포기와 자유

제 18 장 | 포기와 자유

아르주나 :

1. 오 크리슈나여,

산야사(포기)와 티아가(초연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산야사와 티아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크리슈나 :

2. 옛 기록에 따르면

욕망이 일으키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을 '산야사'라고 하며,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초연함을 '티아가'라고 한다.

3~4. 어떤 사람들은 행위란 본디 악한 것이므로

모든 행위를 포기해야 된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와 고행과 보시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4.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이제 내가 이에 관한 결론을 말해 주겠다.

초연함에는 세 종류가 있다.[1]

5~6. 제사와 고행과 보시는 현자들의 영혼을 정화시킨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행위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르주나여,

이런 행위는 집착을 버리고,

1 초연함에는 세 종류가 있다 : '대가를 바라지 않는 초연한 마음으로 행할 세 가지 행위가 있다'는 뜻처럼 보인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7~8.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미망에 사로잡힌 결과이며,
어두운 기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힘들거나 고통스러울까 두려워서 행위를 피하는 것은
격정적인 기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포기로는
포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9~10.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당연히 하여야 할 일로 인식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초연하게 행하는 것은
밝고 고요한 기질에서 비롯된다.
기질이 밝고 고요하여 초연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싫어하는 일이라고 해서 꺼리지 않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11~12.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모든 행위를 포기하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포기는
자기가 바라는 결과를 기대하는 행위,
곧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즐거움과 괴로움, 그리고 그 둘이 섞인

세 가지 열매를 번갈아 맛본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 사람은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적인 자유를 누린다.

13~15.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이제 상키야 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행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설명해 주겠다.
첫째, 행위가 일어나는 육체.
둘째, 행위를 하는 대리인.[2]
셋째, 행위를 일으키는 기운.[3]
넷째, 감각기관의 활동.[4]
다섯째, 앞의 넷을 통솔하는 신적인 의지.
이 다섯 가지가
모든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옳은 행위이든 그른 행위이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모두
이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16. 행위의 이런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17. 자신을 행위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2 행위를 하는 대리인 : '만드는 자', '하는 자', 또는 '대리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카르타'의 번역이다. 현상 차원에서 활동하는 개체화된 자아를 일컫는 것으로 보는 해석자들이 많다.
3 행위를 일으키는 기운 : 문자적으로는 '(행위의) 도구'.
4 감각기관의 활동 : 문자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리된 행위들'.

어떤 행동을 해도 죄에 물들지 않는다.
비록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서 자유롭다.

18~19. 앎, 앎의 대상, 아는 자
이 셋이 행위가 일어나도록 하는 원동력이며,
행위를 하는 대리인, 행위를 일으키는 기운, 감각기관의 활동,
이 셋이 행위를 완성시킨다.
물질 차원의 세 가지 기운에 따라
앎과 행위와 행위를 하는 대리인의 성격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 주겠다.

20. 모든 존재들 속에서
하나의 불멸의 실재를 보며,
분리되어 있는 만물 속에서
분리되지 않은 통일성을 보는 것,
이것이 밝고 고요한 기운에서 비롯되는 앎이다.

21. 만물을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체로 인식하는 것,
모든 것을 서로 다른 존재로 보는 것,
이것은 격정적인 기운에서 비롯되는 앎이다.

22.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전체인 줄 아는 것,
이것은 어두운 기운에서 비롯되는 앎이다.

23.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밝은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다.

24.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
이것은 격정적인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다.

25. 행위의 결과로 오게 될 손실이나
다른 사람이 받을 고통이나 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도 모르는 상태에서
닥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어두운 기질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다.

26. 이기심을 벗어난 사람,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똑같이 여기는 사람은
밝고 고요한 기운의 행위자이다.

27. 열정이 넘치는 사람,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
욕심이 많고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사람,
그리고 행복과 불행에 웃고 우는 사람은
격정적인 기운의 행위자이다.

28. 자신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저속하고, 완고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
게으르고 낙담을 잘하며 꾸물거리며 미루는 사람은
어두운 기질의 행위자이다.

29.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내 이제 그대에게
물질의 세 가지 기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세 종류의 지성과 의지에 대해 말해 주겠다.

30.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어떻게 하면 굴레에 얽매이는지를 아는 것,
이런 것이 밝고 고요한 기운에서 비롯되는 지성이다.

31.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해야 할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은 격정적인 기운에서 비롯되는 지성이다.

32. 무지와 미망의 어둠에 뒤덮여서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여기고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는 것,
모든 것을 왜곡해서 아는 것,
이런 것은 어두운 기운에서 비롯되는 지성이다.

33. 꾸준한 요가 수행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과 마음과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은 밝은 기운의 의지력에서 비롯된다.

34. 부를 추구하며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며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것은 격정적인 기운의 의지력에서 비롯된다.

35.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게으름, 두려움, 좌절, 의기소침, 자만심 등에
깊이 빠져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두운 기운의 의지력에서 비롯된다.

36.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내 이제 그대에게
물질의 세 가지 기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세 종류의 행복에 대해 말해 주겠다.
이것을 알고 훈련함으로써
그대의 슬픔과 고통은 끝이 나리라.

37. 밝고 고요한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복감은
처음에는 독약처럼 쓰지만
마지막에는 감로처럼 달다.
이런 행복감은 참 자아를 깨달은
영혼의 평온함에서 온다.

38. 격정적인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복감은
처음에는 감로처럼 달지만
마지막에는 독약처럼 쓰다.
감각적인 쾌락에서 오는 즐거움이
이런 행복감이다.

39. 어두운 기운에서 비롯되는 행복감은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온다.
이런 행복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아를 미혹하여 마음의 빛을 가린다.

40~41. 물질 차원의 세 가지 기운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하나도 없다.
땅에 있는 존재나 하늘에 있는 신들이나
아무도 이 세 가지 기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은 타고난 기운에 따라

저마다 다른 사회적 의무를 갖는다.
브라만에게는 사제로서의 의무가,
크샤트리아에게는 통치자와 전사로서의 의무가,
바이샤에게는 일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그리고 수드라에게는 보조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42. 브라만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자기절제, 고요, 순수함, 인내, 정직,
진리 탐구, 믿음과 같은 것을
완성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43. 크샤트리아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용기, 힘, 꿋꿋함, 민첩함, 관대함, 지도력,
그리고 전쟁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결단력 등을
완성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44. 바이샤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농사, 목축, 상업 등을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으며,
수드라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45~46. 누구나 타고난 기질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함으로써
완성에 이를 수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모든 존재 속에 머물고 있는

창조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다.

47~48. 자기의 의무가 아닌 일을
기막히게 잘 해 내는 것보다는
비록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편이 낫다.
자기의 의무를 완성한 사람은
결코 악한 결과를 맛보지 않는다.
타는 불이 연기로 뒤덮여 있듯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함으로 뒤덮여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서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49~50. 자기를 행위자로 여기는 마음과
욕망과 결과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행위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5]
아르주나여, 잘 들어라.
내 이제 그대에게
어떻게 지혜의 궁극적인 완성에 이를 수 있는지를,
어떻게 브라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리라.

51~56. 요가 수행을 통해서

5 행위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 문자적으로는 '행위 없음이라는 지고한 완성에 이른다'. '무위(無爲)라고 하는 지고한 완성 상태에 이른다'라고 옮길 수도 있다.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지성의 분별력을 확립한 사람,
자기를 단호하게 다스리는 사람,
감각대상에 대한 갈구를 포기한 사람,
고요한 곳에서 명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가볍게 먹는 사람,
몸과 마음과 말을 제어하는 사람,
요가 명상을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
에고의식과 오만함과 분노와 공격성을 벗어 놓은 사람,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버린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브라만과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른다.

54~56. 브라만과 하나 되어 맑고 고요해진 사람은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고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친다.
이들은 나에게 헌신함으로써
나와 나의 영광을 알고
나의 무한한 세계로 들어온다.
이들은 모든 행위를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여기며,
나의 은총으로 영원한 집으로 돌아온다.

57~58. 아르주나여,
그대의 모든 행위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라.

나를 그대의 유일한 보호자로 삼아라.
내면의 수행을 통해 마음을 늘 나에게 집중해라.
마음을 나에게만 둔다면
나의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리라.
그러나 그대가 행위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를 거부한다면 허무한 파멸에 이를 것이다.

59~60. 만약 그대가 스스로 행위자라고 생각하여
“나는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그대의 결심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의 타고난 본성이 그대를 싸움터로 내몰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무지 때문에
그대가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대의 타고난 본성의 힘이 그대의 의지를 거슬러
그대를 행위의 세계로 내몰 것이다.

61~62. 아르주나여,
모든 존재들의 가슴속에 머물고 계신 주님은
모든 존재를 환영(幻影)의 바퀴에 넣고 돌리고 있다.
온 힘을 다해 그에게 귀의하라.
그러면 그의 은총으로
영원한 집에 이르러 지고한 평화를 얻으리라.

63~64. 그대는 지극한 지혜의 가르침을 들었다.[6]
나에게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해 본 다음,
그대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나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그래서 이제 그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해 주려고 한다.

65~66. 언제 어디서나 나만 생각하고 나만 섬겨라.
그대의 모든 행위를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여겨라.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이를 것이다.
이것은 사랑하는 그대에게 주는 약속이다.
그대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만 의지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다시는 슬퍼하거나 탄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67~69. 나의 이 가르침을
나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며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지 마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며 나를 비웃는 자에게는
나의 이 가르침을 절대로 전하지 마라.
이 최고의 비밀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지극히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전해 주어라.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가르침을 들으면
그는 의심하지 않고 바로 나에게 올 것이다.

6 지극한 지혜의 가르침을 : 문자적으로는 '비밀보다 더 비밀스러운 지혜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 주는 사람은
나에게 지극히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나를 그보다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70~71. 내가 그대에게 전한
이 성스러운 가르침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
나에게 지혜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사랑한다.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행위가 순수한 영혼들이 거하는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72. 아르주나여,
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들었는가?
무지에서 비롯된 그대의 망상이 제거되었는가?

아르주나 :
73. 예, 당신께서 저의 의심과 망상을 몰아내셨습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올바른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의 믿음은 확고해 졌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산자야 :
74~77. 왕이시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크리슈나와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 아르주나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들이 나눈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신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현자 뱌사하[7]의 은총으로,
요가의 주(主) 크리슈나의 입으로부터
영적인 합일[8]에 대한 지고한 비밀을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크리슈나와 아르주나가 나눈
이 놀랍고 성스러운 대화를 기억할 때마다
저의 마음은 기쁨으로 일렁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놀라운 형상으로 나타난
크리슈나의 모습을 떠올릴 때 마다
저의 마음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범벅이 됩니다.

78. 요가의 주(主) 크리슈나가 있는 곳에는
그리고 프리타의 아들 아르주나가 있는 곳에는
승리와 번영과 정의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7 뱌사하 : 《베다》와 《바가바드 기타》를 포함한 《마하바라라타》를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현자.
8 영적인 합일에 대한 지고한 비밀 : 문자적으로는 '요가의 지고하고 성스러운 비밀'.

[해설]

제 18 장 | 포기와 자유

18장은 《바가바드 기타》 전체의 결말로서 그 동안 다룬 여러 가지 주제가 종합적으로 언급된다. 먼저 아르주나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다. 아르주나는 보통 '포기'라는 뜻으로 함께 쓰이는 '산야사(sannyasa)'와 '티아가(tyaga)'가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다. 두 낱말 모두 포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산야사는 특별히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정처 없이 방랑하면서 영적인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산야시라고 하는데, 가정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고 수행에 몸을 던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크리슈나는 이런 종류의 포기를 권하지 않는다. 그 대신 크리슈나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충실하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라고 권한다. 이런 점에서 《바가바드 기타》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슈나가 권하는 포기는 '티아가'이다. 티아가는 의무와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를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초연함'이라고 번역했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자신의 다르마 곧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것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의무를 수행하되 결과를 기대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당연히 할 일을 할 뿐이라는 초연한 심정으로 하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이제는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제사와 영적인 훈련과 베푸는 행위를 제시한다.

크리슈나는 진정한 포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타마스적인 기질과 라자스적인 기질에서 비롯되는 포기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다. 단순히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타마스적인 기질에서 비롯되고, 어렵거나 귀찮아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라자스적인 기질에서 비롯된다. 이런 식의 포기로는 포기의 진정한 목적인 초월과 자유를 얻지 못한다.

《바가바드 기타》에는 '카르마-팔라-티아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이 말은 '행위의 열매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이 장에서 크리슈나는 포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 곧 모크샤(moksa)를 다시 강조한다. 자유를 가져다주는 포기는 행위 자체의 포기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의 포기이다.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고 행위 하는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아 번갈아 찾아오는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행위 하지만 대부분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금세 다시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욕망의 불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망의 충동에 떠밀려서 끊임없는 행위의 물결에 휩쓸려 간다. 하지만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행위를 할 뿐 행위의 결과에서 자유롭다.
크리슈나는 13~15절에서 행위와 관련된 상키야 철학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크리슈나는 세 가지 구나 곧 세 가지 기운 또는 기질에서 비롯되는 행위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 부분도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가르침을 다시 요약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구나의 세 가지 성격에서 비롯되는 세 종류의 행복감에 대한 설명은 새로운 가르침이다. 크리슈나는 자기가 느끼는 행복감이 어떤 종류의 행복감인지를 알고, 진짜 행복인 참 자아를 깨달은 행복을 위해 훈련할 것을 당부한다.
40절부터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구분되는 신분 제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진다. 사람들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비민주적인 악습으로 평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크리슈나가 이런 신분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신분에 차별이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타고난 기질에 따라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영적인 완성에 이르는 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크리슈나는 누구나 자신의 기질에 맞는 의무에 충실함으로써 영적인 완성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가 아닌 것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자기 기질에 맞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크리슈나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 기질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할 때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다. 하지만 자기의 기질과 능력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예수도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비유를 통해서 이와 똑같은 가르침을 주었다. 하느님은 각자 자기가 받은 달란트 곧 자기 재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50절 이후에는 완성을 성취하여 브라만과 하나가 된 사람인 싯디(siddhi)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크리슈나는 61절에서 주님은 모든 존재의 가슴속에 머물고 있으며, 그가 모든 존재를 환영(幻影)의 바퀴에 넣고 돌리고 있다고 말한다. 환영의 바퀴란 다름 아닌 시간의 바퀴다. 크리슈나는 궁극적인 존재에게 지고한 헌신을 하면 이 시간의 바퀴에서 빠져 나와 궁극적인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메시지가 크리슈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그래서 크리슈나는 자기가 전한 가르침을 자기를 사랑하지 않거나 헌신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예수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가르쳤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그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르고 땅바닥에 놓고 발로 밟는다는 것이다. 또는 돌멩이를 던지는 줄 알고 물려고 덤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고, 그 비유의 뜻은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었다. 가르침의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고, 또 둘 다 신의 화신이기 때문에 크리슈나를 인도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시대 순서에 맞추어 말하자면 크리슈나가 먼저이기 때문에 예수를 팔레스타인의 크리슈나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크리슈나와 아르주나의 대화는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자기가 가르친 것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물음과, 그것을 이해했으며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아르주나의 확신에 찬 대답으로 끝이 난다. 눈 먼 왕 드리타라슈트라에게 크리슈나와 아르주나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한 산자야는 크리슈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기도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크리슈나가 보여 준 놀라운 우주적인 형상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기쁨과 놀라움으로 뒤범벅이

된다고 고백한다. '신의 노래' 《바가바드 기타》는 크리슈나와 아르주나가 있는 곳에는 늘 승리와 번영이 있을 것이라는 산자야의 축복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옮긴이 소개 | **정창영**

1955년 충남 전동 출생.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성경을 동양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작업과 함께 인도, 티벳, 중국의 동양 고전을 쉬운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1980년대에 《현대어 성서》 번역팀에 참여하면서 고전과 경전 번역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닦았다. 이후 고전 번역을 평생에 걸친 수행으로 여기고 있다. 《도덕경》《예언자》《동양정신과 서양정신의 결혼》《성경에 관한 논쟁》《내면의 불꽃》《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티벳 사자의 서》《있는 그대로》 외 다수의 역서와 저서가 있다.

바가바드 기타

발행 | 2016년 5월 10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이상민 김지훈
편집 · 교열 | 황인정
표지제호 | 강병인
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